



환원신학

정립 장 성 영 목사



태광출판사



정립 장 성 영 목사

경인그리스도의교회 담임목사
서울기독대학교 퇴임교수회장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증경총회장
인천 서구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

대천고등학교
서울기독대학교 및 선교대학원
San Jose Christian College(B. A)
Immanuel Baptist Seminary(M.Th, D.Th)
Philadelphia Mission & Theological Institute(D.Min)

<저서>

구약개론강의
그리스도교 신학개론
CHRISTIAN WORSHIP
-It's Thology and Principles
그리스도교 예배와 성례전
환원예배의 원리
환원운동론
환원운동사
하나님께 드리는 큰절
그리스도교 윤리학
종교학개론

<연락처> 010-7704-0000

환원신학

정립장성영목사

태광출판사

환원신학

還元神學

THE
RESTORATION
THEOLOGY

머리말

성경의 권위를 교회 위에 두는 것이 16세기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이었다. 그 이념을 이어받아서 교회의 모든 임직식에서 서약의 순서로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습니까?”라는 질문이다.

그렇다! 성경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교회의 계획서인 동시에 그 설계도이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모든 생활은 성서적이어야 한다. 혹시 성경대로 믿지 않고, 또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즉시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고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성서로 돌아가자!”(Return to the Bible!)는 믿음의 태도가 바로 신앙개혁인 환원운동(還元運動, The Restoration Movement)이다.

이러한 환원운동의 입장에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살펴보자!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멀어지고 달라진 부분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며, 마땅히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여 고쳐야 할 것이다.

8 머리말

그런데, 이때에 성도의 노력으로 고쳐지는 것들도 있지만, 도저히 교인 개인적으로는 환원하기가 힘든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것은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전통이나 각 교단의 가르침(敎理)과 교회의 규범(敎會法) 등이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신앙생활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 서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행 4:19, 개역개정판) 고 외쳤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환원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 책(초판)을 쓰게 되었고, 금번에 서론과 예배신학을 보충하여 증보판을 내어놓는다.

이 작은 외침이 오늘의 교회 성장과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형성하고 간직하는 데에 잔잔한 보탬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바이다.

正立 張成榮 識

차례

머리말	7
-----	---

I. 서론

1. 학문과 신학	13
2. 환원운동	23

II. 주일신학

1. 성경에서의 주의 날	39
2. 주일의 개념	49
3. 주일성수	59

III. 예배신학

1. 예배의 개념	81
2. 예배의 역사	123
3. 예배의 실제	139

10 차례

IV. 세례신학

1. 성례전의 개념	203
2. 세례의 어의	211
3. 세례의 역사	219
4. 세례의 실제	249

V. 성찬신학

1. 성찬의 개념	259
2. 성찬의 의미	267
3. 성찬예식	277

VI. 성직신학

1. 성직의 조건	283
2. 성직의 내용	295
3. 성직의 원리	311
4. 성직의 임직	323
집필 후기	335

I
서론

序論

THE
INTRODUCTION

I. 서론

1. 학문과 신학

학문 · 13

신학 · 15

2. 환원운동

환원 · 23

환원운동 · 27

1

학문과 신학

학문(學問)

학문이란, “배우고 익히는 것”(learning)으로 다른 말로 ‘학식’(學識)이라고도 하는데, “지식이나 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체계화(體系化)시킨 것”(knowledge)을 말한다. 이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체계화, 혹은 구체화 방법이 삼단논법(三段論法, syllogism)이다. 그리고 학문을 줄여서 그냥 ‘학’(學)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어떠한 전문(專門) 또는 어떤 부분의 갈래(science)를 가리킨다.

학문을 한자로는 배울 ‘학’(學)자에 물을 ‘문’(問)자를 써서 ‘學問’으로 쓰는데, 이것은 동양의 3경(三經: 詩經 · 書經 · 易經) 가운데 주역(周易)이라고도 하는 역경에서 유래한 것이다. 즉, 역경의 문언전원문(文言傳原文) 편의 “君子 學以聚之 問以辨之”(모르는 것은 배우고 의심스러운 것은 묻는다.)에서 ‘學’자와 ‘問’자를 따서 두 글자로 요약한 것이 바로 학문(學問)이다.

14 서론

학문의 분류(分類)

학문은 그 차원에 따라서 초등학문(初等學問, The basic principles of the world, στοιχειῖα), 중등학문(中等學問), 고등학문(高等學問) 등으로 크게 셋으로 분류(三大分類) 한다.

첫째, 초등학문은 ‘자연과학’(自然科學, Natural Science) 또는 ‘순수과학’(純粹科學, Pure Science)이라고 하는데, 이는 인력(人力)을 더하지 않은 천연(天然) 그대로의 자연과 그 현상을 보고 그 필연(必然)의 법칙을 발견하고 기술하는 학문을 말한다(cf. 갈 4:3; 9, 골 2:8; 20). 이 초등학문에는 물리학, 화학, 광물학, 생물학, 천문학, ... 등의 분야들이 있다.

둘째, ‘인문과학’(人文科學, Cultural Science)이나 ‘사회과학’(社會科學, Social Science), 또는 ‘인문사회과학’으로도 불리어지는 중등학문은 인류의 문화에 관한 정신과학(精神科學)의 총칭으로서,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 중등학문에는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군사학, 의학, 예술학 ... 등의 분야들이 있다.

셋째, 학문 최고의 고등학문인 신학(神學, Theology)은 신(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신학(神學)

신학이란 용어는 본래 희랍(希臘, Greece)의 철학자 플라톤(Platon, 427-343 BC)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384-322 BC)에게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신화론’(神話論, Mythology)과 거의 동일시하였다.

그 용어의 어원을 살펴서 신학의 가장 적절한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에 대하여서나 하나님과 관계된 사항에 대한 말씀”(Doctrina de Deo et de rebus divinis, λόγος περὶ τοῦ Θεοῦ καὶ περὶ τοῦ Θειόν)이라 하겠다.

· 신학(神學) < theology, Theologie < theologia

< Θεολόγια = Θεός + λόγος (< λέγω)

God word I say

16 서론

오늘날 학계(學界)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학(神學, Theology)의 다른 명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학의 장(場)을 표시하는 명칭으로 ‘그리스도교 신학’(基督教神學, Christian Theology) 혹은 ‘교회신학’(教會神學, Church's Theology)이 있다.

둘째, 그 내용을 다루는 방법을 표시하는 ‘이론신학’(理論神學)이나 ‘조직신학’(組織神學, Systematic Theology)으로도 불리고 있다.

셋째, ‘교의학’(敎義神學, Dogmatics)이나 ‘교리학’(敎理神學, Doctrine)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교리’와 ‘교의’를 같은 뜻(同意)으로 여긴 것이다.

이와 같이 교리와 교의를 “종교상의 원리와 이치”라는 동의어로 볼 때에는 일반적으로 ‘교의’라고 하며, 영어로 ‘독트린’(doctrine)이라 하고, 독일어로는 ‘도그마’(Dogma)로 쓴다.

이들 교리와 교의를 다른 뜻(他意)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어에서 ‘교리’를 ‘doctrine’으로, ‘교의’를 ‘dogma’로 구별하는데, 그 어원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뚜렷하여 진다.

- 교리 < doctrine < doctrina < διδασκαλία, διδαχή
[영] [라] “teach” “teaching”
- 교의 < dogma, Dogma < δόγμα, δόκεω
[영] [독] “opinion” “to seem”

신약성경에서는 왕의 명령(눅 2:1, 행 17:7), 법조문(율법 혹은 규례, 엡 2:15, 골 2:14; 20), 인간의 결정(행 15:6) 등을 ‘도그마’(δόγμα)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서방 교회사에서도 터툴리안(S. Tertullianus, 150-200?, 197년의 ‘변증론’)에서부터 칼빈(J. Calvin, 1509-1564)에게 이르기까지 ‘교의’(dogma)는 이교나 이단의 가르침 등과 같이 좋지 못한 가르침을 나타낼 때에 사용하였다.

교의에 대한 구교와 개신교의 구별을 보면, 구교(舊敎, 천주교회, The Catholic Church)에서의 ‘교의’는 교회가 결정을 내린 계시 진리를 말하며, ‘교의학’은 이와 같은 교의들을 수집, 해석, 체계화하는 일을 말하고 있다.

개신교회(新敎, The Protestant Church)에서는 교의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교회의 선교”라고 정의한

18 서론

칼 바르트(K. Barth, *Kirchliche Dogmatik*, 1932)에 이르러서 구교의 것과 구별하기 시작하였는데, 교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교회의 근원적인 발언이며, 교의들은 이 본질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라고 하였다.

근대의 신학에 와서는 교리와 교의에 대하여 그 사용에서의 구별은 다음의 두 신학자에서 발견된다.

프랑스의 사바티어(Louis August Sabatier, 1839-1901)는 교의를 “어떤 종교적 결사(結社)에서 법정 자격·권위 있는 결정의 결과로 신앙의 대상, 신념과 신행의 법칙으로 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수의 교리적 서술들”(A. Sabatier, *Esquisse d'une philosophie de la religion d'après la psychologie et l'histoire*, 1897, p.263)이라고 하였다.

스코틀랜드의 오르(James Orr, 1843-1913)에 의하면, “교의는 교회적 인정을 얻은 신경, 고백, 신앙의 개조(個條)들에 체현(體現)된 교리의 진술, 혹은 작식(作式)을 의미한다. 교리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진다. 교리는 교의 보다 앞서는 것이니, 교의는 교리보다 더 긴밀히 합치되기 위하여서 이따금 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교리는 이해될 만하게 진술될 수 있는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는 한, 성경적 종교의 근본적 요소들이다.”(J. Orr, *Side-Lights on Christian Doctrine*, 1909, pp.5-7)라고 하였다.

신학의 분류

그리스도교 신학은 크게 넷으로 분류(四大分類)하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성서신학(聖書神學, Biblical Theology): 성경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의 총칭으로 ‘성서학’(Bibliology)이나 ‘주경신학’(註經神學, Exegetic Theology)이라고도 한다. 이 성서신학은 18세기 이후에 교의학에서 분리되었으며, 천주교회에서는 역사신학에 넣고 있다.

성서신학은 구약성서신학(舊約學: 구약개론,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과 신약성서신학(新約學: 신약개론,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그리고 성서 원어(히브리어, 헬라어) 등으로 나누어 연구한다.

20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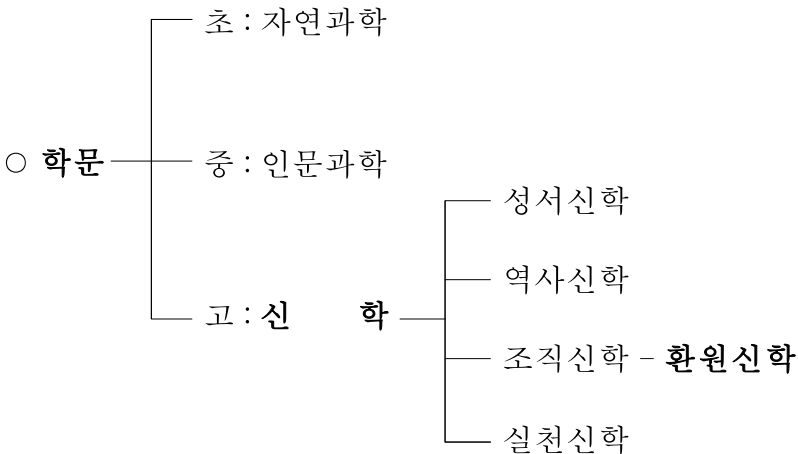
둘째, 역사신학(歷史神學, Historical Theology): 신학이 일어난 사건을 근거로 한 그의 역사성을 다루는 신학의 분야이다. 이 역사신학은 성경의 역사(구약사, 신·구약 중간사, 신약사)와 교회의 역사(教會史: 세계교회사, 교파의 역사, 교리의 역사, 신조학, 환원운동사, 한국교회사, 개교회사, ...)로 구분한다.

셋째, 조직신학(組織神學, Systematic Theology): 신학의 이론적(혹은 체계적)이나 근본적 연구를 말하며, ‘이론신학’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좁은 의미로의 조직신학 혹은 교리학(敎理學, Doctrine)이라고도 하는 교의학(敎義學, Dogma: 서론, 신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외에 그리스도교 변증학(辨證學: 驗證學, 本質論, 自然神學, 카톨릭에서는 기초신학이나 그리스도교 護敎論이라 함)을 비롯하여 그리스도교 논리학(論理學), 그리스도교 윤리학(倫理學), 신학의 사상(思想)이나 항목, 또 신학자 연구, ... 등의 분야들이 있다.

넷째, 실천신학(實踐神學, Practical Theology): 교회의 실제적인 모임과 보냄 등을 다루는 신학의 분야다. 여기에는 실천신학개론을 비롯하여 목회학(牧會學:

목회학 개론, 목회 상담학, 목회 심리학, 목회 윤리학, 목사학, ...), 교회 행정학(敎會行政學: 인사행정, 문서행정, 재산관리론). 예배학(禮拜學: 예배학개론, 설교학, 찬송가학, 성례전, 기도론), 선교학(宣敎學: 선교학개론, 개인전도학, 집단선교학, 교회성장학, 그리스도교 사회학, 문서선교론, 지역선교론, ...), 그리스도교 교육학(敎育學: 기독교 교육학개론, 기독교 교육사, 기독교 교육행정, 기독교 교육심리학, 연령별 기독교육, 기독교 교육의 장, 교사론, ...) 등이 있다

학문의 분류를 도해 ·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환원운동

환원(還元)

먼저, ‘환원’의 한글 뜻을 알아보기 위하여서 양주동이 책임 감수한 「새국어대사전」(한영출판사, 1975)에서 ‘환원’(還元)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근본으로 도로 복귀하는 일. *restoration*. ② [화] 어떤 물질이 산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거나 외부에서 수소를 흡수하는 화학 변화. *reduction* ↔ 산화(酸化). ③ [종] 천도교에서 사람이 죽음을 일컫는 말.

또한 금성판 「국어대사전」(전2권, 금성출판사, 1993)에서는 ‘환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다:

① 본디의 상태로 되돌리는 일. ② <*reduction*> [화] 어떤 물질이 산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거나 외부에서 수소를 흡수하는 화학 변화. 넓은 뜻으로는 원자·분자·이온이 전자를 얻는 반응을 포함하기도 함. ③ [철] 잡다한 사물을 어떤

24 서론

근본적인 것으로 치환(置換)하여 귀착시키는 일.
④[정] 어떤 기간의 수익 평균을 그 기간의 이율에 따라 자본으로 환산하는 일. ⑤[중] 천도교에서 사람의 죽음을 이르는 말.

그리고 「세계백과대사전」(서문당, 1975)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원’이 설명되어 있음을 읽을 수가 있다:

① 철학용어. 사고의 대상을 그것과 등가(等價)한 대상에 의하여 환치(換置)하거나, 그 본질적인 성질을 꺼내어 그것을 구성하는 보다 순수 단순한 요소로 나누는 것. 삼단논법의 제2격 이하를 제1격으로 환원하는(還元法・改格法・變格法) 것과, 추론을 일련의 직관으로 환원하는 것 등이 있다. 이들에 있어서는 갖가지의 선입견을 제거하고 사상(事象) 그 자체에 향하는 것, 대상을 개별적 다양성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 본질에서 보는 형상적(形相的) 환원과 자연적 태도를 괄호에 넣고, 그 다음에 남는 순수 의식의 영감을 집어내는 현상학적(現象學的) 환원이 있다.
② 화학 용어. 산화(酸化)의 반대 과정. 전에는 산화된 것을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하였으나, 현재에는 수소를 부가하는 일 및 어떤 원소에 착안하여 그 원소의 산화수를 감소시키는 경우도 환원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한자에서 ‘還元’(환원)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장삼식의 「漢韓大辭典」(학원출판공사, 1993)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화학 용어와 물리 용어를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감. ② (化) 물질이 그 자체에서 산소를 잃든가 또는 외부에서 수소를 얻는 변화. ③ (物) 금속의 양원자(陽原子)가 감소되거나, 음원자(陰原子)가 증가하여 금속의 원자가(原子價)가 변화하는 일.

한자 용어 ‘還元’의 한 글자씩의 의미를 옥편에 의해서 알아보면, [還: 환]은 ① 돌아올 환(反也), 돌아갈 환(退歸), 돌려보낼 환(償也), 돌아볼 환(顧也). ② 돌릴 환(繞也). ③ 돌 선(周-, 轉也), 가벼울 선(便捷), 빠를 선(速也) 등이며, [元: 원]은 으뜸 원(原也), 착하고 어질 원(善良), 일 년의 맨 첫날 원(元旦), 임금 원(君也), 백성 원(民也), 클 원(大也), 기운 원(氣也), 하늘 원(天也), 길 원(長也) 등으로 그 뜻이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 ‘還元’의 뜻을 말한다면, “으뜸으로 돌아감”이라고 할 수 있겠다.

26 서론

이상과 같은 한글 및 한자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루려는 ‘환원’을 한 마디로 풀이한다면, “으뜸(본래)으로 돌아가는 일” 혹은 “원래대로 돌리려는 일”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영어에서의 환원, 즉 ‘restoration’의 뜻을 알아보기로 하자. 영어에서 접두어 ‘re-’로 시작되는 어휘는 라틴어로부터의 차용어에서 볼 수 있는 조어 요소로 “다시”(再, 復) 혹은 “뒤쪽으로”(backward) 라는 뜻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시사영어사의 「영한대사전」(1991)에서 ‘restoration’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res·to·ra·tion [rèstərɛɪʃən] *n.* 1 부흥, 재흥, 회복, 복구, 부활. 2 회복(부활, 복구) 되기, 회복된 상태. 3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수복, 복원. 4 환부(還付), 반환. 5 복구(회복, 부활) 된 것. 6 복원도. 7 복귀, 복위. 8 (the R-) (1) 왕정복고(王政復古): 1660년에 Charles II세가 복위해서 행한 왕제(王制)의 재건. (2) 왕정복고 시대: Charles II세(1660~85)의 재위 기간 때로 James II세(1685~88)의 치세도 포함한다.

그리고 고려원에서 펴낸 영영사전(英英辭典)인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에서는 'restoration'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res·to·ra·tion (res'tə rā'shən) n. [ME. restauration < MFr. < restauration < LL. restauratio] 1. a restoring or being restored; specif, a) reinstatement in a former position, rank, etc. b) restitution for loss, damage, etc. c) a putting or bringing back into a former, normal, or unimpaired state or condition. 2. a representation or reconstruction of the original form or structure, as of a building, fossil animal, etc. 3. something restored.

환원운동

還元運動, Restoration Movement

환원운동의 개념(概念)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 하겠다(장성영, 환원운동론, 태광출판사, 2005).

28 서론

첫째, 환원운동은 인간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자는 ‘인간의 운동’(人間運動)이다.

둘째, 종교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가장 올바른 종교 혹은 신앙을 갖게 하자는 ‘종교의 운동’(宗教運動) 또는 ‘신앙의 운동’(信仰運動)이다.

셋째, 인간의 신앙의 장(場)인 교회를 맨 처음 교회로 돌아가게 하자는 ‘교회의 운동’(教會運動)이라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환원운동을 인간운동과 종교운동 또는 신앙운동 및 교회운동으로 보기 때문에 환원운동에서는 “성서로 돌아가자!”(Return to the Bible!) 또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외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인간을 위하는 종교들이 많고, 또 그 종교의 가르침이 사람에게 매우 유익한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의 시작을 비롯하여 인간의 근본된 문제들을 바로 알려주는 종교는 그리스도교 외에는 없다고 하겠다. 나아가서 인간의 출발과 근본에 대해서 이 세상의 어느 사료(史料)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다만 그리스도교의 경전인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성경은 그 첫 마디(창세기 1장 1절)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 하느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행 14:15, 공동번역)라고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조물주이신 하나님과 그의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사도행전 17장 24-2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복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상의 말씀들은 우주와 그 안의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피조되었다고 한다. 나아가서 우리 인간들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창세기 1장 26-28절에서 읽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인간의 창조뿐만 아니라, 그 외의 인간의 모든 문제와 그 해결, 즉 타락과 실낙원(失樂園) 및 그 회복에 대한 것들도 바로 성경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환원, 즉 인간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성서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 하겠다. 이렇게 환원운동에서 “성서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성경과 성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경전의 명칭을 ‘성경’과 ‘성서’를 혼용하고 있으나, 이의 사용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경우

가 있다.

먼저, 두 용어를 같은 의미(同意)로 혼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성서’보다 ‘성경’을 쓰는 것이 옳다고 본다.

성서(聖書, Scripture)는 “문서”(writings)라는 뜻인 헬라어 ‘그라페’(γραφή)에서 나온 말로 “글 중의 글” 즉 “거룩한 글”이라는 뜻으로 ‘글’, 혹은 ‘말’이라는 개념을 기초로 해서 표현된 용어라고 본다면, 성경(聖經, Bible)은 “책들”(books)의 뜻을 가진 헬라어 ‘비브리아’(βιβλία)에서 온 말로 “책 중의 책” 즉 “거룩한 말씀”이란 의미로, ‘말씀’이라는 뜻을 강조하는 용어이기에 ‘성서’보다는 ‘성경’이 더 높임말이라고 하겠다. 그 예로서 유교의 경전에 사서삼경(四書三經)이 있는데, 사서(論語, 孟子, 中庸, 大學)보다 삼경(詩經, 書經, 易經)이 차원 높은 가르침으로 여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말로서 ‘성서’와 ‘성경’을 같은 의미의 용어로 사용할 때에는 ‘성서’보다는 ‘성경’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환원운동에서는 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보다 “성서로 돌아가자!”고 하는 경우가 많은가?

32 서론

영어의 “Return to Bible!”에서 ‘Bible’을 왜 ‘성경’이 아니라, ‘성서’로 번역하는 경향을 취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구태여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고 하겠다.

이미 말한 것처럼 ‘성경’과 ‘성서’를 같은 뜻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들을 각각 다른 의미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성경’을 전체적인 의미로 사용하여 ‘성경전서’ 혹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라고 하는 반면, ‘성서’는 날권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여호수아서’나 ‘이사야서’ 또는 ‘로마서’나 ‘히브리서’… 등으로 쓰이어졌다(이때에 창세기의 ‘記’, 마태복음의 ‘音’, 사도행전의 ‘傳’ 및 요한계시록의 ‘錄’ 등은 ‘書’와 같다). 그래서 성경의 각 권을 말할 때에는 (예를 들어 창세기를 말한다면) “성경 창세기”라고 언급하지 않고 “성서 창세기”라고 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서’는 구절적(句節的)인 의미로도 사용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성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지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환원운동에서 “성서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이 운동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만,

나아가서 성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환원운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를 소중히 여기고, 그 세세한 말씀대로 따르자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이 구호로써 알게 된다.

본질에는 일치를! In Essentials Unity!

비본질에는 자유를! In Non-Essentials Liberty!

매사에는 사랑으로! In All Things Charity!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우리도 말하고,
성경이 잠잠한 곳에서 우리도 잠잠한다.”

Where the Bible speakes, we speak and
where the Bible is silent, we are silent.

(by Thomas Campbell)

II

주일신학

主日神學

THE

LORD'S DAY THEOLOGY

II. 주일신학

주일신학 서론 · 37

1. 성경에서의 주의 날

구약에서의 주의 날 · 39

신약에서의 주의 날 · 42

2. 주일의 개념

주 기념일 · 49

첫 날 · 52

3. 주일성수

소극적인 주일성수 · 60

적극적인 주일성수 · 63

주일신학 결론 · 71

주일신학 서론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나?’ 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이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 주일성수(主日聖守)에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신념과 그의 실천이 교회(아니, 목회자)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주의 날에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를 듣는 것으로 주일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예배를 드릴뿐만 아니라, 그날의 삶 전체가 거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신앙의 다른 모습들 중에서 대표적인 차이점은 성찬예배라 하겠다. 어떤 교회들은 성만찬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찬이 없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라고까지 하고 있는

38 주일신학

것이다.

주일성수와 성만찬에 대한 문제는 ‘주의 날(主日)을 어떤 날로 믿느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단원에서는 먼저 신·구약 성경에서의 주의 날을 찾아 그 개념을 알아보고, 주일성수의 방법 등을 다루게 될 것이다.

1

성경에서의 주의 날

성경의 ‘주의 날’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로서의 ‘심판의 날’과 이미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한 주간의 첫 날로서의 ‘주일’로 크게 구별된다. 본 장에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언급된 ‘주의 날’을 찾아보고, 그 날에 대한 두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구약에서의 주의 날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계시의 대부분을 ‘주의 날’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주의 날’, 혹은 ‘여호와 의 날’(יְהוָה מִיּוֹם)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을 그 기록된 시기의 순서로 살펴보면서 구약성경에서의 주의 날의 개념을 알아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사용된 시기(연대)의 순서는 *LIFE APPLICATION BIBLE* (NIV, Illinois: Tyndale House Publishers &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에 의한 것이다.

40 주일신학

오바댜(Obadiah, 853-841 BC): “여호와께서 만국의 멸할 날이 가까 왔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 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옵 1:15)

요엘(Joel, 796 BC):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 니와 ….”(욥 2:31). 이 외에도 요엘서에는 주의 날이 4회 (1:15; 2:1; 11; 3:14) 더 기록되어 있다.

아모스(Amos, 760-750 BC): “화 있을진저 여호와와 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암 5:18, cf. 5:18-20).

이사야(Isaiah, 700 BC):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 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 라.”(사 34:8). 이사야서에는 이날을 ‘혼란의 날’(22:5) 이나 ‘보복의 날’(61:2)이라고도 하였다.

스바냐(Zephaniah, 640-621 BC): “여호와와 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와 의 날의 소리보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

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슥 1:14-15). 스바냐는 ‘희생의 날’(1:8),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1:16), ‘여호와와 분노의 날’(1:18; 2:2; 3) 등으로도 외치고 있다.

에스겔(Ezekiel, 571 BC): “그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와 날이 가까웠으니 온 세계에 절망의 날이요 파멸의 날이다.”(겔 30:3, 현대인의 성경). 에스겔서에서의 이 날은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7:19)이나 ‘내가 말한 그 날’(39:8)로도 되어 있다.

스가랴(Zechariah, 480 BC): “여호와와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슥 14:1; 7, cf. 1-21).

말라기(Malachi, 430 BC):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강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말 4:1. cf. 1-6)

42 주일신학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원전을 헬라어로 번역한 칠십인역(Septuagint, Lxx)에 의하면, 구약성경의 주의 날을 ‘여호와와 의 날’(ἡμέρα Κυρίου), ‘그 날’(ὅτι ἡμέρα), ‘큰 날’(ἡμέρα μεγάλη), ‘두려운 날’(ἡμέρα ἐπιφανή)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언급하였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곧 닥칠 미래의 심판의 날로 묘사하였다.

구약성경에서 보는 주의 날은 두 가지 의미의 환난을 나타내었는데, 첫째는 역사적으로 곧 닥쳐올 환난이고, 둘째는 먼 훗날의 종말론적인 환난이다. 그리고 구약의 주의 날은 두 가지 측면, 즉 부정적인 측면의 심판과 긍정적인 측면의 축복을 다루고 있다.

신약에서의 주의 날

신약성경에는 베드로(Peter)와 요한(John) 및 바울(Paul)만이 주의 날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베드로와 바울은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였다.

사도행전(The Acts, 2:16-21):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날에 이르러 성령이 강림하셨다.

성령에 충만하여진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당시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였었는데, 제자들의 방언함을 보고 어떤 이들은 그들이 술에 취해서 그러는 줄 알고 조롱하였었다. 그 자리에서 시몬 베드로가 일어나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변명할 때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욥 2:28-32)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44 주일신학

이와 같이 베드로는 요엘서(개역)의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로 주의 날을 선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데살로니가전서(I Thessalonians, 5:1-2):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하여 휴거 및 주의 날에 관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이라 하였다. 그리고 구약에서 주의 날을 강조할 때에 도둑이 갑자기 오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했듯이 신약에서도 예고 없이 그 날이 이를 것을 경고하였다. ‘도둑’은 다른 성구들(욥 2:9 및 마 24: 42-44, 눅 12:35-40, 살전 5:4, 벰후 3:10, 계 3:3 등)에서도 언급되었으며,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 “... 뜻밖에 그 날이 덮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되어 있다.

데살로니가후서(II Thessalonians, 2:1-2):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거짓 선생들이 당시에 교인들이 겪고 있는 환난이 곧 주의 날이 이미 임재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설명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란은 주의 날이 왔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아래와 같이 설명해 주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베드로후서(II Peter, 3:10): 주의 날이 온다는 것에 대하여서 사도 베드로도 바울과 같이 ‘도둑같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또한 선지자 이사야가 외친 내용(사 65:17; 66:22)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드러나리로다.”

고린도전서(I Corinthians):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1:8).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46 주일신학

받게 하려 함이라.”(5:5)

고린도후서(II Corinthians, 1:14) :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요한계시록(The Revelation, 1:10) :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 하여 그가 밧모라는 섬에서 하늘의 계시를 받은 그 날이 바로 ‘주의 날’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신약성경에서의 ‘주의 날’(ἡμέρα Κυρίου)은 구약성서를 인용한 사도 베드로와 바울에게서는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오게 될 종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세상의 ‘끝 날’ 등의 의미를 지닌 날이다. 이 종말론적인 주의 날에 대해서는 「주의 날」(최진평, 서울: 요단출판사, 1999) 등을 참고할 수가 있겠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사용한 ‘주의 날’(κυριακή ἡμέρα)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그 어떤 날이 아니라, 오늘 맞이한 날로서의 주의 날을

가리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이미 주의 날이 특별한 날로 정해져 있었고, 또 그 주의 날이 교회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음을 시사(示唆)하여 주는 것이다.

고금을 통하여 대부분의 주석가들(W. Stott, Frank E. Gaebelin)은 이 표현을 일주(週)의 첫 날인 주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한 주의 날(Lord's day)을 한자로 주일(主日), 혹은 일요일(日曜日, Sunday)이라 하는데, 다음 장에서 그 개념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2

주일의 개념

주일은 달력에서도 한 주간의 첫 날이며, 공휴일(公休日: 日曜日)로 되어 있다. 일을 한 다음에 휴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한 주간을 휴일로 시작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본 장에서는 이 주일의 개념을 성서적이고 교회사적인 전통 신앙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주 기념일

주의 날(Lord's day)의 의미는 먼저 그 이름에서 찾게 되는데, '주님의 날' 즉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란 뜻이다. 요한계시록에 이 '주의 날'이란 명칭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그 당시에 이미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위한 한 날이 정해져 있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주의 날이 정해지게 된 배경은 누가와 바울에 의해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50 주일신학

잡히시던 밤에 그의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탁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눅 22:19, 고전 11:24; 25)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에 따라서 후에 제자들이 주님을 기념하는 날을 정하였다고 본다.

세상에서도 훌륭한 인물을 기리는 날이 있어서 각각 나라마다 어떤 사람의 날을 정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를 오래오래 기억하며 나아가서 본받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자면, 한국의 달력에는 단 하루 4월 28일을 ‘이충무공의 탄신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 특히 미국의 달력에는 1월 15일은 말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의 날, 2월 12일은 에이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의 날, 2월 22일은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의 날, … 등과 같이 개인을 기억하는 날들이 많이 정해져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주일이라는 명칭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주의 날과 아주 유사한 표현인 ‘주의 만찬’(κυριακὸν δείπνον)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Paul K. Jewett, *The Lord's Day*,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1).

사도 바울은 이 유사한 표현을 사도 요한이 밧모 섬으로 추방당하여 거기서 그가 주의 날에 환상을 보기 약 40년 전에 고린도서를 쓰면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고전 11:20). ‘주의 만찬’(Lord’s Supper)이라는 표현이 ‘주의 날’이라는 말보다 먼저 나왔으므로 ‘주의 날’이란 이 말은 ‘주의 만찬’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예배의 절정인 이 만찬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던 그들의 날을 이러한 이름으로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가 있다(박용기, 『그리스도인의 주일성수』, 서울: 도서출판 예루살렘, 1996, 111).

윌리 로돌프(Willy Rordorf)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타나는 ‘주의 날’(kyriakē hēmera)이라는 명칭이 고린도전서 11장 20절의 ‘주의 만찬’(kyriakos deipnon)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주일에 성만찬이 행해졌다고 주장한다(Willy Rordorf, *Sunday*, London, 1968, 221, 274ff). 그러나 벡퀴드(Roger T. Beckwith)는 “kyriakos는 kyrios의 형용사적 형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님께 속한’을 의미할 뿐이다.” 하여 윌리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R. T. Beckwith, W.

52 주일신학

Stoot, *Christian Sunda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8, 65).

이와 같이 주의 날이란,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며, 그 주님을 기념하는 날인 것이다. 그래서 그 명칭을 ‘주의 날’(Lord’s Day)이라고 한 것이 틀림이 없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을 기념하는 방법은 성찬 예식이다. 주의 만찬 외의 다른 어떤 방법도 주님을 기념하는 것으로 대치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의 날(주일)이란 주의 만찬 예식을 거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인 것이다.

첫 날

안식 후 첫 날: 주의 날이 정하여지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음이 확실하다. 네 복음서들은 모두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 날’로 기록하고 있다(마 28:1, 막 16:2, 눅 24:1, 요 20:1). 뿐만 아니라, 부활 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顯現]의 여덟 차례 가운데 ① 향유를 가져온 여인들에게(마 28:7-10), ② 막달라 마리아에게(요 20:11-18), ③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눅 24:13-33), ④ 시몬 베드로에게(눅 24:34), ⑤ 도마가 없는 열 제자들에게(요 20:19-23, 눅 24:36-40), ⑥ 도마가 있는 열한 제자들에게(요 20:24-29) 나타나신 여섯 번은 모두 안식 후 첫 날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부활 사건과 함께 이 날을 주의 날로 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이렇게 안식 후 첫 날이 주의 날로 정해지고 정기적으로 집회를 가졌다는 더욱 확실한 증거는 사도행전 20장 7절(개역)의 “안식 후 첫 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는 말씀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모교회의 가난한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방인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드로아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을 떠나올 때의 상황을 알리는 내용이다.

54 주일신학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것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안식 후 첫 날에 모였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모임의 목적이 떡을 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즉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그가 부활하신 날인 안식 후 첫 날을 당시의 교회가 주의 날로 정하였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으며, 성만찬 예식으로 주님을 기념하였다는 사실이다.

매주 첫 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 자기가 선교활동을 하였던 네 지방들의 교회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으면서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고전 16:1-2)에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 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썼다(cf. 행 24:17, 롬 15:25-28, 고후 9:1-5).

이것은 그 때(55년?)에 이미 교회가 매주의 첫 날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며, 연보의 순서가 예배에 자리잡고 있었음을 증거하는 말씀이다.

이에 대하여 변증가 저스틴(Justin Martyr, *First Apology*, ch. 67, *The Ante Nicene Fathers*, Vol. I,

186)은 “2세기에 벌써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은 주의 날에 드리는 예배의 정규적 부분이었다.” 라고 하였다.

로저 벡퀴드(R. T. Beckwith, *Christian Sunday*, 96)에 의하면, 처음 그리스도교의 주일은 ‘한 주간의 첫 날’이란 유대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가 일 세기 말엽에 와서 ‘주의 날’이라는 고유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그 명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쉽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날’이라는 단어를 생략하여 ‘주의’(τῇ κυριακῇ)라고만 사용하였다고 한다.

요한계시록과 같은 시대에 가까운 초기 2세기 문헌들(Barn 15:9, Ignatius, Magn 9:1)도 그때의 교회들이 일요일 예배를 일주일의 첫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하로서 간주했음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다(한정배 편저, 『안식일에서 주의 날까지』, 서울: 도서출판 선교, 1989, 187).

그 한 가지 예로서 주후 15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어져 있는 베드로복음(*Gospel of Peter*, 35, 50)에는 벌써 주의 날을 일주일의 첫 날(the first day of the week)로 대치되어 있었다.

56 주일신학

창세기 2장 2-3절에 안식일에 대한 첫 기록이 나오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 일동안 창조의 사역을 완성시키시고, 제7일에 친히 안식하셔서 모범을 보이시므로 안식일 제도를 세우셨고, 그 후 모세 때에 그날의 신성성을 부과하여 계명으로 주어졌다(출 20:8-10).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첫째 날을 안식일 대신 바꾸어서 지키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 날, 즉 구속과 계시의 사역을 완성하신 새 창조의 날에 친히 모범을 보이심으로 주일의 제도를 정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초대교회 사도들은 주의 본을 따라서 안식일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주일을 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마 5:17)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으며(롬 10:4; 13:8),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그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의 실체이다. 안식일은 그림자이며,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송영옥, 「재미있는 주일성수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진흥, 2000, 242).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마 12:8, 막 2:27) 고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무덤 속에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육체의 모든 활동을 중지하시고 안식하신 기간에 유대인의 안식일인 금요일 해지기부터 토요일 해지기까지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지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호세아서(2:11)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안식일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폐지라는 말은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3

주일성수

우리가 지금까지 주의 날의 기원과 그 의미를 살펴본 목적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제는 성도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主日聖守]과 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죠셉 엑셀(Joseph S. Exell, 강병도 역, 「신구약 강해설교연구대계」, 서울: 기독지혜사, 1992, 262f)이 말한 주일을 준수해야 하는 세 가지 의의를 살펴보면, 제1원리로 우리가 최소한 시간의 칠분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바쳐야 한다는 것이고, 제2의 원리는 인간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근로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이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날을 만드시 거룩한 날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 있다고 하였다.

60 주일신학

본 장에서는 위에서 말한 엑셀의 주일성수의 세 가지
의의들을 일차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여 보겠다.

소극적인 주일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소극적인 방법이란, 우리가
하루를 쉼으로서 세상일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주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육 일동안의 창조 사역을 제7일에 안식
함으로 완성하시고,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다(cf. 출 16:23; 31:14; 35:2, 사 58: 58:13):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
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고 계명
으로 명하셨다(cf. 출 20:8-10). 여기에서의 일은 영적인
것과 제사(예배)에 관계된 일이 아니고,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인 일로 해석된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몰두하여 온 모든 일들을 중지하여야 주일을 지키는 것이 된다.

올바른 주일성수는 인간의 일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쥘리트(Paul K. Jewett) 교수는 그의 저서 「주의 날」(*The Lord's day*, 63)에서 주일성수의 일반적인 원리를 믿음으로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신의 일을 의지하는 신뢰감을 모두 다 부인하고, 죄과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날을 올바르게 지키는 자이다. 믿음없는 참 성례란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믿음 없는 참 주일도 존재할 수 없다.

칼빈(John Calvin)은 그의 출애굽기(20:8) 주석에서 “안식일의 영적인 본질과 목적은 인간이 마치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자기의 일에서 떠나는 것이다.” 하였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노력과 활동으로부터 안식해야 한다고 하였다

62 주일신학

(J. Calvin, J. T. McNeil,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I,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7, 395).

웨스터민스터(Westminster) 신앙고백 21장 8항에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히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을 미리 준비한 후에 그날 하루 종일 그 자신의 일과 세상적인 일에 대한 말이나 생각, 오락까지 중단해야 한다.” 고 되어 있다(G. I. Williamson,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with Original Text*, Philadelphia: Reformend Publishing Co, 1965, 170).

그러므로 주의 날에는 불가피한 일을 제외한 세속적인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불가피한 일을 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위해선 그 일을 행하여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일이나에 달려 있다고 본다. 세속적인 업무의 중단이라 함은 주일을 온종일 거룩히 지키기 위함이니 인간의 영리와 육신적인 이익을 위한 활동인 상업과 노동이나 고의적으로 주일을 끼고 여행하는 것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주일성수

우리가 주일에 육신적이고 생업적인 일로부터 휴식하고 그 이상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소나 나귀도 우리만큼 주일을 잘 지킨다고 볼 수도 있다. 육신적인 휴식 그 이상의 일은 바로 주일을 하나님께 봉헌함을 말하며, 그렇게 하여 주일을 거룩한 날(聖日)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주일의 개념 및 주일성수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으며, 부족한 점들이 없었는가를 살피면서 주일성수의 적극적인 방법을 정리하기로 하겠다.

먼저 대한예수교장로교 헌법의 제4편 예배 모범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①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인류의 당연한 의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조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 날을 거룩히 함에 거리낌이 없게 할 것이다. ② 이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 것이니 공동회집으로나 개체로 예배하는 일에 쉼이 가하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 외에는 모든 사무와 육신의 쾌락의 일을 폐할 것이니 세상 염려와

64 주일신학

속된 말도 금할 것이다. ③ 식물까지라도 미리 준비하고 이날에는 가족이나 집안 사환으로 공동 예배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히 함에 거리낌이 없도록 할 것이다. ④ 주일 아침에는 개인으로 나 또는 집안사람으로 자기와 다른 이를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저희 목사가 그 봉직하는 가운데서 복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함으로 공동 예배에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준비할 것이다. ⑤ 예배 시작할 때부터 일심 단합하여 예배 전부에 참여키 위하여 정한 시간에 일제히 회집함이 가하고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까지 특별한 연고 없이는 출입함이 불가하다. ⑥ 이와 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날 남은 시간을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경 문답을 가르치며 종교상 담화를 하며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요,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장경두 목사는 그의 책 「바른 신앙」(서울: 성도출판사, 1979, 158)에서 적극적인 주일성수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공적 예배에 참석할 것(사 56:2, 히 10:25), 둘째,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것(막 1:22, 눅 4:16-30).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영적 유익을 주는 책을 읽을 것(시 1:2, 요 5:39). 넷째, 명상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것(시 33:6, 119:23). 다섯째, 교회 봉사와 그리스도를 전하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것(롬 12:11, 엡 5:17-21). 여섯째, 생명을 구하는 일이나 부득이한 의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수행할 것(요 5:5-18, 눅 14:1-6).

이동원 목사는 그의 설교 중(『이렇게 살라』, 서울: 나침판사, 1986, 56f)에서 주일을 ① 주님을 기억하는 날, ② 주님과 교제하는 날, ③ 성도와 교제하는 날, ④ 주님께 감사하는 날, ⑤ 주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를 헌금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날, ⑥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날, ⑦ 주님과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묻는 날 등이라고 했다.

이상과 같은 자료들에서 주일을 지키는 적극적인 방법을 잘 알 수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빠트리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은 곧 주님을 기념하는 제일 중요한 것,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66 주일신학

모두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 마디로 주일이 어떤 날인가의 그 개념을 바로 깨닫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주일의 성서적 재발견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제 주일성수의 적극적인 방법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주의 만찬 예배와 그 실천 생활에 대해서 제시하여 보기로 한다.

만찬 예배 : 주님을 기념하는 날인 주일의 만찬 예배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사실을 잊고 말았다. 그래서 오늘날에 주일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중심이 되어야 할 주의 만찬 순서를 빼놓고 있는 것이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며, 또 주님의 날은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고, 나아가서 주님을 기념하는 방법은 성찬예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주일은 주님을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의 날인 것이다.

주의 만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고도 주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일이 어떤 날인지도 알지 못하며, 또한 주님을 기념하는 방법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주일에 성만찬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주일예배에 주의

만찬 순서를 회복시키고 주일을 지켰다고 말하던가, 아예 주일 지켰다는 말을 하지 말던가 하여야 할 것이다.

예배학적으로도 주의 만찬이 없는 예배는 참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류가 타락한 이후의 예배에서는 먼저 죄를 해결하는 것이 그 순서인데, 그것이 바로 희생제물, 즉 피의 제사임을 레위기 17장 11절 (cf. 히 9:22)의 말씀을 보아 알 수가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옛 언약(舊約)의 예배(희생제사)는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이 사람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는 대속의 방법이 그 제사의 중심이었다면, 새 언약(新約)의 예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가 그 핵심인 것이다. 구약의 제사에서 희생제물(피)을 빼고서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듯이 신약의 예배에서도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서는 안 된다.

68 주일신학

예수께서 주의 만찬 자리에서 포도주 잔을 들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시었는데(눅 22:20, 고전 11:25. cf. 마 26: 28, 막 14:24), 이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성만찬이 새 언약(新約)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가 바로 성찬의 포도주 잔이라는 말씀이다. 이것은 주의 만찬이 예배의 중심이며, 그 성만찬이 없는 예배는 대속의 피가 없으므로 구약 제사에서 희생제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적극적이며 최선의 방법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만찬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실천생활: 실천생활이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즉 주일에 성찬예배 외의 시간을 보내면서의 생활을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셨던 일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것을 본으로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성경을 읽고 설교하셨으며(막 1:1-6, 눅 4:16-30), 병든 베드로의 장모(마 8:14f,

막 1: 29-31)를 비롯하여 가버나움의 귀신들린 자(막 1:21-27, 눅 4:33-37), 한편 손 마른 자(마 12:9-13, 막 3:1-5), 귀신들려 눈멀고 병어리 된 자(마 12:22), 18년간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자(눅 13:10-17), 고창병 든 사람(눅 14:1-16), 베데스다 못 가의 38년 된 병자(요 5:5-18), … 등과 같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한편,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실 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가 바리새인들로부터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공격을 받았었다(마 12:1-8, 막 2:23-38, 눅 6:1-5).

주일성수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성도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성경 말씀의 읽기와, 또 배우고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 병들었거나 낙심하여 결석한 성도들을 심방하여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성도의 교제 등일 것이다.

지금까지 다룬 것을 정리하면, 주일은 예수께서 구속의 법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 수난을 당하신 후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일단 이루심을 기념하는 날인 동시에 이제 그 구속사역의 최종 성취인

70 주일신학

천국 구원을 대망하며, 교회 공동체를 통한 예배와 친교 속에서 신앙을 갱신하는 날이다. 즉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완전한 죄 용서함을 받은 성도들이 비록 천국에서 나누게 될 하나님과의 교제와는 비교가 안 될지라도 영적으로 직접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세상 끝 날에 부활하여 천국에서 나누게 될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소망하며, 이 일을 가능케 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것이다(제자원, 「그랜드 종합주석」, 15권,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3, 282f).

주일신학 결론

성경에 언급된 ‘주의 날’은 모두가 종말론적인 의미로 세상의 끝날 혹은 심판의 날을 가리킨다. 다만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주의 날’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로 ‘주일’ 혹은 ‘일요일’(日曜日, Sunday)로도 불리운다. 주의 날의 명칭 가운데에서 ‘일요일’에 대하여 다루지 아니한 것은 그 명칭이 성서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방법은 주의 만찬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주일은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며 성만찬의 날인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가 주일성수를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은 주일의 개념을 똑바로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성만찬 예식을 하지 않으면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여서 교회로 하여금 주일을 바르게 지키게 될 것을 기대하여 본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컴퓨터가 발달되어 많은 분야에서 정말로 편리한 생활이 되었음을 실제로 체험한다. 이러한 반면에 사이버 교회(Cyber Church), 혹은

72 주일신학

인터넷 예배(Internet Worship)가 등장하게 되었고, 앞으로 계속 이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명의 발달이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염려를 가져다주게 되었는데, 그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등의 신앙생활 전체에 컴퓨터가 활용되기 때문에 교인들이 구태여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전개되리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회당은 텅텅 비게 될 것이며, 교인들이 국내·외적으로 다수의 교회에 등록이 가능하여지기 때문에 어느 한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 앞에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계속적으로 모이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목회의 최대 방침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성도는 미래의 교회와 자신을 바라보면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는 말씀을 깊이 음미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상황과 그 문제의 해결은 한 마디로 성례전에 있다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다. 세례와 함께 주의

만찬 예식은 모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다. 교회는 세례식을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만 하지 말고 주일마다 설교 후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즉시 세례를 베풀어야 하겠다. 특히 주일의 성만찬예배는 교인들로 하여금 주일에 교회에 모이도록 하는 확실한 동기를 주는 것이다.

주일이 성찬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 넣어야만 주일 날에 교회에 출석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성수라는 가르침이 교리적으로 정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Ⅲ

예배신학

禮拜神學

THE

WORSHIP THEOLOGY

Ⅲ. 예배신학

예배신학 서론 · 77

1. 예배의 개념

예배의 어의 · 81

예배의 정의 · 86

예배의 원리 · 91

2. 예배의 역사

예배의 기원 · 123

예배의 변천 · 126

3. 예배의 실제

예배의 순서 · 139

예배의 장소 · 169

예배의 때 · 179

예배신학 결론 · 199

예배신학 서론

앞(서론)에서 다룬 학문 및 신학의 분류에 의하여 예배신학(禮拜神學, Liturgy, The Worship Theology)을 그 학문적 위치에 대하여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즉 “예배에 대한 학문” 또는 “실천신학의 한 분야” 및 “예배학” 등이다.

예배학의 범위(範圍)

그리스도교 예배학(개론)에는 예배의 개념(본질)과 그 역사를 비롯하여 설교, 찬송, 기도, 성례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설교는 그 모체인 예배학과 같은 수준의 설교학(說敎學, Homiletics)으로 발전하였고, 찬송은 예배학보다도 더 큰 학문으로 성장하여 실천신학과 같은 수준의 찬송가학(讚頌歌學, Hymnology), 나아가서 교회음악(Church's Music)이 되었다. 또한 기도는 기도론(祈禱論) 혹은 영성신학(靈性神學)으로, 그리고 성례전은 성례학(The Sacraments)으로 발전하여 독립하게 되었다.

78 예배신학

그리하여 예배학의 범위, 즉 예배학(개론)에서 배우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되었다.

첫째, 예배의 개념(概念)으로 그 어의(語義)와 정의 및 예배의 원리 등으로 ‘예배가 무엇이며, 왜 드려야 하나?’ 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본질(本質)을 밝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둘째, 예배의 역사(歷史)로써 인류 최초의 예배[起源]에 대해서와 시대별로 예배의 변천(變遷, 발달)을 살펴 보아 어떠한 예배가 성서적인가를 알아본다.

셋째, 예배의 실제[行爲]의 단계로 예배의 구성요소와 그 순서의 작성 및 ‘누가 예배할 수 있나?’ 또한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 그리고 ‘언제 예배할까?’ 등의 질문에 대하여 예배자를 비롯하여 예배의 장소와 그 시간(때) 등에 대해서 살펴보며, 직접 예배를 드리는 데에 관하여서 연구한다.

예배학의 목적(目的)

예배학을 배우는 이유(理由)와 그 목적(目的)을 말한다면, “예배학이란, 그리스도교의 예배를 검토(檢討),

지도(指導)하여 가능한 대로 본연(本然)의 예배에
가깝게 접근시키려는 노력이다.”로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본연의 예배’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 곧 ‘성서적인 예배’를 가리킨다고 하겠다.

1

예배의 개념(概念)

예배의 어의(語義)

‘예배’란 말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용되는 말들을 일반적 용어들과 성서에서 쓰인 용어들로 구분하여 그 용어(用語)의 뜻[語意]을 살펴본다.

일반적 용어

어떠한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사전을 찾아서 그 뜻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을 국어대사전에서 찾으니, “**똥**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일(worship)”(양주동)이나, “**똥**[종] 신이나 부처 앞에 경배하는 의식”(금성관) 등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 설명들 가운데에서 ‘경배’(敬拜)는 “공경하여 ‘절’하는 것”을, 그리고 ‘의식’(儀式)은 어떤 모양[形態]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82 예배신학

우리 말(한글)의 예배는 “예도 예”와 “절 배”를 사용한 ‘릭뻬’(禮拜)라는 한문자에서 온 말인데, 한자에서의 그 뜻은 “절하는 예식” 혹은 “예의를 갖춘 절”이라 하겠다.

이렇게 살펴 본 결과, 한글이나 한자에서의 ‘예배’는 가장 존경하는 어른(하나님)에게 최상의 예의(禮儀)와 범절(凡節)을 잘 갖추어서 드리는 ‘절’(경배)로써 특히 ‘큰절’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한편, 전쟁에서 패한 우두머리가 승전한 쪽의 수장(首長)에게 큰절을 할 때에는 자기의 모든 권력과 소유와 함께 목숨까지도 맡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큰절을 올린다는 개념의 ‘예배’도 예배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獻身)한다는 뜻이 있게 된다.

영어에서의 ‘예배’는 먼저 앵글로색슨어 ‘weorthscipe’(고대영어)에서 유래되고, ‘worschip’(중세영어)을 거쳐서 ‘worship’(현대영어)이 되었는데, 이 말은 “가치가 있는” 의미를 가진 ‘worth’와 “상태”나 “성질” 혹은 “정신” 등을 나타내는 ‘-ship’이 합쳐진 단어로써, “최상의 가치를 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의미가

역대상 16장 29절(cf. 시 29:2; 96:8)의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는 말씀과 잘 부합되어 ‘예배’라는 용어가 참 적합하게 정해졌음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영어에서 “봉사하다”의 뜻을 가진 ‘service’도 예배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데, 특히 ‘divine service’로 많이 쓴다. 이것은 예배자가 하나님과 그의 사업[聖業: 교회일]을 위하여서 헌신·봉사하는 것이 곧 예배임을 가리킨다. 그리고 헬라어 ‘레이투르기아’(λειτουργία)라는 말에서 파생된 영어 ‘liturgy’가 있는데, 그 의미가 “예전”(禮典)이나 “전례”(典禮)로써 예배의 방식이나 제도, 혹은 성찬예식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 외에 독일어로는 ‘Gott’(하나님)와 ‘dienen’(봉사)의 합성어인 ‘Gottesdienst’가 있고, 라틴어로는 천주교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mass)의 뜻이나 “성체 의식의 집행”을 가리키는 ‘미사’(missa)가 있다.

성서적 용어

구약성서의 히브리어(Hebrew)에서 예배를 가리키는 말은 먼저, ‘아-바드’(אָבַד)가 있는데, 이 단어는 “섬기다”(창 14:4), “봉사하다” 혹은 “종이 되다”(삼상 4:9), “심고 다스리다” 또는 “일하다”(신 28:39) 등으로 번역되어 있다. 또한 몸을 구부리어 “경배하다”(창 22:5) 라는 뜻이 있는 ‘쉬하-’(שָׁחָה)와 납작 엎드리어 “경배하다”(사 66:23)라는 의미를 지닌 ‘사-가드’(שָׁגַד)가 있다. 또한 ‘따-라쉬’(רָשָׁה)라고 “찾다” 혹은 “구하다”(스 4:2)로 번역된 말도 있다. 그리고 제사의 헌물을 가리키는 ‘민네카’(מִנְחָה, 소제, 레 23:16)와 ‘제바크’(זֶבַח, 제사, 왕상 8:5) 등이 있다.

신약성서의 헬라어(Greek)에서는 “고개를 숙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배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단어로는 ‘프로스쿠네오’(προσκυνέω)가 있다(요 4:20). 또한 임금님 앞에서 엎드리어 절하여야 하는 그 백성의 “직무”(직분, 히 8:6), 즉 큰절을 강조하는 ‘레이투르기아’(λειτουργία = λαός + ἔργον)가 있다. 그리고 봉사와 숭배의 측면을 나타내는 예배의 말로 ‘라트레이아’(λατρεία, 롬 9:4, 히 9:1, …)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배의 용어와 그 어의에서 우리는 여태껏 생각해 온 예배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즉, 일반적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으로 알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배라는 말의 뜻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무엇을 받는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예배하는 우리가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제일 좋은 것을 드리며, 큰절을 올리는 등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의 말인 것이다.

예배의 정의

예배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학자들이 말한 그 정의(定義)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가장 적절한 정의를 종합적으로 내려 보기로 한다.

학자들의 정의

독일의 신학자인 바르트(Karl Barth, 1886-1922)는 그리스도교 예배를 “인간 생활을 영위(營爲)하는 데에 있어서 인간의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에서 가장 중대(重大)하고, 가장 긴급(緊要)하며, 가장 영광(榮光)스러운 행동(行動)이다.” 라고 정의하였다.

존 헉스터블(John Huxtable)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기본적인 정의로 “그리스도교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대화(對話, dialog)이다.” 라고 하였다.

비이트(Paul H. Vieth, 1895-1978)는 그의 저서 「그리스도교 교육에서의 예배」(*Worship in Christian Education*)에서 “그리스도교 예배란 하나님의 위대성에 대한 사람의 응답이요, 인간의 교제 행위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들으신다.”(p.15) 하였고, 또 “그리스도교 예배는 최고의 존재와의 관계를 추구하는 행위이다.”(p.23) 라고 정의하고 있다.

화이트혼(R. D. Whitehorn)은 「예배 갱신」이란 책의 글(“The Church at Worship”, *The Renewal of Worship*, p.15)에서 “예배는 예배의 공동적인 행위를 위해서 개인을 묶어서 바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영국의 대감독이었던 윌리엄 템플(William Temple, 1881-1944)은 그의 책 「새 세상의 소망」(*The Hope of a New World*, New York: The Macmillan Co., 1942) 30쪽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양심을 재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에 양식을 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상상력을 맑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에 뜻을 바치게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도빈스(Gaines S. Dobbins)는 「예배에서의 교회」(*The Church at Worship*, Nashville: Broadman

Press, 1963)라는 그의 책(35쪽)에서 “예배는 틀에 박힌 날마다의 삶을 중단시키며, 우리의 변화되는 삶에서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그의 사역에 새롭게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다.

장 자크 폰 올멘(Jean Jacques von Allmen, 1917-1994)은 자기의 저서 「예배, 그 신학과 실천」(*Worship: It's Theology and Practice*, New York: Oxford Univ. 1965, p.11)에서 “그리스도교의 예배는 그 본질에 있어서, 전문가들에 의하여서 그려진 신학적인 청사진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며, 말씀과 성례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시는 만남이다.” 라고 정의하였다.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성경주석가로 널리 알려진 윌리엄 바크레이(William Barclay, 1907-1960)는 그의 「로마서주석」(*The Letter to the Romans*, p.230)에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정교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장엄한 의식을 드리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매일 매일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여 생활 예배를 강조하였다.

미국의 신학자 프랭클린 지글러(Franklin M. Segler)는 「그리스도교 예배학」(*Christian Worship*, Tennessee: Broadman Press, 1966)이라는 자기의 책 26쪽에서 “그리스도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계시에 대한 사람의 인격적인 믿음 안에서의 사랑어린 응답이다.”로 정의하였다.

존 맥아더(John MachArthur, Jr.)도 역시 그의 저서 「참 예배」(*True Worship*, California: World of Grace Communication, 1982, pp.6f)에서 예배를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경의” 즉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존경, 경의, 찬양,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종합적 정의

국어대사전(금성판)에서는 ‘예배’를 “신을 신앙하고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 및 그 양식과 의식”이라 설명되어 있고, 웹스터(Webster) 사전에서는 “신을 숭상하거나 신앙하는 것, 즉 종교적 경의와 숭배”라고 ‘예배’를 해설하고 있다.

90 예배신학

이상과 같은 학자들의 정의와 사전적인 정의를 종합하여 성경적인 정의를 내린다면, “예배란, 은혜의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交際, communication), 혹은 만남(meeting)의 삶이다.”라고 하겠다. 여기에서 “은혜의 언약에 기초해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고쳐서도 말 할 수 있다고 본다.

예배의 원리(原理)

예배의 본질(本質)을 알기 위해서 그 원리(原理)들을 창조, 언약, 성별, 생애 및 그 외의 원리들을 알아 본다.

창조의 원리

이 창조의 원리(創造原理)에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인간의 창조된 목적 중 그 제일이 예배라는 것을 밝힌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또 “...하느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행 14:15, RSV)라고 증거한다. 그리고 조물주이신 하나님과 그의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사도행전 17장 24-25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92 예배신학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였다.

위의 말씀들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피조 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 26-2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였다.

여기에서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인 사람과, 그 존재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가 독자적인 존재(獨自的 存在)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있게 된 의존적인 존재(依存的 存在)임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Jehovah, יהוה : 自存者) 되시는 하나님처럼 인간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라는 말이다.

둘째,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함은 하나님과는 또 다른 존재임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지만, 시작이 있는 인간은 그 끝도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유한한 존재(有限的 存在)인 것이다.

셋째,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함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어떠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책임적인 존재(責任的 存在)임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自意的 存在)임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결정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만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인간이 의존적이며, 책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 사회적 존재(社會的 存在)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다.

94 예배신학

철학(철학대사전, 고려출판사, 1992, p.316)에 ‘목적론적 세계관’(Teleological View of the World)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물의 존재와 발생은 모두 목적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는 가정에 의한 세계관”을 말한다. 이에 의하여서 “만물은 그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목적론적 존재론’이나 “모든 피조물은 그 목적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목적론적 창조론’이란 말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의 목적이 먼저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께 경배함의 목적 :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첫째의 목적은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피조물인 사람의 창조주를 향한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의 다른 표현들로 기록되어 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였고, 또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께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시편 29편 1-2절을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노래하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경배 드리는 것이 그의 목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고, 시편 148편 5절에는 “그것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시매 지음을 받았음으로다.” 라고 읊어 인간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다.

한편,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의 ‘선한 일’이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간 최선

96 예배신학

(最善)의 생활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말씀들 중에서 ‘영광’, ‘경배’, ‘찬양’, ‘선한 일’ 등은 한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김, 즉 ‘예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으며, 지금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만물을 다스림의 목적: 인간 창조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만물을 위한 것이다. 즉 인간은 만물의 영장(萬物靈長)으로서 온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음 이미 읽었던 창세기 1장 26-28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두 가지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은 예배자로서의 인간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창 1:26-28, cf. 고후 4:4, 엡 2:6-8, 골 1:15, 히 1:3) 한다.

언약의 원리

이 언약의 원리(言約原理)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답하여 타락한 인간[罪人]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찾아본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예배자로서의 존재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게 문제가 발생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타락(墮落)이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것은 사탄(Satan, 魔鬼)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다. 그런데, 사탄은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에나, 지금 우리를 범죄케 할 때에도 똑 같은 세 가지의 방법으로 유혹한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 지라.” 하였고, 또한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하였다.

98 예배신학

이와 같이 사탄은 먹음직(육신의 정욕: 食慾), 보암직(眼目の 정욕), 탐스러움(이생의 자랑: 名譽慾) 등과 같은 욕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4-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처럼 인간이 실패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도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받으심(마 4:1-11, 눅 4:1-13)에서 알 수가 있다.

인간이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범죄하고 타락한 결과로 낙원인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하여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되었으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여 영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창세기 3장 22-24절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죄지은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로마서에서도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5:12) 또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6:23) 고 언급되어 있다.

이렇게 죽음 가운데 있는 죄인의 상태를 예배학적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교제가 불가능한 관계, 즉 예배할 수 없는 인생으로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1:15). 또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59:2)라 하였다. 그리고 사람이 지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힌 담’(엡 2:14)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막았다고 강조한다. 즉,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렘 5:25) 하였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인간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100 예배신학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한 말씀(롬 1: 21-23)과 같이 종교적인 창녀로 전락되어 우상 숭배자가 된 것이다.

타락하여 예배자의 자격을 잃어버린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의 목적을 계속 이루시기 위하여 범죄하고 타락한 그의 상태에서 복귀(復歸)시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의 언약(恩惠言約, The Testament of Grace) 혹은 피의 언약(The Covenant of Blood)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은 속죄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

속죄의 언약(贖罪言約)이란, 삼위일체의 대표자이신 성부(聖父)와 그 백성의 대표자이신 성자(聖子)가 인류를 사랑하셔서 맺으신 그의 속죄(Redemption)에 대한 하나님의 계약을 말하는데, 이를 스가랴(6:13)는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죄지은 인간은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이 바로 사망(피 흘리고 죽음)이다. 그리고 그 죽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피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이 은혜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갚게[代贖] 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인 것이다. 레위기 17장 11절(cf. 히 9:22)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으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였다.

이 피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 후손들은 할례(割禮)를 통하여 피를 흘리도록 언약하셨으며(창 17:9-34), 또한 모세에게 성막의 제도와 희생 제사를 율법으로 명령하여 짐승의 피로 대속하게 하셨고(레 16:14-19), 이것들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은혜의 언약, 즉 피의 언약은 두 단계로 되었다(히 9:1; 8:7; 13).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대속하는 희생제사의 성막제도로써 옛 언약(舊約, Old Testament)이며, 또한 둘째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대속하는 영원한 제사인 새 언약(新約, New Testament)이다. 참 언약인 새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어 “다 이루었다.”(요 19:30). 한편, 십자가를 지시기

102 예배신학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만찬을 “언약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마 26:28, 눅 22:20, 고전 11:25),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면, 새 언약인 십자가의 속죄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또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그것은 먼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된다고 로마서 6장 3-5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였다.

다음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6-17절에서 “우리가 축복하는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룩한 예식이라 하여 교회의 성례(聖禮, Sacraments)라고 한다. 예수께서도 자신의 십자가 희생과 세례 및 성찬과의 관련을 이미 암시(막 10:38) 하여 “...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하셨다.

피의 언약을 예배학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예배의 중심이 피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자기의 죄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 속죄가 피로써 이루어져서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것이 구약의 성전(성막) 제사에서 짐승의 피로 대속되었다.

신약의 예배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 대속의 피를 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미 알아본 것처럼 주님께서 포도주잔을 십자가에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고 선언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현재 신약 시대에의 예배는 성만찬이 그 중심이 되는 것이다. 구약의 성막제사에서 짐승의 피가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과 같이 새 언약의 시대인 현재는 성만찬 없이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성만찬이 없으면 성전적인 예배가 아니라, 회당적인 성경학교에 불과한 것이다.

성별의 원리

이 성별의 원리(聖別原理)에서는 ‘누가 예배드릴 수 있는가?’ 혹은 ‘예배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여 예배자의 자격을 알아본다.

‘성별’(聖別, Holiness)이란, “신성한 일에 쓰기 위하여 보통의 것과 구별하는 것, 또는 그 일”로 국어사전에 설명되어 있다. 이를 간단하게는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혹은 ‘거룩’이나 ‘성결’(聖潔)로 요약할 수가 있다.

이 성별의 원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레 11:44-45, 뱀전 1:15-16)에 근거한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서 ‘거룩하다’의 의미는 한마디로 ‘깨끗하다’의 최고의 표현으로 말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말은 그에게는 더러움이 조금도 없는 아주 아주 깨끗하셔서 다른 더러운 것의 영향을 받아도 전혀 더러워지지 않고 오히려 그

더러운 것에게 영향을 주어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赦)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 이사야(사 1:18)를 통해서 “...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다.

다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자.

교육학에서는 ‘근묵자흑’(近墨者黑) 혹은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 하여 교육의 환경과 주위의 사람(특히 친구) 등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성도는 악한 친구의 영향을 받아 그를 따라 악하여지거나, 그 나쁜 환경의 영향을 받아 그 악에 빠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악한 친구가 있으면 그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어서 오히려 그 친구를 선하게 변화시키며, 또한 나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을 선한 환경으로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 13-16) 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그리스도인의 성별을 예배학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를 만나고 경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자도 거룩하여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사실인 것이다.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음을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성별의 상태와 그 의미를 성서는 몇 가지 다른 표현들로 나타내고 있다.

첫째, 거듭남[重生]으로 설명한다. 먼저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3절). 또 “...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5절) 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 “...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3절) 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23절) 하였다.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였다.

둘째, 성령으로 난 사람[靈人]으로 말한다. 요한복음 3장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6절)라 하였고, 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8절) 하였다.

셋째,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 말한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08 예배신학

하였으며, 또한 요한일서 3장 9절과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였고, 또한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그가 …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였다. 즉, 하나님의 아들과 딸(子女)이라는 말씀이다.

넷째, 새로운 피조물(새 사람, 新人)으로 말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하였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였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였다.

성별의 원리에 의하여서 죄인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다만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를 그의 앞으로 부르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3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7절) 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죄인이 성결케 되어 예배자가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곧 교회의 거룩한 예식[聖禮]인 것이다. 이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여 우리를 성별시켜 주는 것으로서, 구교(천주교회)에서는 성세(聖洗), 견진(堅振), 성체(聖體), 고해(告解), 신품(神品), 혼배(婚配), 종부(終傳) 등의 7가지 성사(聖事)가 있다고 하며, 개신교의 일부에서는 3가지 성례(세례식, 성찬식, 세족식)로도 강조하지만, 세례와 성찬의 두 가지 성례가 성경적이다.

첫째, 세례(洗禮, Baptism):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부의 인정을 받으신 후에 그에 의해서 제정되었으며, 교회의 대사명(大使命, 마 28:19, 막 16:15-16)으로 말씀하여 주셨다.

이 세례는 구약 성례의 하나인 할례와 연결되어 있다. 할례(割禮)는 피의 언약으로써 양피(羊皮)를 베는 것

110 예배신학

이었다. 창세기 17장 9-11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으로는 먼 형식으로만 행하는 것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셨다. 신명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30:6)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10:16) 하셨다. 또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하였으며, 그리고 로마서 2장 29절에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 하였다. 이 마음의 할례란, “마음 가죽을 베는”(렘 4:4) 진정한 회개를 의미한다.

이 마음의 할례를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란 그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인데, 곧 그의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다(골 2:12). 그러므로 구약의 성례인 할례가 신약의 성례로는 세례가 된 것이다.

둘째, 성찬(聖餐, Sacrament):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젖과 양식을 먹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고 영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이 곧 말씀과 성찬인 것이다.

구약시대의 할례 외에 또 다른 성례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다. 출애굽기 31장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

112 예배신학

지리라.”(13-14절) 계속하여,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옛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 칠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16-17절) 하셨다.

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시대에는 주의 날[主日]로 변경되었으며,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聖守]이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예식을 거행하는 것이다.

이 성찬은 세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석하는 성도 모두가 다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전 10:16-17)

성례를 예배학적으로 말하면, 세례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와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곧 예배자가 되는 것이며, 성찬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깊은 상태 (한 몸이 됨)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생애의 원리

이 생애의 원리(生涯原理)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활(地上生活)이 예배의 생애이었음을 믿고, 우리가 그의 지상생활을 본받아 예배의 삶을 생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특히 그의 공생애(共生涯)는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곧 갈릴리(회당)에서의 삶과 예루살렘(성전)에서의 생활이다.

첫째, 갈릴리의 삶: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여 예수님의 공생애 전반부인 갈릴리의 생활에서 그는 세 가지의 일을 하셨다고 마태복음 4장 23절(마 9:35)에서 요약하고 있다.

주님의 갈릴리 생활은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셨는데, 그 첫째가 가르치는 것, 즉 교육사업이었다.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님”(요 1:38; 3:2; 13:13)으로, 혹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랍비(‘ραββι’, 선생, 마 22:16,

114 예배신학

요 3:2)로 보이셨다. 이 예수님의 회당에서 가르치심의 생활은 오늘날의 교회가 교육적인 사명이 있음을 보여 준다.

예수님의 갈릴리(회당) 생활의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즉 전도사업[宣敎]이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음과, 또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가르친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고(눅 13:33),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역시 선지자로 인정을 받으셨다(마 21:11, 눅 7:16, 요 6:14, …).

예수님께서 갈릴리(회당)에서 하신 일 중, 셋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었는데, 이 고침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그는 귀신들린 자들도 고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는 그 목적이 인간의 구원이었다. 이 고침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그러한 사실은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스스로 인정하셨으며(마 27:11), 또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한 것처럼 그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임금으로 밝히고(마 2:2; 27:37, 요 12:13) 있다.

둘째, 예루살렘의 삶: 성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생활은 성전청결의 사건, 주의 만찬의 제정,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등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서는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는 말씀과 같이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하는 성소(聖所)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는 그렇지가 못하였었다. 사람들이 예배에는 관심이 없었고, 장사하는 데에만 몰두하였던 것 같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과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116 예배신학

만드는도다.”(마 21:12-13) 라고 꾸중하셨다.

이 성전청결의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러질 자기의 몸을 준비하시었음을 요한복음 2장 19절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으로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지 물질을 모으기 위한 곳이 아니며, 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우리의 몸을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지지 말아야 한다는 예배학적인 교훈을 준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하셔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곧 성찬의 제정이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지켜야 할 구약의 유월절을 십자가의 사건과, 더 나아가서 신약의 성찬과 연결시켜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 예배학적으로도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포도주로 대체하여 주시므로 오늘날 신약의 교회로 하여금 참다운 구속적인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절정을 이루는 사건은 두말할 것 없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골고다의 길은 주께서 자기 피를 가지시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의 사역이었다. 자기의 피로 단번에 드린 그리스도의 이 속죄는 “한 영원한 제사”이었기에 때문에(히 10:12), 그 분은 참 제사장이요 참 예배자이시다. 그리고 이 십자가상에서의 속죄 제사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으로, 최고의 사역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요 19:30)고 자인(自認)하신 일, 즉 예배이다.

사람의 몸[人體]이 머리와 몸으로 구분되고, 몸의 각 지체가 머리의 명령에 의해서 활동한다. 이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 역시 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cf. 엡 1:22; 4:15; 5:23) 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생활하신 삶을 본받아서 성전적인 생활인 예배와 회당적인 삶인 가르치고 전도하며 고치는 생활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다.

한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역시

118 예배신학

‘섬기는 생활’로 말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사랑(敬天愛人)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계명의 최고봉이요, 그 전부라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 또한 이와 같은 신약적인 성도의 삶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 생활을 구약에서는 전도서(12:13)를 통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요약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첫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인데, 이것은 곧 예배의 삶을 말한다. 이 하나님 경외의 생활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며(잠 1:7; 9:10), 또한 “완전한 지혜”인 것이다(미 6:9).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활 가운데에서 제일 귀중한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실함으로 드러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을 말하는데, 모든 계명을 지켰다는 어떤 부자 청년에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신 말씀(막 10:21)에 의하여 자기의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선한 생활’을 말한다. 그리고 사랑의 삶을 완전하게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사람들을 감동·감화시키는 ‘빛된 생활’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 생활에서 “...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 25:40), 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

120 예배신학

이니라.”(마 25:45)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이고 소외된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그 삶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신 둘째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예배의 삶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어야 하고, 이 예배를 최고의 생활로 믿고 실천하여야 한다. 즉,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주일예배[大禮拜]를 드리며,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상생활의 개인 예배[小禮拜]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다른 원리들

지금까지 살펴본 예배의 원리들 외에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다른 원리들이 있는데, 곧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계시와 응답으로서의 예배: 예배는 인간(죄인)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啓示, Revelation)에 입각하며, 그 은혜의 말씀과 사역(섭리)에 대한 우리의 응답(반응)이다.

둘째,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2:24)는 말씀에서 ‘신령’(神靈)은 성령으로, ‘진정’(眞正)은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한다. 하나님께서 영(靈)이심으로 예배자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그 교제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예배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성령 받은 자는 곧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은 자를 말한다. 즉 사도행전 2장 38-39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였다.

또한 예배의 모든 순서에 성령의 활동하심이 있어야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다. 특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딤후 3:16) 목사가 설교를 하든지 혹은 성도가 설교를 듣든지 할 때에 반드시

122 예배신학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으며, 또 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

셋째,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 : 공 예배의 개념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 이루어짐으로 공동 예배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예배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드려야 함으로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라 한다.

넷째, 증거로서의 예배 : 여기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먼저,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제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를 증거하는 것이다. 다음은, 교회에 가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된다.

2

예배의 역사(歷史)

예배의 기원

인간이 하나님께 맨 처음 예배드린 것이 창세기 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예배의 기원(起源)으로 가인과 아벨 두 형제의 제사이다. 그런데, 그 1절이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 라고 시작하고 있다. 이 구절(句節)이 주는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때가 그의 ‘타락한 후’ 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가인의 제사

가인(Cain)은 최초의 사람 아담의 아들로써 농사하는 자이었다. 그래서 그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는데(창 4:3),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 하셨다(창 4:5상). 그 이유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24 예배신학

열납하신 아벨의 제물과 비교하여 보면, 가인의 제물에는 죄를 속하는 피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제사드린 때가 인간의 타락 이후임으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려면 구속의 피가 있어야 했는데, 가인은 피가 없는 농산물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제물을 열납하지 아니하셨다고 본다.

그리하여 그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고”(창 4:5하), 그 후에 형제가 들에 있을 때에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어”(창 4:8)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

믿음이 없었던 가인은 예배에서 실패함으로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 즉 대신관계(對神關係)가 파괴되었다. 요한삼서 2절의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파괴된 가인은 그 아우를 쳐서 죽임으로 인간적인 대인관계(對人關係)까지 깨뜨렸다. 그런 결과로 그는 “땅에서 저주를 받아 피하여 떠돌아다니는[流離] 자가 되었다.”(창 4:11f)

아벨의 제사

가인의 아우 아벨(Abel)은 양 치는 자이었으며,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다”(창 4:4).

믿음의 장으로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아벨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을 가리킬까? 그것은 첫째,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속죄의 피를 가지고 가야 함을 아벨이 믿었기에 양을 잡아 제물로 드렸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하나님께서 최고의 분이심을 믿어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해석된다. 이곳의 ‘첫 새끼’는 “가장 좋은 것”, 또한 “제일 먼저”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속죄의 피, 즉 언약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제일 좋은 것을 가장 먼저 드리는 정성(믿음)으로

예배하여야 한다.

예배의 변천

예배의 변천(禮拜變遷)에서는 각 시대별로 예배의 형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달(發達)되어 왔나를 살펴본다.

족장시대의 예배

족장시대(族長時代)라 함은 아담의 손자인 에노스 때(c. 3,000 BC)부터 모세(1,400 BC) 이전까지를 말한다. 이 족장시대의 성경 인물로는 노아나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이삭, 야곱, 요셉 및 욥 등을 들 수가 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제사)드리는 것을 “단을 쌓았다”, 혹은 “여호와와 이름 부르다”(창 4:26; 12:7; 8; 13:4), 또는 “번제 드리다”(창 22:2; 8, 욥 1:5), 그리고 “경배하다”(창 22:5; 47:31, 욥 1:20) 등으로 구약성경에 표시되었다.

족장의 시대에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제사로 가장(家長)이나 족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 같다. 유목민 생활을 하였던 당시에 이동하여 가는 곳(주로 산)마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그 형식은 정하여지지 않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제단을 쌓고 희생제물을 잡아 불태워서(燔祭) 피의 제사를 드린 것만은 확실하다(창 15:9f; 22:5ff).

구약시대의 예배

구약시대(舊約時代)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때(1,400 BC)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의 기간으로 ‘율법시대’(律法時代)라고도 한다.

율법시대는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시내 산에서 반포하신 여호와와 율법으로 규정되었는데, 곧 성막(聖幕)과 제사장의 제도이다. 이 제도의 예배학적 특징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배의 장소가 성막, 한 곳으로 한정되었다. 율법을 받은 최초의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이 성막은 이동할 수가 있었으나, 후에 다윗과 솔로몬에

128 예배신학

의해서 건물[聖殿]로 지어짐으로써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不動)의 예배 처소가 되었다.

둘째, 예배가 개인이나 가족적으로 드러지던 족장시대 대신에 구약시대에는 제사가 민족적이나 범국가적으로 드러지게 되었고, 전 국민(민족)이 모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온 국민을 대리하는 위임(委任) 예배의 형식이 되었다.

셋째, 제물의 종류와 그 드리는 방법도 율법으로 정하여 놓은 예배이었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서는 제사의 책임 구약의 레위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넷째, 어느 때나 제사하던 족장시대와는 달리 민족적인 모임의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배의 때(시간)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정하여지게 되었다. 그 예배의 때(날)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고, 국가적인 각 절기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다.

구약시대의 예배가 족장시대에 비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변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배의 중심인 희생제물을 드리는 피의 제사이다.

그러나 BC 586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성전이 파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하던 70년 동안에는 희생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가 아닌 신앙의 모임만을 가졌었는데, 이것이 바로 회당집회이다. 이 회당(會堂, Synagogue)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었는데, 마을마다 회당들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학교가 되었다.

신약시대의 예배

신약시대(新約時代)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AD 30년경)부터 사도(使徒) 시대와 교부(敎父)의 시대를 포함하는 카톨릭(Catholic Church) 시대 이전까지로 한다.

교회의 머리(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신약교회는 그 성격상 율법시대의 성전과 회당을 포함한다. 그래서 교회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성전으로서의 예배당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율법학교인 회당으로서의 성경학교인 것이다. 그러나 회당의 성격보다 성전의 성격이 더욱 중요하여 예배드리는 일이 교회의 가장

130 예배신학

우선되는 중요한 임무라고 하겠다.

모든 시대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교회의 예배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

첫째, 율법시대의 민족적이나 국가적인 예배가 지역적인 개교회 중심의 예배로 변천하였다.

둘째,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통한 위임예배가 교회의 구성원 전체(회중)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로 발전하였다.

셋째, 구약의 안식일이나 절기 중심의 예배가 신약 시대에는 주일예배로 정착되었다. 이 ‘주의 날’(主日)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넷째, 율법 제사의 중심인 대속의 피를 희생의 제물로 드렸던 것이 예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눅 22:20) 하신 말씀처럼 신약의 예배는 성만찬이 그 중심이 되었다.

중세시대의 예배

중세시대(中世時代)는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392년(황제 Theodosius I)부터 종교개혁(1519년)

이전까지로서 편의상 ‘카톨릭(Catholic Church) 시대’라고도 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로마 황제 콘스탄틴(Constantinus I)이 밀라노 칙령(Milano Edict, 그리스도교 관용령)을 내린 313년부터 중세시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콘스탄틴 황제 시대까지의 로마에서 사용된 지적이고도 문화적인 용어는 헬라어(Greek)이었다. 그런데 중세시대부터 교회의 예식에서 라틴어(Latin)가 쓰이기 시작하여 마침내 전 세계 교회 의식의 공용어가 되었다. 이 큰 변화로 말미암아 자국어로 드리지 못하는 교회의 예배가 회중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는데, 특히 마리아 숭배와 같은 신앙 형태의 확산이 이를 더욱 부추기었다고 하겠다.

이 중세시대의 특징들로는 예배의 중심인 성찬예식을 화체설(化體設, Transubstantiation)의 교리로 확립시킨 신비주의적인 예배관 및 의식에 합당한 성구들을 간추려서 예배 시 연도의 사용을 위한 형태로 발전시킨 교회력 사용, 그리고 교회의 세속화를 반대한 수도원 운동 등이다.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054년 로마교회의

132 예배신학

동서 분열이라고 하겠는데, 그 후 교회는 영원히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로 나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회는 히브리적인 문화를 비롯하여 헬라 문화와 라틴 문화의 세 가지 배경에서 그 예배 의식이 다음과 같이 특성화되었다.

첫째, 히브리 문화를 고집한 예루살렘 예배의 형태이다. 역사가 유세비우스(Eusebius of Caesarea, c. 263-339)나 키릴(Cyril of Jerusalem, 313-386)에 의하면, 이들은 교회의 축제적 절기에 따른 성서일과(聖書日課, Lectionary, 혹은 聖務日課, 典禮讀書)의 개발 및 황제의 명의로 명소마다 공회당(公會堂, basilica)을 세웠다. 그리하여 정기적(매주) 공식 예배를 장려하였으며, 또한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하여 지키는 것 등의 특징이 있었다.

둘째, 헬라어와 그 문화를 포용하고 지역적인 특성이 두드러진 동로마(Constantinople에서 Istanbul까지) 교회는 대성당(大聖堂, hagia sophia)을 건축하였고, 축제일에 예배 행진(procession) 외에 시송(詩誦), 찬미(psalmody), 연도(連禱, litanic prayer) 등의 순서를 채택하였다. 이 동로마 의식은 비잔틴(Byzantine)

예배의 모체가 되었다.

셋째, 라틴어와 그 문화를 포용한 서로마(Rome) 교회는 히폴리투스(Hippolytus, 170-235)의 예전(Liturgy)에 의한 성찬식인 미사(Missa)를 특유의 예배 형태로 정착시켰다. 또 그 집례 장소를 개인의 집(tituli), 공회당, 그리스도교 회당(lateran basilica), 베드로 사원(Peter Shrine), 바티칸 사원(Vatican basilica) 등으로 발전시켰으며, 사순절(lent) 중심의 교회 절기를 강조하였다.

개혁시대의 예배

이 개혁시대(改革時代)는 16세기 종교개혁(1519년)부터 “리마문서”(Lima Liturgy, 1982)가 발표되기 이전까지를 말하며, 편의상 ‘개신교(Protestant Church) 시대’라고도 한다.

종교개혁기 이후의 예배는 루터의 “독일 미사 경본”(Luther's Deutsche Messe, 1526)을 중심으로 하는 예전과 스코틀랜드(Scotland) 출신 존 녹스(John Knox, 1513-1572)의 “기도서”(The Form of Prayers)를 중심

134 예배신학

한 의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루터(M. Luther, 1483-1546)의 독일미사경본에 의한 예배는 1부 말씀의 예전(찬송과 설교)과 2부 다락방 예전(성만찬)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 그 내용은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다른 개혁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다.

스위스의 쾰링글리(H. Zwingli, 1484-1531)는 아침 기도회(Matins)에 설교와 죄의 고백을, 말씀의 예전에 영광송과 사도신조를, 다락방 예전에 권면과 선언 및 주기도 등을 추가시켰다. 그런데 쾰링글리는 다락방 예전을 1년에 4회 정도의 실행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슈바르츠(D. Schwarz)는 라틴어가 아닌 자국어 예배를 강조하였다(1524년). 나아가서 마르틴 부처(M. Bucer, 1491-1551)는 니케아신조 대신에 사도신조를, 로마 예식의 축도 대신에 아론의 축도(민 6:24-26)를 대치하였고, 또 미사를 주의 만찬으로, 사제를 목사로, 제단을 성찬상으로 개칭하였으며, 시편의 교독과 찬송을 포함시켰다.

둘째, 녹스(John Knox, 1514?-1572)는 칼빈(J. Calvin, 1509-1564)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예배학적인 면

에서 그는 교회의 주일예배 즉 성만찬 중심예배와
기도원의 찬양예배(Quire Office)를 구별하였다.

개신교(Protestant Church) 시대의 예배에 대한
특징을 정리하면, 먼저 ‘성경 최고 권위’라는 종교개혁
의 이념에 의하여 말씀 중심의 예배를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회당집회를 말씀 중심의 예배로 해석
하는 경향과 구교의 의식에만 치우친 미사를 반대한
것으로서 예배의 중심을 성찬에서 말씀(설교)으로 변경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거기에다가 종교개혁의 지도자
이었던 쾰링의 1년 4회 성만찬 의식의 거행이라
는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서 예배에서 성찬을 생략하는
불상사를 낳았다. 그리하여 주의 날[主日]과 주일성수
(主日聖守)의 개념이 흐려지는 현상이 초래되고 말았다.
이 예배의 때[時間]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현대의 예배

오늘날의 교회는 예배의 형식에 있어서 개혁자들의
예식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식이 비슷비슷

136 예배신학

하지만, 각 교단(파)별로 특색 있는 순서를 약간씩을 포함시키고 있다.

특별히 성경(원어)의 탐구와 바른 이해의 결과로 말미암아 성만찬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례전적 예배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예배학적 환원의 운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듯하다.

첫째, 리마 성찬 예식서(The Eucharistic Liturgy of Lima)의 영향이다. 이 리마 예식서는 1982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모였던 세계교회협의회(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산하 기관인 신앙과 직제위원회(Faith and Order Commission) 대회에서 발표한 ‘세례, 성만찬, 사역’(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이라는 “리마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성찬 예식서이다. 이 예식서는 당시 모임(1월 15일)에서 맨 처음 사용되었고 그 이듬해(1983년) 밴쿠버 총회에서 세계교회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성만찬을 베푸는 자리에서도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세계의 교회가 이 리마 예식서를 사용한 성만찬 의식을 통한 그 일치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나아가서 각 나라에서

리마문서 혹은 리마 예식서의 학문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 관심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각 교회가 성만찬 예배의 횟수를 점점 늘려가고는 있는 형편이다.

둘째, 인터넷 예배가 확산되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 이 영향에 대한 결론적인 말을 먼저 하면, 인터넷 예배의 확산은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에 참석하지 않게 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것이다. 인터넷 예배는 교인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나 직장에서, 아니 어디에서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교회당은 텅텅 비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목회자의 경제적인 생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이 현 교회의 예상이다. 이러한 예측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는 ‘앞으로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 모이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해결의 방법으로 성찬을 자주, 아니 매주 성만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만찬을 교인을 모이게 하고, 헌금을 거두는 방편으로가 아니라, 성서적이며 예배학적인 환원(還元)의 차원에서, 또는 올바른 주일신학의 신앙 입장에서

138 예배신학

회복시켜서 예배의 중심이 성찬예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예배의 실제(實際)

예배의 순서

예배의 순서(順序)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의 요소와 그 배열을 알아보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순서를 작성한다.

예배의 요소

하나님께 실제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요소(要素)를 알아야 한다고 본다. 이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성서적 요소와 역사적 요소로 나누어서 다루는 것이 보통이다.

성서적 요소 : 예배의 요소를 성서적으로 말할 때에는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의 말씀을 들게 된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서 사도의 가르침, 교제함, 떡을 떼, 기도, 찬미 등을 예배의 5대 요소(五大要素)로 말함을 들을 수가 있다.

첫째 예배의 요소는, “사도의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Teaching, διδασκῆ)은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 성경 공부(연구)와 성경말씀의 해석(설교)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곳의 가르침은 예배의 요소를 말하기 때문에 설교(說敎, Preaching)라고 하겠다.

둘째 예배의 요소는, “서로 교제하며” 하였는데, 이 ‘교제’(交際, Fellowship, κοινωνία)는 하나님과 성도와 의 교제(연보, 고전 16: 1-2, 고후 8:2; 9:11)를 가리키는 것으로 헌금(獻金, Collection) 또는 봉헌(奉獻, Offertory)을 말한다. 이 교제에는 성도와 성도 혹은 성도와 이웃과의 교제(구제, 행 2:44f; 6:1, 롬 12:8, 딤후 5:10)가 포함된다고 본다.

셋째 예배의 요소는, “떡을 떼며” 인데, 이 ‘떡 떼’는 주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 먹는 성찬(聖餐, Sacrament)을 가리킨다. 또한 각 집에서 떡을 떼어 먹는 식사(愛餐, Agape)가 있는데, 이 애찬이 한 때는 성찬예식에 포함되기도 하였었다.

넷째 예배의 요소는 더 이상의 설명할 필요가 없는 ‘기도’(祈禱, prayer, προσευχᾱίς)이다. 이 기도는 기원(祈願)이나 간구(懇求) 혹은 도고(禱告)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딤펴전 2:1).

다섯째 예배의 요소는, ‘찬미’(讚美, Praising, αἰνοῦντες)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덕을 기리어 노래함”을 의미하는 찬양(讚揚) 혹은 찬송(讚頌, Hymn)으로도 말하여 진다.

역사적 요소: 예배의 요소를 역사적으로 다루게 될 때는 그 요소가 나타난 문헌들을 살펴보게 된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Heidelberg Catechism, 1563) 제 103조를 보면,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거룩한 성례전에 참여하기 위해, 공적으로 주님께 간구하기 위해, 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142 예배신학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특히 주일의 공동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설교(하나님의 말씀), 성만찬(성례전 참여), 기도(공적인 간구), 헌금(돕는 일에 기여함) 등을 예배의 4대 요소로 말하고 있는데, 그 표현들이 회중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제2 헬베틱(Helvetic) 신조 22장에는 “거룩한 교회의 집회는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그리고 공적 기도와 기원을 하기 위해, 성례전을 적절히 집행하기 위해,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와 교회의 경비에 필요한 헌금을 걷기 위하여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다.

이 신조에서도 앞의 교리문답서와 마찬가지로 예배의 요소를 말씀 선포(설교), 기도와 기원하기, 성례전 집행, 헌금 걷기 등의 4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그 표현 방법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본다.

이렇게 예배의 역사적 요소에서는 성서적 5요소가운데에서 찬송을 제하고 설교, 기도, 성찬, 헌금 등의

4요소만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찬송은 곡조가 붙어 있는 기도’라는 말에 의하여서 찬송을 기도에 포함시켰는지 모른다. 그러나 성서적 요소에서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 42절의 말씀만을 인용한다면, 예배의 요소가 넷이 됨을 알 수 있다.

요소의 배열

예배 요소들의 배열(配列)에는 다음과 같은 원리들이 있다.

첫째, 예배에는 이중적 방향이 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聖徒] 간의 교제 혹은 대화”라 하는 예배의 정의에 의하면, 예배에는 두 방향이 생기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찬송이나 기도와 신앙고백, … 등과 같은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순서들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기도의 응답(송)이나 말씀의 선포와 축복(기도), … 등이 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예배의 순서를 작성할 때에 두 방향의 내용을 교대로 하는 것이 대화나 교제로서 이상적일 것이다.

144 예배신학

둘째, 예배에는 이중적인 핵심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배의 삶을 사셨는데, 그 내용이 성전(예루살렘) 중심의 제사장으로의 예배 생활과 회당(갈릴리) 중심의 교사와 선지자와 왕으로서의 삶으로서 그 중심이 둘이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예배도 말씀의 예전과 다락방 예전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설교와 성찬의 두 가지가 그 핵심이 되는 것이다.

셋째, 예배는 성도 전체가 그 순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회중 예배이어야 한다. 성도가 예배에서 구경꾼이 되지 않도록 목회자 중심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배에 모든 회중이 맡는 순서가 더욱 많아져야 하겠다. 특별히 대표 기도가 개인적인 순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데, 대표로 기도하는 자가 누가 되든 ‘되새김질 기도’를 권장하는 바이다.

넷째, 예배는 목회자나 그 순서를 작성하는 이의 생각 대로가 아니라,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러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계획이나 생각이 아무리 좋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 확실해도 그에 의해서 드러서는 안 되고, 다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드려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왕 다윗 시대의 베레스 웃사(Perez Uzzah)의 사건(삼하 6장, 대상 13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 순종의 교훈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다섯째, 주일예배는 주님을 기념하는 의식(축제)이어야 한다. 그리고 주일에는 그리스도교 윤리학적인 성도의 생활에 대한 말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는 설교, 즉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예배순서의 실제

예배의 순서를 실제로 작성할 때에는 그 시작과 끝은 어떻게 개회하고 폐회할 것이며, 또한 예배의 요소들은 어떤 순서로 배열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먼저, 예배를 시작하는 개회의 순서에 대해서는 그 시작이 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들이 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 전체가 바로 예배이다.’라는 주장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찬송가를 부르며 자연스럽게 다음 순서들이 진행된다.

146 예배신학

그러나, 일상생활과 예배의 시간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경우에는 예배자들의 마음을 정돈하는 의미로 묵상기도(默禱, Meditation)로 예배를 개회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묵도가 이방 종교의 의식에서 영향을 받았다 하여 다른 순서, 즉 예배의 부름이나 기원(祈願, Invocation) 또는 신앙 고백 등으로 예배를 시작하자는 의견도 있다.

예배를 끝내는 순서는 거의 축복기도(祝禱, Benediction)로 폐회하는 것에 이견(異見)이 없는 듯하다.

이 축복기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고, 모세가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한 것(민 6:22-23)으로 아론의 축도는 이렇다(민 6:24-26):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함(삼하 6:18-19, 왕상 8:14)에서 영향을 받아 예배를

폐회하는 순서가 축복기도(祝禱)로 된 것 같다.

신약시대 이후의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후 13:13) 라고 축도해 오고 있다.

예배의 요소들 중에서 단 한 번의 순서로 들어가는 헌금과 설교 및 성찬 등의 배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헌금과 설교의 순서에서는 헌금 후에 설교를 하는 경우와 설교 후에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있겠다. 헌금을 드린 다음에 설교를 듣는 경우는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과 예물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후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경우로서 어떤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는 헌금을 거둘 때에 이 순서가 적용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평상시의 헌금은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또한 헌금함을 사용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당에 들어 오면서 헌금을 그 궤에 넣기 때문에 자연히 설교를 듣기 전에 헌금을 하는 것이 된다.

148 예배신학

둘째, 설교와 성만찬의 순서. 여기에서도 두 가지의 경우, 즉 설교를 들은 후에 성찬 예식을 하는 순서와 성찬 예식 후에 설교를 듣는 순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찬 예식을 할 때에 먼저 성찬식이 무엇이고, 이 예식에 참여하는 이유나 그 의미 등을 성서(제정사)를 읽은(봉독) 다음에 설명하게 되는데, 이 설명이 바로 설교이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은 후에 성찬을 하는 순서가 되는 것이다.

셋째, 헌금과 성만찬의 순서. 이에 대해서도 헌금을 드린 후에 성찬 예식을 하는 순서와 성찬 예식 후에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있겠다. 그런데 성찬식에서는 성물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의 순서가 반드시 앞에 있는데, 이 성물 봉헌의 시간에 헌금이 함께 드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전통으로 되어 있다. 또한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헌금 후 설교, 설교 후 성찬의 순서이니까 당연히 헌금 후 성찬의 순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세 요소의 배열은 헌금 - 설교 - 성찬의 순서가 가장 이상적인 것, 즉 역사적이고도 신학적인 것으로 결론 지어진다.

예배순서의 실례

예배순서의 실례(實例)에서는 역사적인 문헌에 나타난 각 시대의 예배순서를 살펴봄으로 그 순서의 변천을 비교·정리하고자 한다.

속사도 시대의 예배순서: 이 예배순서는 유스티누스(Justinus Martyr, 100-165)의 “변증서”(Apology, 150년)를 기초로 해서 정리하였다.

* 말씀의 예전(The Liturgy of the Word)

성서낭독(Lections): 예언서, 서신서, 복음서

권면(Instruction and Exhortation)

기도(Common Prayers) - 연도(litany) 형식

시편과 찬양(Psalms and Hymns)

* 다락방 예전(The Liturgy of the Upper Room)

평화의 입맞춤(Kiss of Peace)

봉헌(Offertory): 구제금, 성물(Elements)

봉헌기도(Prayer of Consecration)

150 예배신학

- 감사(Thanksgiving): 창조, 섭리, 구속에 대하여
- 수난의 회상(Memorial of Passion)
- 성물봉헌(Self-Oblation of Gifts)
- 성령강림 기원(Invocation)과 축성(Epiclesis)
- 중보기도(Intercessions)
- 회중의 아멘(People's Amen)

성체분할(Fraction)

배찬(Communion)

폐회(Dismissal)

중세시대의 예배순서 : 아래의 동방교회의 예배의 순서는 사도규약(Apostolic Constitutions, 380)에 소개되어 있는 클레멘틴 예전(Clementine Liturgy)에 의한 것이다.

* 말씀의 예전(The Liturgy of the Word)

기도(Prayers) - 연도(Litanies)

성경봉독(Lections): 율법서, 예언서, 서신, 사도행전,
복음서(중간에 시편이 노래됨)

설교(Sermons)

입교자 폐회(Dismissal of Catechumens)

* 다락방 예전(The Liturgy of the U. R.)

부제(Deacons)의 연도와 감독의 기도

인사와 응답(Salutation and Response)

평화의 입맞춤(Kiss of Peace)

봉헌(Offertory)

- 사제의 손씻는 의식(Ceremonial Washing)
- 부제, 성물을 드림(Presentation of Elements)
- 제복을 입음(Vesting of Celebrant)
- 제단의 막을 씌움(Fencing of Table)

서송(Sursum Corda): “너희 마음을 들지니라.”

봉헌기도(Consecration Prayer)

- 서문경(Preface)
- 거룩성(Sanctus)
- 감사(Thanksgiving for Redemption) - 창조, 섭리
- 기념(Anamnesis): 제정사(Words of Institution)
회상(Memorial & Oblation)

152 예배신학

- 축성(Epiclesis) - 성령을 구하는 기도
- 대중보기도(Great Intercession)

주기도(Lord's Prayer)

부제의 연도(Deacon's Litany) 및 사제의 기도

거양성체(Elevation) 응답

- 영광송(Gloria in Excelsis, 눅 2:14)
- Benedictus(qui venit, 마 21:9)

배찬(Delivery)

성찬참여(Communion)

부제의 권면(Deacon's Exhortation)

성찬 후 사제의 감사와 중재(Intercession)

사제의 축복기도(Prayer of Blessing)

폐회(D dismissal)

아래는 요한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 345?-407)의 예전에 의한 동방정교회(The Eastern Orthodox Church)의 예배순서이다.

* 예비교인 예배(Liturgy of the Catechumens)

연도(Litany) - 보제와 신도

입당송(Introitus)

교창(Antiphon)

소입당(Little Entrance)

삼성송(Trisagion)

시편 낭독

서신 낭독

알렐루야(Alleluia)

복음서 낭독 전 기도

복음서 낭독

연도

예비교인을 위한 기도

154 예배신학

* 입교인 예배(Liturgy of the Faith)

입교인을 위한 기도

대입당(Great Entrance)

성가(Cherubikon)

니케아 신조

봉헌 기도(Eucharistic Prayer)

거룩송(Sanctus)

회상과 성찬 봉헌(Anamnesis and Oblation)

축성(Epiclesis)

기도(성인들과 교인들을 위한)

성찬 기도 및 주기도

분병 분잔(Fraction and Commixture)

설교

배찬(Communion)

감사 기도

강복과 폐회 기도 - 남은 빵 분배

아래 서방교회의 로마의식(The Roman Rite)은
그레고리(Gregory, 590-604) 예전에 의한 것이다.

* 말씀의 예전

사제의 입장(두 성가대의 입당송)

키리에(Kyrie):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사제의 인사

기도문

예언서 등 구약성서 봉독

교창

서신 낭독

창세기송(시편이 처음부터 불려짐)

할렐루야

복음서 낭독

초신자의 해산

* 성만찬의 예전

봉헌: 떡과 잔을 드림

156 예배신학

- 제단 위에 성체 배설
- 영성체를 위한 준비
- 예물의 봉헌
- 포도주에 물 혼합(시편이 불러짐)

봉성체(Sursum corda)

봉헌 기도

서문경(Preface)

성찬 서식

삼성송(Sanctus)

축성 기도

평화의 입맞춤

분병

주기도

영성체(이 때에 시편이 불러짐)

영성체 후 기도(감사)

해산(부제에 의함)

다음은 트렌트 예전(Liturgy of Trent, 1570년)에 의한 서방교회의 예배순서이다.

* 말씀의 예전

입당송

키리에(Kyrie): 사제의 입당

- 사제의 준비(제단에서 개인적 기도)

대 영광송: 인사와 기도문 낭독

서신서의 노래(부제에 의한 응답)

성가대 찬가송

영창: 복음서를 통한 기도와 준비

복음서 낭독

설교자 등단: 예고

- 초대기 기도

- 서신서와 복음서 낭독(자국어)

강론

니케아 신조(대 영광송에 맞추어)

인사와 초대기도

158 예배신학

* 성만찬 예전

봉헌(시편송과 함께 사제가 나옴)

- 빵의 봉헌(기도문 낭송)
- 포도주에 물을 섞음
- 잔의 봉헌(기도문 낭송)
- 기도향의 축복
- 떡과 잔의 분향
- 제단의 분향
- 사제의 분향
- 사제의 손 씻음
- 성물 봉헌식

인사와 서송

봉헌의 기도

- 성찬 서식(사제에 의한 노래)
- 삼성송
- 성별
- 축성 기도

주기도문 찬미(사제)

입맞춤과 분병 분찬

하나님의 어린양 찬미: Agnus Dei(사제와 성가대)

사제의 영성체

- 기도문
- 평화의 키스(사제에게)
- 기도문
- 분병의 말씀(빵을 받고)
- 감사(시 141:12-13)
- 분잔의 말씀(잔을 받고)

성만찬 참여

영성체 시편 찬미(성가대)

- 잔을 씻음
- 기도문
- 잔을 덮음

인사와 영성체 후 기도문

부제의 인사와 기도문

축복 기도

마지막 복음 낭독과 응답(감사)

160 예배신학

다음은 로마미사경본(Missale Romanum, 1962)에 의한 로마 카톨릭 교회(The Roman Catholic Church)의 예배순서이다.

* 개회식

성수 예절

인사

참회

자비를 구하는 기도(Kyrie)

대 영광송(Gloria)

본 기도(Oratorio)

* 말씀의 전례

독서(Epistle)

창계송(Graduate)

알렐루야(Alleluia)

복음(Evangelium)

강론

신경(Credo)

신자들의 기도

* 성찬의 전례

예물 준비

봉헌송(Offertorium)

포도주에 물을 섞음

봉헌 기도(Oratio Super Oblata)

감사송(Praefatio)

거룩송(Sanctus)

거룩한 변화

거양 성체

그리스도의 구원 성업을 기념

산 자와 죽은 자를 기억

끝 영광송

주의 기도

평화의 인사

빵을 나눔

하나님의 어린양(Agnus Dei)

영성체(Communio)

영성체 후 기도(Post Communio)

* 폐회식

사제의 강복

파견(Ite missa est)

162 예배신학

개혁시대의 예배순서 : 아래는 루터의 독일미사예전
(1526년)에 의한 예배의 순서이다.

* 말씀의 예전(Liturgy of the Word)

입당송 또는 독일어 찬송

자비를 구하는 기도(Kyrie eleison)

인사와 기도문

서신서 낭독

독일 찬송

복음서 낭독

사도신경(이 때에 성만찬이 준비됨)

설교

* 성만찬 예전(Liturgy of Upper Room)

주기도문 해설

권면

성만찬 제정의 말씀과 분병 분잔

성만찬

성만찬 후 기도

아론의 축도

다음은 쓰빙글리의 성만찬 집례(1525년)에 의한 예배의 순서이다.

* 말씀의 예전

봉헌(성물의 준비와 배열)

기원

기도문 낭독

서신서 낭독

영광송

복음서 낭독

사도신경

* 다락방 예전

권면

성찬대 정리

주기도문

용서의 기도

성찬의 말씀

분병 분잔

시편 교송

성찬 후 기도

폐회

164 예배신학

다음은 칼빈의 성만찬 집례법(1540년)에 의한 예배의 순서이다.

* 말씀의 예전

예배의 말씀

죄의 고백

용서를 구하는 기도

운율 시편: 성령 임재를 구하는 기도

성경 봉독

설교

* 다락방 예전

구제 헌금

중보 기도

성물 준비

사도신경

봉헌 기도

성만찬 말씀

권면

성체 분할

분병 분잔

성만찬 참여

성찬 후 기도

시므온의 찬미

아론의 축도

현대의 예배순서: 아래는 리마 문서(Lima Document, 1982년)에 의한 성찬예식(The Eucharistic Liturgy) 순서이다.

* 개회의 예전(제1부)

개회 찬송(Entrance Psalm)

인사(Greeting)

죄의 고백(Confession)

용서의 선언(Absolution)

자비의 연도(Kyrie Litany)

영광송(Gloria)

* 말씀의 예전(제2부)

오늘의 기도(Collect)

구약성서 봉독(First Lesson: OT)

명상의 시편(Psalm of Meditation)

서신 봉독(Epistle)

영창(Alleluia)

복음서 봉독(Gospel)

설교(Homily)

침묵(Silence)

신앙고백(Nicene-Constantinopolitan Creed)

166 예배신학

중보의 기도(Intercession)

* 성례전 예전(제3부)

준비 기원(Preparation)

인사의 교환(Dialogue)

처음 기원(Preface)

삼성창(Sanctus)

성령 임재의 기원 1(Epiclesis 1)

성찬 제정사(Institution)

기념사(Anamnesis)

성령 임재의 기원 2(Epiclesis 2)

추모의 기원(Commemorations)

마지막 기원(Conclusion)

주의 기도(The Lord's Prayer)

평화의 인사(The Peace)

분병례(The Breaking of the Bread)

하나님의 어린 양(Lamb of God)

성찬에의 참여(Communion)

감사의 기도(Thanksgiving Prayer)

폐회 찬송(Final Hymn)

분부의 말씀(Word of Mission)

축복 기도(Blessing)

마지막으로 필자가 시무하는 교회의 주일예배의
순서를 소개하여 본다

주 일 주 일 禮 拜 예 배
THE HOLY COMMUNION WORSHIP ON LORD'S DAY

오전 11:00 인도: 장창민전도사

입 레 송 ----- 370 ----- 다 같 이

기도와 찬송

묵상기도 ----- 묵도송 ----- 다 같 이

신앙고백 ----- 주는 그리스도시오 ----- 다 같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배찬송 ----- 208 ----- 다 서 서

성서교독 ----- 48.시106편 ----- 인도· 회중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대표기도 ----- 기도송 ----- 윤웅식집사

봉헌과 말씀

모든 헌금은 헌금함에 넣습니다

봉헌찬송 ----- 450 ----- 다 같 이

성서봉독 ----- 요한복음 17:1-26 ----- 다같이 합독

목회기도 ----- 봉헌·도고 ----- 목 회 자

168 예배신학

말씀선포 ----- 중보기도 ----- 장성영목사
목상·결단 ----- 다 같 이
초대찬송 ----- 364 ----- 다 같 이

처음 오신분과 침례받기 원하는 분은 일어서주세요

환영·문답 ----- 새식구·신앙고백자 ----- 다 같 이

주님을 기뻐

성 찬 송 ----- 227(1) ----- 다 같 이
축사·분별 ----- 집례자·성도
성 찬 사 ----- 고전 11 :23-26 ----- 침례교인
사례·배찬 ----- 227(2-5) ----- 집례자·성도
주기도문 ----- 공송 ----- 다 같 이

축복과 파송

교회소식 ----- 소식란 ----- 인 도 자
표어제창 ----- 교회 ----- 다 서 서
파송찬송 ----- 391 ----- 다 서 서
폐회축도 ----- 송영 ----- 장성영목사

식탁의 교제

예배의 장소

예배의 장소(場所)는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나?’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장소라 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본 장에서는 예배의 처소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원리와 그 역사적 고찰 및 예배하는 곳으로서의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장소의 성별

하나님께서서는 거룩한 영이시다. 또한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무소부재(無所不在)의 신이시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와 죄 가운데 있으면서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장소가 성별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공간적 제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둘 이상의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제한성(制限性)의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사람과 교제하시는 그의 긍휼하심 때문에

170 예배신학

장소의 성별이 필요한 것이다. 이 장소 성별의 역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타락 이전: 인간이 처음 살았던 에덴의 동산에서는 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즉 예배의 삶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에덴에서는 특별하게 장소의 성별이 필요 없었던 때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에덴은 “여호와와 동산”(겔 28:13), 혹은 “하나님의 낙원”으로(계 2:7) 자연스럽게 거룩한 장소이었기 때문이다.

타락 이후 모세까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 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예배의 장소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다. 그것은 최초의 예배자들로 언급된 가인과 아벨의 기록(창 4:3-5)에서 그 장소에 대한 지적이 없었으며, 대홍수 후에 노아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을 때(창 8:20)에도 단을 쌓은 장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되지 아니하였고, 또 아브라함이나(창 12:7f), 야곱(창 28:16-19) 같은 족장들은 그들이 거하는 곳이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곳에서 단을 쌓은 것으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그들의

시대에는 예배 장소의 특별한 구별이 강조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제단을 쌓는 곳이 주로 산이었다는 사실이다. 그 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렸었다(참고, 족장시대의 예배). 그래서 그 후의 시대에 이르러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으로 알려졌다(왕상 20:23).

모세 이후 포로 이전까지 : 족장 시대까지는 예배의 장소가 일정하지 않았으나,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너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제 이년 정월 곧 그 달 초 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출 25:1; 8f) 라고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성막제도가 생기면서 예배의 장소가 성막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이 성막은 개인적 혹은 가정적이었던 예배의 형태를

172 예배신학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 또는 민족적인 예배의 장소로 정하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성막은 이동할 수가 있는 예배의 장소이었으며,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성전은 원래 다윗 임금이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준비만 하였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건축하게 되었다(왕상 6:1-38). 또 그 식양도 모두 성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다(왕상 28:2-21).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자리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바치도록 하셨던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대하 3:1)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하나님에 의하여서 성전건축이 준비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의 건축을 마치고 낙성식을 거행할 때에 드린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된 말씀(왕상 8:22-9:9)을 읽음으로 예배의 장소로서 성전이 성별 되었음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인간이 건축한 건물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제사하는 집[建物]을 삼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혹은 국가적 신앙의 중심이 되었으며(대하 7:12), 자연스럽게 위임적이고, 대리적 예배의 형식인 제사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포로 이후 예수님까지: 예루살렘(성전)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자 성전의 희생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고, 그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성지가 될 뿐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전제사를 대신하는 신앙생활을 찾게 되었다. 그때 그곳에서 구약의 율법을 보관, 해석하여 신앙을 지도하였던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 의해서 회당이 창설되었다. 그들은 희생 제사는 드리지 못하였지만, 회당집회를 통해 율법낭독 등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회당제도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뒤에도 계속되어서 예수님의 시대까지도 성전은 예배하는 곳으로, 회당은 교육하는 곳으로 정착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사도시대 이후: 사도시대 및 그 이후의 예배 장소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가운데에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다(요4:20f).

174 예배신학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은 앞으로의 어느 시점이 되면, 예배의 장소가 일정하게 하나 혹은 둘의 장소로 제한되지 않고 어느 곳에서도 예배드릴 것인데, 그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희생당하실 때와 성령강림의 때로 이해한다. 그리하여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었던 집 등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자리가 곧 교회가 되었음을 성서(행 1:13; 2:1; 12:12, 고전 16:19, 몬 2)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

여기에서 예배의 장소로 어디든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원래 성전이 한 장소에 세워지기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또한 이것은 교회가 어떤 곳에서도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지, 교회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예배의 장소는 가정이나 산 등에서 성막과 성전으로 바뀌었다가 성전과

회당을 거쳐서 오늘의 교회에 이르게 되었음을 잘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교회는 예배당으로서의 성전의 성격과 학교로서의 회당의 성격을 둘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다.

교회(教會)

교회란 무엇이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먼저 그 이름을 일반적으로 알아보고 또 성경적 명칭을 살펴 보아서 그 정의를 내려 보기로 하겠다.

일반적 명칭으로 본 교회: 우리말 사전(양주동)은 교회를 “종교 단체의 모임”이란 말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다른 종교의 모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설명이므로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적합한 풀이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오히려 영어에서의 교회란 말 ‘처치’(Church)나, 독일어의 ‘키르케’(Kirche)가 더욱 그리스도교적인 용어라고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Church’와 ‘Kirche’는 헬라어 ‘큐리아케’(κυριακή)에서 나온 단어로서 “주님께 속한”(Lord’s) 뜻이기 때문이다.

176 예배신학

성서적 명칭으로 본 교회 : 구약성서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혹은 그들의 대표자들의 실제적인 회집과, 그들이 이루고 있는 사회 등을 나타내는 ‘카할’(קָהָל)과 ‘야다’(יָדָא)라는 용어들이 우리말로 ‘회중’, 또는 ‘총회’ 등으로 번역되어 있다 (출 12:6, 민 15:5, 신 18:16, 왕상 8:16, 램 26:17, …).

신약성경에서는 ‘교회’ 및 ‘무리’, ‘민회’, ‘모임’ 등으로 번역된 ‘에크레시아’(ἐκκλησία, 마 16:18, 행 7:38, 롬 16:16, 고전 11:18, 엡 1:22, …)와, ‘회’(會)나 ‘회당’(會堂)으로 번역된 ‘쉬나고게’(συναγωγή, 마 4:23, 요 6:59, 행 9:2, 계 2:9, …) 등이 나온다.

이들 성서적 용어들은 “불러낸 무리”라는 의미와 그 무리가 “모여 있는 곳”을 가리키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는 교회의 비유적인 명칭들도 있어서 그 특별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바, 그 예를 들어 보면, “그리스도의 몸”(고전 12:27, 엡 1:23, 골 1:18), “하나님의 전”이나 “신령한 집”(고후 6:16, 엡 2:21f, 벧전 2:5), “새 예루살렘”(계 3:12),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딤후 3:15) … 등이다.

교회의 정의(定義): 교회의 일반적인 명칭들과 성경적인 명칭들에 의해서 그의 정의를 내린다면,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즉 그 무리와 모인 곳”을 말한다.

교회가 예배의 장소로서 정해졌음은 이미 그 성별의 원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장소의 제한을 받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이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예배의 장소를 언급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셨다. 즉,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יהוה אֵילֵּה)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창 22:2; 14)

예배의 처소가 정확하게 한 장소로 정해지기는 모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성막이었다. 그것이 후에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으로 건축되었는데, 그 성전의 자리가 곧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었음은 우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 장소가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분명하며,

178 예배신학

그러한 성전이 오늘의 교회인 것이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땅에서 꼭 필요하다는 의미를 더욱 깊게 하여 주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6). 교회가 이 세상에 필요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으며, 그리고 왜?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셨겠는가? 특히,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신 16:5-7)은 교회의 필요성을 크게 뒷받침한다고 보여 진다.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예배의 때

예배의 때는 ‘언제 하나님께 예배드릴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그때나 시간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부당한 것일지 모르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성, 즉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날, 즉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성별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에게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그러한 맥락에서 유대인의 안식일과 그리스도인의 주일에 대하여 살펴봄으로 오늘날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을 고찰하여 보기로 하겠다.

안식일

유대인의 안식일(安息日)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레 되는 날에 쉬신 것(창 2:1-3)에 그 기원을 둔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안식일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의 뜻[意義]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첫째, 안식일은 휴식의 날이다. ‘안식’(安息, **שָׁבַת**)은 그 어의(語義)상 “쉬다”, “그치다”, “휴식”의 뜻이 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육 일 동안 지으시고, 그 마지막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쉬는 날”이라는 의미가 있다.

둘째,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을까? 그 해답은 다름이 아닌 창조의 사역과 그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만물을 완성하신 것을 기념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곧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완성)을 기념하는 날이다.

셋째, 거룩하고 복된 날이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당연히 이 안식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 즉 성일(聖日)인 것이다.

넷째, 제 7일이다. 안식일은 창조의 마지막 날의 개념이 있다. 이 마지막 날은 제 7일, 즉 일곱째 날이었다. 헬라어에서 안식일을 가리키는 말 ‘샅바톤’(σαββατον)은 “안식”의 뜻 외에 “주”(週)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한 주간(7일)의 마치는 날인 제 7일을 의미하여 “완성의 날”을 가리킨다.

다섯째, 여호와와 의 날이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의 안식일인즉 …” 하였으니, 인간의 날이 아니라, 성부의 날, 곧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날이라는 말이다.

여섯째, 사람을 위한 날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인 동시에 또한 사람들을 위한 날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막 2:27)에 의한 것이다.

일곱째, 이스라엘 자손의 표징이었다. 이스라엘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구약의 성도를 말하는데,

182 예배신학

그 자손 되는 외부적 표시가 곧 안식을 지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더라도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성민(聖民)은 될 수가 없었다(출 31:13f).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 지리라.

여덟째, 다른 절기들의 기본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7년마다 지켰던 안식년과, 50년마다 지켜왔던 희년(禧年) 등은 안식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졌으며(레 25:2-34), 7일의 기간으로 정해진 한 주간도 역시 이 안식일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여겨진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데, 특히 하나님은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로 안식일에 대해 명령하고

계시다(출 20:8-11).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
 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
 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
 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계명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그 의미와 지키는
 방법과 그 이유가 모두 언급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聖守] 법을 한 마디
 로 말한다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안식일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여 보고, 다음으로 누가 안식일
 을 지킬 수 있는가? 및 안식일의 폐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첫째, 안식일에 하여야 했던 일들은 먼저, “이 땅

184 예배신학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라는 에스겔서 46장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였는데, 그 일에 포함되는 것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고(왕하 4:23),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에 여호와 앞에 떡을 진설하였으며(레 24:8, 대상 9:32), 번제를 드렸다(민 28:9f, 대하 2:4, 겔 46:4).

다음으로,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할례를 주며(요 7:22f), 성경을 읽고(눅 4:16, 행 15:21), 가르치며(막 1:21, 눅 4:31, ...), 강론하여 권면하였고(행 13:14ff; 17:2f; 18:4), 또한 사탄과 질병에 매인 사람들을 치료하였으며(마 12:9-13, 눅 14:1-6), 속죄를 위하여 통회하였다(레 16: 31). 그리고 짐승을 마구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었으며 우물이나 구덩이에 빠진 짐승은 붙잡아 내었다(눅 13:15; 14:5).

둘째, 안식일에 금지된 일들은 밭갈이나 추수 등의 농사일(출 34:21), 불 피우는 일과 나무하는 일(출 35:3, 민 15:32-36), 집 안에서 짐을 내는 일(렘 17:22), 물화(物貨)와 식물(食物)의 매매(느 10:31; 13:15-21), 오락

(사 58:13), 먼 길의 여행(행 1:12), 또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사 1:13f), 즉 가증하게 예배하는 일과 손을 금하지 않는 것(사 56:2) 등이다.

셋째, 안식일을 누가 지킬 수가 있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의 핵심은 쉽다. 즉, 사람과 짐승이 모두 “아무 일”, 혹은 “무슨 일”이나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의 개념이 문제가 되는데, 대관절 어디까지를 일로 보느냐 하는 것이다. 국어사전(양주동)에서는 일을 “업으로 삼고 하는 모든 노동”, 혹은 “어떤 경험”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과학에서는 열량(熱量, energy)을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을 가지고 볼 때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허파가 하는 일[呼吸]이나 염통이 하는 일(피 순환)까지도 하지 않는 것, 즉 ‘죽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신 12:9f, 시 95:11), 이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 누리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것(계 14:13)이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씀(히 3:11)처럼 참다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죄인 된 우리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닌, 마태복음 11장 28-30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안식을 얻는 것이다(cf. 사 14:3).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때가 금요일 오후 3시경이었고(마 27:45-50, 막 15:33-37, 눅 23:44-46),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마 28:1-6, 막 16:1-6, 눅 24:1-6).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안식일의 기간 동안인 제6일(금요일) 저녁부터 제7일(토요일) 저녁까지는 분명히 무덤에서 죽음의 상태로 안식하신 것이다(레 23:32, 막 15:42; 16:1).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을 대신해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켜주신 것을 말한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비로소 마태복음 12장 8절(막 2:28, 눅 6:5)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신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며, 나아가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히 4:3)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안식일을 지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과 함께 안식일도 우리를 대신하여 지켜주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넷째, 안식일은 폐지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에 안식일의 폐지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여 주셨음을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호 2:11, cf. 사 1:13f) 하신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이 안식일의 폐지하심은 실지로는 폐지가 아니라, 완성인 것이다. 이 사실은 마태복음 5장 17절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cf. 롬 10:4).

주일

주의 날(主日)에 대해서 그날의 명칭과 의미, 안식일과 같은 구약의 다른 날들과의 연속성 등을 살펴봄으로 주일이 어떤 날이며, 또 주일성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주일(主日, Lord's day): 교회가 제일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 명칭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주의 날”에 의한 것으로서, 글자 그대로 주님의 날이란 주님을 위한 날, 즉 주님을 기념하는 날인 것이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날에 주의 만찬을 행하여 주님을 기념한 것이 분명하다(행 20:7).

둘째, 일요일(日曜日, Sunday): 일요일이란 이름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은 저스틴(Justine, 100-165)이었는데, 150년경 황제에게 보낸 그의 “제 1 변증서”에서 그리스도교의 예배를 설명하는 가운데 ‘소위 일요일’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관례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억지라도 그의 군주인 황제를 기쁘게

해 주기 위해 사용하였던 표현이었다.

그런데, 일요일은 고대의 바빌로니아인들이 해와 달, 그리고 다섯 개의 별들의 이름을 따서 한 주간의 각 날들의 명칭을 붙인 데서와, 또 이교도의 태양신 숭배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성경(말 4:2, 요 1:4, …)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해’, 혹은 ‘빛’으로 말씀하여 놓고 있기 때문에 주의 날을 일요일(태양의 날)로 부르는 것도 성서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다만, 주일이 일요일보다 더 좋은 표현으로 보는 것뿐이다.

셋째, 제8일 : 주일에 해당하는 초기의 이름인 ‘제 팔일’의 기원은 레위기 23장 35-37절 및 39절이다.

첫 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칠 일동안에 너희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 팔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와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칠월 십오일부터 칠일

*동안 여호와와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
하고 제 팔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 말씀은 장막절에 관한 기록으로서, 첫 날과 제 팔일은 여호와와 절기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안식하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하며, 또 여호와께 제사드리는 날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제 팔일은 또 다른 관점에서 중요하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때 “난지 팔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신 것과(창 17:12), 초태생을 바치는 것과(출 13:2, 레 27:26, 민 3:13, 눅 2:23)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 팔일을 할례일 또는 결례일(潔禮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 팔일은 보통 주간을 넘어서 그것 밖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한 주간이 시간을 대표한다면, 제 팔일은 시간을 넘어서 시간 밖에 있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 팔일은 역사와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오는 세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 팔일은 일반적 정통

속에서 종말론적인 명칭인 것이다. 예를 들면, “그러므로 우리는 제 팔일을 즐거워하면서 지킨다. 이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바나바서(15:1)의 글과, 전도서 11장 2절의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라는 말씀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옛 계약과 새 계약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등, 일곱을 모세의 시대나 현 세계로, 여덟은 복음 시대나 오는 세계로의 깊은 의미를 숫자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제 팔일을 보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심판의 날이며, 새 창조, 즉 새 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 창조라는 것이다. 주일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표지였듯이, 제 팔일은 그 새 창조가 완성된 표지이다.

넷째, 첫 날: 주일이 첫 날이라는 명칭은, 안식일이 지나 다시 시작되는 새 주간의 첫째 날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안식 후 첫 날’(마 28:1, …)이나, ‘매 주일의 첫 날’(고전 16:2)에서 비롯되었으며, 또한 유월절 기간의 칠일이 시작되는 그 첫 날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며 강조하고 있는 말씀에 의해서 ‘유월절의 첫 날’(신 16:1-8)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만

하겠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바쳐야 한다면, 어떤 시간을 드려야 하겠는가?’를 생각하여 보는 것이다. 이 물음의 정답은 두 말할 것 없이 첫 시간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 가운데서 제일 귀하고 거룩한 시간은 첫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 말고는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들(창 4:4, 출 13:2, 레 27:26, 민 3:13; 8:17, 눅 2:23)을 상기하여 보자.

주일, 즉 이 첫날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첫째 날과도 무관하지 않다. 창조의 첫째 날은 빛의 날인데, 그 빛은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요 1:14; 8:12, 요일 2:8, 사 49:6). 그리고 주의 날이 유월절의 첫날과 관계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오순절과도 연관 지어진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설립된 날을 ‘오순절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본다.

다섯째, 성일(聖日): 이미 언급한 명칭들과, 그 의미들에서 주일은 거룩한 날[聖日]임에 분명하다.

이상과 같은 주일의 명칭들과 그 의미들을 정리해보면, 성부의 날, 성자의 날, 성령의 날, 교회의 날,

의인의 날, 그리고 세계의 날 등의 개념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처럼 주일의 명칭과 그 의미도 그 핵심이 ‘주의 날’에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의 명칭들과 그 의미들을 살펴본 목적은 “주의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성도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主日聖守] 방법에 대하여서 다루기로 하겠다.

첫째, 예배드림 : 주일성수의 방법으로는 먼저,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신앙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그 예배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그르치고, 나아가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옛 언약시대의 예배의 중심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었다. 제물 없이는 제사를 드렸다고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새 언약 시대의 예배는 그러한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194 예배신학

그런데, 예배(제사)의 형식은 바뀌었어도 그 중심은 변하지 않는다. 즉, 지금의 예배에도 그 중심인 제물이 꼭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곧 십자가인 것이다. 여기에서 십자가란, 물론 그 형상이나, 혹은 무엇으로 만든 십자가의 모양을 가진 물건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속죄사건을 말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이천여 년 전에 이루어진 그 구속의 사건이 오늘에 예배하는 우리들과 어떻게 함께 있으며, 예배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신비스러운 것으로 연결시켜 주셨는데, 다름 아닌 성찬인 것이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로 와서 자기의 두 아들을 주의 영광중에서 주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하여 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고 대답하신 것과(막 10:38, 마 20:22),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겻세마네 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 26:39, 막 14:36,

눅 22:42) 라고 기도하신 것과, 또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에 포도주 잔을 들고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고전 11:25, cf. 마 26:28, 막 14:24, 눅 22:20) 등, 이러한 성서의 기록들은 그의 십자가 사건을 성만찬과 연결시켜 주고 있음을 밝혀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성만찬을 제외시키는 것은 구약의 성막 제사에서 희생의 제물 없이 제사드림과 같으며(실제로는 제사드림이 아님, 레 17:4), 예배의 중심을 빼어버린 것이 되는 것이다.

오늘의 어떤 교회와 성도들이 설교가 예배의 중심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말씀 중심의 집회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 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당에 모여 제물 없는 신앙 집회를 시작하였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계속 회당제도가 유지되게 되었는데, 이것이 곧 유대인의 율법학교인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배에서 성찬을 제외시키게 되면, 예배는 아니고, 성경학교에 불과한 것이 되므로, 교인들로 하여금 제물 드리는 성전에는

가지 못하게 하고, 성경학교뿐인 회당의 생활만 하게 하여서 결국은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주일예배에서 성만찬 없이 설교만 하고 있는 교회들은 속히 성만찬을 회복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의 생활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주를 기념함: 세상에서도 훌륭한 인물을 기리는 날이 있어서 각 나라마다 어떤 사람의 날을 정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를 오래 오래 기억하며, 본받기를 기대한다. 이처럼 주의 날이란,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런데, 주를 기념하는 방법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으며, 그 방법은 단 한 가지로서 성만찬뿐이라는 것이다(고전 11:23-26).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 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과 같은 분부로서, 주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순종해야겠다고 다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주일에 모였다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한 것을 보아서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이 확실하게 증명된다.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그의 세상에 오심,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 및 재림까지를 모두 기념하는 것이며, 성만찬을 행하여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구약에서 영원한 규례가 되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유월절과 함께, 안식일을 동시에 지키는 것이 된다(출 12:1-28, 눅 22:7-16, 마 26:17-19, 막 14:12-16).

또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성찬에 참석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나눌 새로운 식탁을 상징하는 것(마 26:29, 막 14:25, 눅 22:16;18) 으로 이 땅에서 성만찬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하늘의 식탁에도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레위기 24장 8절에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198 예배신학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하신 말씀에서 두 줄로 진설하는 진설병을 교회가 항상 준비해야 할 생명의 떡으로 해석하여 이것을 신·구약 성경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이것을 예배의 중요한 두 중심인 성찬과 설교라고 보는 것도 타당하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주일예배에는 성찬과 설교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바로 성찬예식(聖餐禮式)을 행하는 것이다.

주일은 주 기념일, 곧 성찬일이다!

예배신학 결론

“예배학개론”을 끝을 내면서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맺는말로 가름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靈的)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살아 있는 예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곧 ‘생활 예배’(生活禮拜)를 말함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당에 가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여야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IV

세례신학

洗禮神學

THE

BAPTISM THEOLOGY

IV. 세례신학

1. 성례전의 개념

성례전의 용어와 정의 · 203

성례전의 수와 종류 · 205

2. 세례의 어의

세례의 용어 · 211

세례의 의미 · 214

3. 세례의 역사

그리스도교 이전의 세례 · 219

신약시대의 세례 · 223

초대교회 시대의 세례 · 232

중세기의 세례 · 239

종교개혁 이후의 세례 · 241

4. 세례의 실제

세례의 대상자 · 249

세례의 주례자 · 250

세례식 · 252

1

성례전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가 하나가 되는 의식(儀式), 즉 교회의 거룩한 예식(禮式)인 성례전(聖禮典)에 대해서 그 용어(用語)와 정의(定義) 및 수(數)와 종류(種類)를 알아본다.

성례전의 용어와 정의

‘성례’(聖禮)란 말을 『국어대사전』(금성출판사, 1993)에서 찾아보니, “**명** ① 거룩한 예식. ② [기] 세례식·성찬식(聖餐式) 등의 예식”으로 설명되어 있다.

천주교회에서는 ‘성사’(聖事)라고도 하는 이 ‘성례’를 영어에서는 ‘새크라멘츠’(sacraments)라 하는데, 어미의 ‘에스’(-s)가 없는 ‘새크라멘트’(sacrament)는 성찬만을 가리킨다. 영어의 ‘새크라멘트’(sacrament), 혹은 독일어의 ‘사크라멘트’(Sakrament)는 라틴어 ‘사크라멘툼’(sacramentum)의 번역이다.

204 세례신학

라틴어 ‘싸크라멘툼’(sacramentum)은 원래 로마 군인들이 입영할 때에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이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사”(딤후 2:3)에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거절한 세상과의 성별된 것을 명시하고, 그리스도에게 충성할 것을 고백하며, 이 사실을 재인정한 것이다.

라틴어 ‘싸크라멘툼’(sacramentum)은 헬라어(Greek) ‘무스테리온’(μυστήριον)의 불가타(vulgāta, 라틴어 성경) 번역이다. 헬라어 ‘무스테리온’(μυστήριον)은 성경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초대교회에서 신비에 관계된 것으로 ‘신령한’, 혹은 ‘신께 바쳐진 어떤 것’ 등을 언급할 때에 사용되었다. 이 말의 넓은 의미는 종교적 의식 혹은 습관들인 십자가의 상징이나 안수식 등과 같이 감추어진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표징을 나타낸다.

독일의 신학자 아돌프 하르낙(Adolf von Harnack, 1851-1930)은 그의 저서 『교리사』(*History of Dogma*, II, pp. 138f)에서 “터툴리아누스(Tertullianus, 150-220?, 서방교회의 신학자)가 이미 이 성례전을 신성한 것들,

신비스럽고 유익한 표징들이나 매개체들, 성스러운 행위 등을 표현하기 위하여 썼다”고 지적하였다.

성례전에 대한 정의를 최초로 내린 사람은 서방 교회의 지도자이며, 고대 그리스도교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us, 354-430)인데, 그는 성례전을 “보이지 않는 은총의 보이는 형식”, 혹은 ‘보이는 말씀’(visible word, verba visibilia)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1559년에 결정판을 내놓은 그의 저서 『그리스도교 강요』(Christian Institutes, IV, xiv, 1)에서 “성례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지(標識, Signs)요, 보증(保證, Seals)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성례전의 수와 종류

구교(舊敎: 천주교회, The Catholic Church)는 성례전의 본질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인생에게 초자연적인 은총을 주입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206 세례신학

교리적인 권위를 가지고 신성불가침의 것 일곱 가지 성사(七聖事)를 다음과 같이 고정시켰다. ① 성세성사(聖洗聖事: 領洗, 입문성사, Baptism). ② 견진성사(堅振聖事, Confirmation). ③ 성체성사(聖體聖事: 聖餐, Holy Communion). ④ 고해성사(告解聖事, Penance). ⑤ 성품성사(聖品聖事: 임직식, Holy Orders). ⑥ 혼배성사(婚配聖事, Matrimony). ⑦ 종부성사(終傳聖事: 관유식, Extreme Unction) 등이다.

개신교(新敎, The Protestant Church) 중 몇몇 교파(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세례, 성찬, 세족례의 3가지 성례들을 지키고 있다. 이들 가운데에서 세족례(洗足禮, Washing of Feet, pedilavium)는 요한복음 13장 14-15절에 근거를 두며, 400년 경에 아우구스티누스(*Letters*, LV, 33)에 의해서 입증되었고, 스페인의 톨레도(Toledo) 17차 종교회의(694년)에서 인정되었다. 그러나 세례식과 성찬예식의 두 성례가 성경적이라 할 수 있다.

구약의 성도(Israel)에게도 성례가 있었는데, 곧 할례(割禮, Circumcision)와 안식일(安息日, Sabbath)이다. 이 구약의 두 가지 성례가 신약 성도(Christian)의 성례인 세례와 성만찬이 된 것이다. 그 변천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창세기 17장 9-1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후손 사이에 지켜야 하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이 할례의 언약이었다. 이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으로 태어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양피(陽皮)를 베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피의 언약이라 하겠다.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비록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 중에서 끊겨졌던 것이다. 반대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써 인정을 받게 되었었다.

그런데 이 육신의 할례가 형식적인 의식으로 변질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원하셨는데 (신 10:16, 렘 4:4, 롬 2:29), 이것은 죄로 인하여 자기의 마음을 찢으며 아파하는 진정한 회개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 육체적인 피 흘림의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으로 완성되었다.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그다음 12절에서는 ‘세례’로

208 세례신학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구약 성도의 성례인 안식일에 대해서도 출애굽기 31장 13-1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대대의 표징으로 안식일을 성일로 지키는 것인데, 그 핵심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짐승을 잡아서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이것 역시 피의 언약이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일을 모두 중지해야 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로 죽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 등의 말씀과 같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뒤 장사 되어 무덤 속에서 유대인의 안식일 기간인 금요일 해지기부터 토요일 해지기까지 글자 그대로 진정한 안식을 하셨다.

이 안식일의 폐지를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에 선지자 호세아(2:11)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이것은 실지로는 폐지가 아니라 완성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켜주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모두 그의 안식에 들어와 있다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히 4:3) 말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서 지켜 주신 그 안식일을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약의 성도는 그 영원한 언약인 안식일을 대신하여 ‘주의 날’(主日, Lord’s day)을 지키게 된 것이다. 이 주의 날은 사도 요한이 아직 살아 있었던 그 당시(주후 95년 경)에 이미 초대교회가 정하여 지켜왔던 것(계 1:10)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날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 날’이며(행 20:7, 마 28:1, 막 16:2, 눅 24:1), 또한 ‘매주의 첫 날’(고전 16:2)로서 현재의 일요일(Sunday)인 것이다.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핵심이 희생제물을 드리는 속죄의 피에 있었던 것처럼 신약의 주일을 지키는 그 핵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곧 새 언약의 피인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다(마 26:28, 막 14:24, 눅 22:20). 이러한 주일의 성수(主日聖守)에 대해서는 이미 전 단원(주일신학)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210 세례신학

성례(聖禮, 거룩한 예식)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성도(聖徒, Saints, ἅγιος)가 되는 교회의 의식이다. 세례식이 예수님과 세례를 받는 자가 하나가 됨을 로마서 6장 3-5절에서 증거하고 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고 성찬이 그 예식에 참여하는 자와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는 예식임을 고린도전서 10장 16-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2

세례의 어의(語義)

이 명칭으로는 구교에서는 ‘영세’(領洗)를,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침례’ 둘을 사용하고 있다. ‘침례’가 성서적인 명칭이지만, 한글 성경이 처음 번역될 때에 ‘세례’로 하였기 때문에 이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본 장에서는 ‘세례’의 용어와 그 의미를 성서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세례의 용어

한국의 교회에서 ‘세례’(洗禮)를 ‘침례’(浸禮)로 하자는 주장도 꽤 설득력 있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1978년도에 발행된 신·구교 공동번역인 『성서』를 편집할 때에 ‘세례’를 원어(原語, Greek)의 뜻대로 ‘침례’로 하자는 의견이 아주 거세어서 회의에 회의를 거듭한 끝에 결국 본문에는 ‘세례’로 하고 난하주(欄下註)에

212 세례신학

“침례라고도 한다.”는 각주를 넣기로 하였었다.

그리고 침례교회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세례’를 ‘침례’로 고쳐서 읽어 오다가 최근에는 그 교단 자체적으로 ‘침례’로 인쇄된 성경을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례를 영어로는 ‘뱁티즘’(Baptism)이라 한다. 이것은 헬라어인 ‘뱁티스마’(βάπτισμα), 혹은 ‘뱁티스모스’(βαπτισμός)를 그대로 영어화한 것이며, 그리고 영어에는 침례를 강조하는 단어 ‘임머션’(Immersion)도 사용된다.

헬라어 ‘뱁티스마’(βάπτισμα)는 여성명사로 ‘적심’이나 ‘담금’의 뜻으로 환란이나 순교를 가리켰으며(막 10:38, 눅 12:50), 요한의 세례에 사용되었고(마 3:7; 21:25, 막 11:30, 눅 7:29, 행 13:24), 초대교회의 세례에 적용되었다(롬 6:4, 엡 4:5, 골 2:12, 벧전 3:21).

남성명사 ‘뱁티스모스’(βαπτισμός)는 ‘침례’(히 6:2)나 ‘목욕’(막 7:4, 히 9:10)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동사인 ‘뱁티조’(βαπτίζω)는 물로 “깨끗하게 하다”, “목욕하다”(막 7:4, 눅 11:38), 재난 등으로 “순교 당하다”

혹은 “가라 앞다”(막 10:38, 눅 12:50), 그리고 “침례를 주다” 혹은 “세례를 베풀다”(마 3:13, 막 16:16, 눅 3:21, 고전 1:5) 등으로 사용되었다.

위의 단어들의 어근이 되는 ‘밧토’(βάπτω, Lxx)는 “잠기다”, “적시다”(눅 16:24, 요 13:26), “물들이다” 혹은 “염색하다”(계 19:13)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영어 ‘밧티즘’(Baptism)을 형성하여 준 헬라어들은 그리스 저자들이 고전들과 70인역(Lxx) 및 신약성경에서 사용하였다. ‘밧티스마’(βάπτισμα)나 ‘밧티스모스’(βαπτισμός)의 명사들은 70인역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밧티스마’(βάπτισμα)는 신약성경에만 단수로 나오고 세례만을 뜻한다. 그리고 동사 ‘밧티조’(βαπτίζω)는 네 곳(왕하 5:14, 사 21:4, 유딧 12:7, 집회 31:25)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둘은 상징적 의미이다.

성서에 나타나는 세례를 지칭하는 동사와 명사들은 문자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어떤 일정한 목적을 위해 물을 접하였던 것을 상징했다.

독일의 신학자 크레머(August Hermann Cremer, 1834, 10, 18 - 1903, 10, 4)는 “βαπτισμός는 세례를 주는

214 세례신학

행위를 말하고, βάπτισμα는 세례 행위의 결과를 말한다.” 하였으며, 그리고 영국의 프럼머(Alfred Plummer, 1841, 2, 17 -1926, 4, 9) 라는 신학자는 “막 7:4, 히 9:10 등에서 βαπτισμός가 주로 정화, 또는 종교 의식적 목욕을 의미하며, 롬 6:4, 엡 4:5, 벧전 3:21 등의 βάπτισμα가 적절한 세례를 지적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Hastings, ed., *Dictionary of the Bible*).

한편, 성서에는 때때로 정규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면서도 세례를 시사(示唆)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단어들이 있다. 즉 ‘목욕’(요 13:10)이나 ‘씻음’(행 9:37; 16:33, 엡 5:26, 딤후 3:5, 히 10:22, 벧후 2:22)으로 번역되어 있는 ‘루트론’(λουτρόν < λούω)과 “뿌리다”(히 9:13; 19; 21, 계 19:13), “뿌림으로 정결케 하다”, “정화 하다”(막 7:4, 히 10:22) 등으로 번역된 ‘란티조’(ραντίζω < ραίνω) 등이다.

세례의 의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대화 하시면서 예수께서 “...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3절) 또 “...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5절) 하셨다. 이 말씀은 사람이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나서(重生) 천국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 거듭남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6절).

이렇게 세례받아 중생한 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1:13, 요일 3:9), 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눅 10:20, 빌 4:3, 계 3:5) 라고도 하였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36절)는 설교를 한 사도 베드로에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37절) 질문하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38절) 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씀에서 세례는 죄를 사(赦)함 받는 것(행 22:16, 막 1:4)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 약속(39절)임을 알 수가

216 세례신학

있다. 이러한 의미의 세례를 목욕(요 13:10)과 씻음(히 10:22, 엡 5:26)으로도 표현되어 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 하였는데, 이 말씀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롬 6:3-5, 골 2:12)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고전 12:13, 갈 3:28) 그들의 생활이 곧 예수의 삶을 나타내어야 함을 가리킨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개역)에는 세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세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찾아 볼 수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물세례란 것이고, 둘째는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즉 세례는 ‘구원하는 표’라고

하였는데, 이때의 ‘구원하는’(σωζει) 의미는 “앞으로 구원한다”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그 증표로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표로써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다.

셋째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세례’라 하고 있다. 이것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화인 맞은 것(딤후 4:2) 같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던(롬 1:21) 인간이 세례를 받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사 43:7) 하신 말씀과 같이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곧 세례라는 것이다.

3

세례의 역사

본 장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세례와 관련된 히브리인의 제계식(濟戒式)을 비롯하여 신약시대와 초대교회 시대의 세례와 그리고 중세기를 거쳐 종교 개혁기 전·후의 세례를 그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스도교 이전의 세례

아주 오랜 고대로부터 물[水]은 더러워진 것을 정결케 하며, 병든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으며, 이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그러하였다.

히브리인들은 특히 산물[生水]의 효력을 중요시해서 강물, 샘물, 흐르는 물이 신비적인 능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했다.

구약성경의 정결예식은 물로 씻거나 잠그거나 혹은

220 세레신학

뿌려서 하였다. 그 예로 유출병(流出病)이 있는 자와 그와 접촉된 사람이나 물건, 또 설정(泄精)한 자나 불결기의 여인의 정결법(레위기 15장) 등이 곧 물로 씻는 것이고, 스스로 죽은 동물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들을 먹은 자의 부정도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였다(레 17:15f).

그리고 제사장은 그 위임 시 견신례를 위해서 물로 씻었으며(출 29장), 또한 제물을 드릴 때마다 손과 발을 씻어야 했었다(출 30:17-21). 이것이 확대되어 후대에 와서는 제사장들이 제물을 바치러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온 몸을 물에 잠가야 했고, 속죄일에는 5회를 잠그고 손과 발은 10회를 씻어야 했었다(Mishnah, Yoma 3:5).

이와 같은 히브리적 제계식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극적인 목적으로는 종교적 불결을 제거함이었고, 적극적인 목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킴이었다. 이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 5:8) 라는 말씀과 연관시킬 수 있다.

고대 유대교에서는 개종자에게 할례와 세례 및 희생

제사(안식일)의 세 가지 필수적인 의무가 주어졌었는데, 그 중에서 세례의 발전 형태를 탈무드(Talmud)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다.

미쉬나(Mishnah)는 유대교 세례의 기원을 BC 1세기로 보고 있으나, 힐렐(Hillel) 학파(혹은 사마리아 학파)에서는 유월절 전에 개종하는 자는 반드시 침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 저녁 번제를 드려야 했었다(cf. 출 12:47-51).

이들의 세례 방법으로는 세 증인들이 개종자의 요청에 의하여서 참여하며, 개종자는 혼자서 물에 들어가 전신을 잠그고, 증인들이 요구하는 율법들의 중요한 부분을 암송하게 했다. 한편, 어머니가 개종할 때에 아이가 태중에 있으면, 그 아이는 태어난 후에 물에 잠그는 의식을 행할 의무를 면제 받도록 되었었다. 세례의 의미는 여호와께 자기를 헌신하는 행위로 ‘다시 나는 것’(rebirth)으로 생각하였다. 이 세례의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70년 전까지 거행된 것으로 본다.

엣세네파(Essenes)의 후보자는 수습 기간이 끝난 후 물로 정결예식을 받았는데, 제 5교시가 끝난 후에

222 세례신학

한 곳에 모여서 흰 베일을 쓰고 냉수에 목욕을 하고 공동 식사를 했다. 이 종파는 세례의식을 자주 반복하였으며, 첫 세례는 입회하는 의식으로 받았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더욱 정결하게 세례식을 하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라고 역사가인 요세푸스(Josephus)는 말하였다. 옛세네파를 뒤이은 쿰란(Qumran) 종파의 세례의식은 옛세네파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세례 요한의 세례의식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으로 ‘회개의 세례’이었고(막 1:4, 눅 3:3), 강한 윤리적 요소를 가졌다(cf. 마 3:8). 요한의 세례는 하늘나라에 들어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준비를 도와주는 요소가 들어 있고, 또한 새롭게 오는 세대를 위한 준비의 뜻이 있다.

요세푸스는 “요한의 의식은 범한 죄를 사정(赦淨)하여 면죄 받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행실로 이미 그 영혼이 깨끗하여졌을 때에 몸이 정결함을 얻게 된다.”고 말하였다.

신약시대의 세례

신약시대의 세례는 곧 신약성서(New Testament)의 세례라 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하여 공관복음, 사도행전(신약 역사서), 서신서 및 계시록(신약 예언서)까지의 세례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로 하겠다.

공관복음에서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마 3:13-17, 막 1:9-11, 눅 3:21-22)에 대해서 살펴 보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죄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할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그러면 그 ‘모든 의’(義)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방법으로는 자신에게 온 인류의 죄를 덮어 씌우시고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쳐 죄인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예수께서 죄인을 대신하는 몸이 되었기에 그도 죄 씻음의 성례인 세례를 받게 된 것이다. 다시

224 세례신학

말해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사람(죄인)은 누구든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암시하여 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였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가 많은 물 아래로 내려가신 침수세례이었음을 분명하게 가리키는 기록이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도행전 2장 38-39절의 말씀처럼 물로 세례를 받은 이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였는데, 이것은 세례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임을 밝혀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볼 수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여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세례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 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인데, 그 핵심은 “세례를 베풀어라.” 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이 말씀을 주님의 대명령으로 받아서 세례를 교회의 성례(聖禮)로 행하여 순종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세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기록을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예수께서 유대에서 세례를 주셨는데(3:22), 그 수가 요한보다 더 많게 되었다(4:1)는 것이다. 이는 요한의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자리를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곧 신약의 세례가 시작됨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는 예수께서 선생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겸손의 본을 보이신 일인데(13:4-15), 여기에서 발 씻는 것은 회개이며 매일 하는 반복적인 의미로, 목욕은 일회적인 세례를 가르치신 말씀으로 들을 수

226 세례신학

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3:1-8)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重生]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곧 세례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도행전에서는 세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기록들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성령세례)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된 것과 그날 3천 명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사건이다(2장). 그리고 세례가 성령을 받는 조건이요 방법이라고 사도행전 2장 38-39절에 명시하고 있다:

…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으니”(12절), 이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삼위)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16절).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했었는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안수하니 성령을 받았다(15;17). 이 기록은 물세례와 성령세례와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가 아니라 집사였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서와 가사로 가면서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세례를 준 것(8:26-39)은 그가 집사의 직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선교사’의 자격으로 성례를 베풀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주의 환상을 체험한 후 직가(直街)에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으며(9:1-18; 22:16), 그리스도인(특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 되었다.

여기서 바울에게 세례 준 아나니아는 ‘제자’로만 언급되어 있는데, 사도나 선교사도 아닌 평신도이었던 그가 어떻게 세례를 줄 수가 있었겠는가? 그것은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시킨 교사의 자격, 즉 오늘날의 신학교의 교수로서 성례를 집행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세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베드로)의 선입관(유대인 선민의식)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보자기 환상(9절 이하)을 통하여 먼저 암시하신 다음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다. 그런데 로마의 군인이며 세례도 받지 아니한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에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강림하여(44절 이하) 방언을 말하고 주를 높임(46절)을 보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을 금하리요”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47-48절).

이 사건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물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약속의 예외의 경우로서 이방인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가리킨다. 또 다른 하나는 이미 성령을 받았음에도 물로 세례를 받게 함으로서 물세례의 중요성을 나타내었다고 보여진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이미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자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후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

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5-7절) 라고 기록되었는데, 이는 세례는 한번만 받는 것이 원칙이나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라 할 수가 있다.

로마서(6:3-5)에서는 세례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죽고 장사되고, 또 다시 산다는 의미를 지닌 성례로 설명하는데, 특히 장사 됨은 죽은 몸(시체)을 땅속에 묻어야 하는 것처럼 세례의식은 몸을 물속에 잠가야 하는 침수례를 강조하는 것임을 확인하게 한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10:2) 라고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을 세례로 설명하고 있다. 그 후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다음의 광야는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교회를 의미한다(행 7:38).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하늘의 양식인 말씀과 성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태어난(세례) 후에 먹게 되는 영적인 양식이며, 생명의

230 세례신학

양식임을 가리킨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3:27) 하여 로마서 6장에서와 같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한 몸)가 되어 마치 그리스도로 옷(제복) 입음과 같아서 성도들이 그의 외적인 생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함을 가르킨다.

에베소서(4:3-6)에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교훈 가운데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4:4) 하면서 “세례도 하나요”(4:5) 하였다. 이는 로마서 6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세례가 그리스도와 하나(한 몸)가 되는 거룩한 예식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세례의 수를 ‘하나’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세례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重生]의 방법으로 세례 받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강조로 볼 수 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란 그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 12절은 로마서 6장 4-5절과 같은 말씀으로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며 그 결과로 죄인이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디도서 3장 5절은 구원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요 3:5)과 같다고 이해된다.

히브리서에는 “세례들”(6:2) 혹은 “여러 가지 씻는 것”(9:10)이라고 세례에 대해서 복수적인 기록이 있다. 이것은 다만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 또는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함께 생각한 복수적인 표현이지 “... 세례도 하나요”(엡 4:5)라는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것은 아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세례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의미에서 설명하였다.

요한서신 및 계시록에는 세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고 물과 피의 관계로 세례의 의미를 설명한다(요일 5:6-8, 계 6:14; 22:14).

초대교회 시대의 세례

오순절부터 1세기까지 초대교회는 세례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입하는 데에 필요한 의식으로 생각하였으며, 세례를 성령이 주시는 줄로 알았고, 그 방법은 침수례(Immersion)가 정례로 된 것이 확실하다.

2세기경에는 침례의식으로 재생의 과정을 형식상으로 완성되었음이 아래의 세 문서로 확인된다. 침례에 선행되는 요구 조건이 회개와 믿음이었지만, 실제적인 죄의 용서가 어느 의미로는 침례에 관계된다는 견해로부터 차츰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믿음이 표면화가 되었다.

첫째, 바나바의 서신(The Epistle of Barnabas, 119년경)은 “우리는 정말로 죄와 허물로 인해 물속에 잠겨야 하지만, 다시 열매를 맺으면서 올라와야 한다.”

하였다(Alexander Roberts & James Donaldson, *The Ante-Nicene Father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25, I, 144).

둘째, 140년경의 허마스(Hermas)의 글에서는 “그리고 그 인침은 물이다: 그들은 물속에 잠겨서 죽고, 또 그들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난다.”고 하였다(Ibid., II, 49).

셋째,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 100-165)의 제일 변증서(First Apology, 150년경)에는 “그들은 우리에게 이끌리어 물 있는 곳으로 왔으며,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 그들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로 되어 있다(Ibid., I, 183).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세례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역사가 유세비우스(Eusebius, 260?-339, 5, 30?)가 신약 외경에 포함시킨 ‘12사도의 교훈’(Didach, διδαχή, The Teaching of the Twelve Apostles)이 있는데, 원제목은 “열두 사도에 의하여 이방인에게 준 교훈”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으로는 1부(1-6장): 도덕적 교훈과 두 길,

234 세례신학

2부: 교회의 전례(7-8장 세례와 금식, 9-10장 성만찬과 공동식사의 감사), 3부: 교회의 규범(11-13장 예언자와 사도들의 교훈/방문을 받아들이는 방법, 14-15장 주의 날 및 감독과 집사의 임직), 4부(16장): 종말관(예수 내림) 등이다. 그 7장 1-4절에서 세례의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Philip Schaff, ed., *Teaching of the Twelve Apostles*, Edinburgh: T & T Clark, 1896, 184ff):

침례를 이렇게 주라: 흐르는 물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하라. 그러나 만일 흐르는 물이 없으면 다른 물에서 침례를 주되, 찬물에서 줄 수 없으면 더운 물에서 하라. 그러나 이러한 물도 없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머리에 세 번 부으라.

3세기 초(? 230년경)에 전체 국민들이 타락되어 가면서 인류의 죄가 유아들에게 미치게 된다고 해서 결국 유아침례(Infant Baptism)의 교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의 성서적 배경으로는 긍정적 암시(고전 7:14, 골 3:20, 엡 6:1, 행 16:15,...)와 부정적 암시(눅 13:3, 엡 4:1, 롬 6:13)가 함께 있다.

이 유아침례를 오리겐, 키프리안, 어거스틴 등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Origenes, 185?-254?)은 유아침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설명하였고(Jacques Paul Migne, *Patrologiae Cursus Completus*, Paris: Migne, 1844, V, 15). 키프리안(Cyprian, 200?-258)은 카르타고(Carthago)에서 있었던 66명의 감독회의(257년)에서 유아침례를 인정하였다(Donaldson and Roberts, op. cit., V, 353f). 그리고 어거스틴(Augustine, 354-430)을 중심으로 해서 북아프리카로 점점 번져서 4세기 말까지 유아침례가 보편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저스티니안(Justinian, 483-565) 황제(527-565 재위)가 전 동방에서 그것을 의무적 행습으로 칙령 내렸던 529년까지는 강요되지 않았었다(Wolfred Nelson Cote, *The Archaeology of Baptism*, London: Yates & Alexander, 1876, 120).

유아침례를 반대한 터툴리안(Tertullian, 150/60-220?)은 유아침례는 부당하다고 논문을 썼다(Roberts & Donaldson, eds., *The Ante Nicene Fathers*, III, 677f). 그는 어린이 스스로가 침례를 요구하기 전에는

236 세례신학

그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을 네 가지 조건을 근거로 해서 반대의 충고를 하였다: 첫째, 유아들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만한 필요성이 없다. 둘째, 침례란 성인들만 이행되어야 할 만큼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셋째, 침례를 받은 후의 죄는 보다 과중한 죄를 그에게서 들어내게 한다. 넷째, 유아 침례는 후견인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책임을 지우게 된다.

근대의 스위스 신학자 바르트(K. Barth, 1886-1968, *An Illustrated Encyclopedia of the Bible*, vol. 6, 422)도 유아침례를 반대하는 말을 했다:

유아침례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크게 방해한다. 그것은 교회의 몸에 입힌 상처이며, 침례받은 이들을 약화시키는 일이고, 독단적 횡포이며, 전혀 성서적 뒷받침이 없는 의식이다. 그리고 부모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은 별개의 것이다.

3, 4세기에 침례의 방법과 침례 자체에 다소 변화가 생겼는데, 삼중 침수례와 임상침례 및 침례조의 등장과 축신례의 포함 등이다.

그 당시 터툴리안(Tertullian)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으로 삼중 침수례(Trine Immersion)를 하고, 어거스틴(Augustine)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3일 후 부활의 뜻으로 삼중 침수례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James Christal, *A History of the Modes of Christian Baptism*, Philadelphia: Lindsay and Blackiston, 1861, 75).

사도법전(Apostolical Canon, 교인의 의무 85규범 - 의식, 징계 문제)에도 다음과 같이 침례를 강조되고 있다(Migne, Apostolical Canon, III, i, 798f):

만일 어떤 감독이나 장로들이라도 침례를 줄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한 번만 침례를 주고 삼중 침례를 주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은 자기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죽음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시지 않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정통과 신학자들은 아리안(Arian) 논쟁에서 삼중 침수례를 크게 권장하였고, 동방의 이단자들(Eunomians)은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대에게

238 세례신학

침례를 베푸노라.”는 형식을 사용하여 단회 침수례를 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Eusebius)의 기록에 의하면, 최초의 약식세례는 로마교회의 감독이었던 패비안(Fabian)이 병중에 있던 노바시안(Novatian)이라는 교인에게 침례 대신에 적례(滴禮)를 행한 것인데, 그 해가 251년이였다. 이것을 관수례(灌水禮, Aspersion), 또는 임상침례(臨床浸禮, Clinic Baptism)라 불렀다.

한편, 유아들에게는 살수례(撒水禮, Sprinkling)로 침례를 대행한 것 같다.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을 때에 침례를 위해서 지하 무덤(the Catacombs)에다 침례조(浸禮槽, Baptistry)를 만들게 되었다. 이것이 시초가 되어서 교회의 건물에 침례조를 만들게 된 것이다. 실제로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의 성 소피아(St. Sophia) 교회는 예배당 옆에 ‘The Great Illuminatory’라 불리우는 침례조가 붙어 있었다.

이때에 침례 대상자로부터 악귀를 쫓고, 악귀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축신례(逐神禮, Exorcism)를 행하게

되었는데, 그 방법은 동향을 향하고 침례 대상자의 머리 위에 숨을 내쉬며, 기름과 젖과 꿀을 바르고, 소금을 입에 넣으며, 눈과 콧구멍에 침을 발랐다.

키릴(Cyril of Jerusalem, 315?-386)은 “이 축신례를 거친 기름은 하나님의 기원과 또 기도에 의해서 죄의 흔적을 불태우고 깨끗이 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귀의 모든 세력을 몰아내는 효력을 지니게 된다.”고 말했다(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Catech, Lectures, On the Mysteries, Grand Rapids: W. B. Eerdmans Pu. Co., 1955, I, 147).

중세기의 세례

633년에 동방에서는 스페인의 톨레도(Toledo) 회의에서 교황(Gregory)의 견해, 즉 삼중 침수례가 편의상 단번 침수례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반대하였고, 툴리안(Trullian) 회의(692년)에서 삼중 침수례법을 재 발표하였다. 정통파에서는 스페인의 아리안(Arians)과 구별하기 위해서 단번 침수례를 공포하였다.

이렇게 하여서 700년 경까지 동방의 교회에서는 삼중

240 세례신학

침수례가, 서방의 교회에서는 삼중 및 단번 침수례가 행해지고 있었다. 이때에 4세기 이후에 생긴 침례조, 혹은 성수반(聖水盤, Fonts, ‘샘’)이 공식화되었다.

754년에 불란서의 브리태니(Brittany) 교회의 “병든 아이에게 침례를 주는 경우에 손이나 컵으로 머리에 붓는 것이 옳습니까?”라는 질문에 교황 스테파누스 2세(Stephanus II)가 “무방하다”고 대답하였는데, 이것이 최초의 약식세례의 법이었다(John S. Miller, *The Baptist Times*, "The Baptisteries of North Italy", July, 18, 1957, No. 5335, C, III, 1).

789년에는 황제 샬레망(Charlemagne)이 유아침례법을 제정하였는데(R. Robinson, *The History of Baptism*, 261-266), 이 프랑크 왕은 점령지 주민들에게 침례와 칼 둘 중 택일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유아들의 침례가 보편화됨에 따라 편리하지 못하다 생각하여 관수례가 행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침례는 잠기는 것이라는 사실과, 또한 물에 잠기는 것이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되었다.”(Ibid., 379).

그러한 후 쾰론(Cologne) 회의(1280년)에서 관수례는 침수례를 전혀 받을 수 없을 때에만 허용한다고 공포

하였으며, 니스메(Nismes) 회의(1284년)에서 “만일 유아들을 침례시킬 수 없을 만큼 물의 양이 충분치 못할 때에는 약간의 물을 유아의 머리에 부어도 된다.”는 규례를 만들게 되었다(Quoted in Chrystal, *The History of Baptism*, 103f).

1311년에 라벤나(Ravenna) 회의에서는 “침례란 삼중 관수례, 혹은 침수례로 행하여야 한다.”고 제정하였고(Ibid., 105), 결국에는 1356년에 관수례 혹은 살수례의 허용이 법으로 공포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1534년에 앙그리칸 교회가, 1541년에 장로교회가, 1664년에는 영국교회 등이 약식세례의 법을 발표하여 이 방법이 확산하기에 이르렀다.

종교개혁 이후의 세례

종교개혁 시대의 동방교회는 삼중 침수례를 행하였고, 서방교회는 침례의 방법이 다양하였다. 그 실례로 독일에서는 전신 침수례(imersio), 머리만 물에 잠그는 것(infusio), 머리에 물을 붓는 것(superfusio) 등의 세 가지 침례 방법이 있었다(C. M. Jacobs & Others,

trans., *Work of Martin Luther*, Philadelphia: A. J. Holman Co., 1915, VI, 203).

루터(Martin Luther, 1483-1546, 독)는 침례에 관한 논문(A Treatise on Baptism, 1519)에서 침례의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침례란, 희랍어로 βάπτισμος 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라틴어로 ‘mersio’ 이며, 그 뜻은 ‘무엇을 물속으로 완전히 가라앉혀서 물이 그것을 덮어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 곳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침례를 주기 위하여 침례기 속으로 밀어 넣는 일이나 가라앉히는 습관이 없고 다만 침례기에 물을 떠서 어린 아이들에게 부어주지만, 그러나 본래의 행습이 반드시 시행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Taufe’라는 단어의 뜻에 따르면 어린 아이나 혹은 누구든지 침례를 받는 사람은 물속에 완전히 가라 앉았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 침례란 옛사람과 죄많은 혈과 육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장사되어야 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는 의미가 한층 더 깊은 것이다.

쯔빙글리(Huldrych Zwingli, 1484-1531, 스위스, S. M. Jackson, ed., *The Latin Works & the Correspondence*

of Huldreich Zwingli, "Commentary on Epistle to the Romans", New York: G.P. Putnam's Sons, 1912-29, IV, 420) 는 침수를 찬성하여 로마서 6장 3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너희가 믿음으로 침례받는 물속에 침수될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해지는 것이며,
너희 몸이 물속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으로 마땅히 연합되어야 함을 표시하는
것이다.

칼빈(John Calvin, 1509-1564, 불)은 침례를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또한 유일한 은혜의 수단으로 보았다. 그는 "사람이 완전히 침수되든지 아니면 뿌리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교회들도 이 점에서 나라에 따라 자유롭게 달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침례라는 단어는 잠기는 것을 의미하며, 침수례가 초대교회의 행습이었음이 분명하다." 하여 침례의 방법은 아무래도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John Allen, trans., John Calvin's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2 vols., 1949, 599).

이러한 칼빈의 이론은 신교 종교개혁에서의 중요한

244 세례신학

영향을 주어서 살수례(撒水禮)가 전 유럽에 퍼지게 되었다.

이 시대에 꼭 세례의 문제로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재침례파(再浸禮派, Anabaptists)이다. 이들의 명칭은 유아침례를 반대하고, 성인이 되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다시 침례를 받아야 온전한 신자가 된다는 주장에서 유래되었다. 이 주장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재침례파’라고 불리어지게 되었지만, 이들 자신은 ‘제자들’, ‘그리스도인’, ‘형제들’ 등으로 불렸다.

재침례파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NT)만이 교회생활의 유일한 표준이 되며, 신자 개인에게 그 해석권이 주어져 있다. 둘째, 국권(國權)이 교회를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전쟁과 폭력을 반대한다. 셋째, 교회의 순수성 보전을 위하여 침례규율이 있으며, 유아침례는 비성서적이고, 그 방법은 침수례 이어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제자이면 누구나 침례를 줄 수가 있다. 넷째, 개교회가 그의 목회자와 직원을 선택할 권한이 있다. 다섯째, 성도가 국가의 관리가 되는 것과, 법정의 사형선고를 반대한다. 여섯째, 교회의 재산은 공동으로 소유, 관리하여 유무상통하여야 한다.

재침례파는 구교(Catholic Church)와 개신교, 양쪽의 심한 박해로 인해 거의 말살되다시피 되었지만, 근래에 와서 이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침례교회에서는 자기들의 모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16세기에 독일, 화란, 스위스 등지에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자고 외쳤던 환원운동가(還元運動家)들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제는 근대교회의 세례에 대해서 침수례를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의 노력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래 메노나이트 교회(Mennonites)의 배경을 가졌다가 조직적인 성경공부의 모임으로 발전시켜서 17세기 중엽에 폴란드(Polland) 전역에 침례운동을 확산시켰던 콜리지안(Collegiants)의 침례에 대한 기록(1736년)에 의하면 침례식의 자세한 절차를 알 수가 있다:

수침 대상자는 토요일 아침에 침례식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한다. 그리고 침례의 우수성과 본질에 대한 말씀이 있다. 주례자와 수침 대상자는 교회 건물 뒤에 있는 못으로 같이 간다. ... 그 못에서 침례를 받는데, 만일 남자가 양복 조끼나 잠방이를 입었다거나, 여자가 속치마를 입었으면 보기에 흉하지

246 세례신학

않도록 겉옷으로 잘 감싸야 한다. 주례자는 … 물속에서 수침 대상자를 물속으로 가라앉히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집행했던 형식과 같은 선언을 하면서 예식을 집행한다. …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옷을 갈아입고 다시 모여서 끝까지 인내하라는 권고의 말씀을 듣고, 공중 기도가 있는 후에 찬송이나 혹은 성가를 부른다.

영국의 회복운동으로는 분리주의자들(Separatists)이 612년에 시작한 영국 일반침례교회(English General Baptist Church)가 있는데, 그들의 첫 번 신앙고백서(The First General Baptist Confession)의 “30교회의 신앙과 행습”(The Faith and Practise of Thirty Congregations, 1651)에서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러했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침례의 방법과 양식은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것이다.” 하였고, 1654년의 신앙고백서에도 “반드시 물속에 잠겨야 된다.”고 하였다.

독일의 침례운동은 18세기 초에 경건주의자들 중에서 침례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침례를 재 발견하고 재설정하였던 던커파(Dunkers)가 있었는데, 이들은 ‘형제운동’(Brethren Movement), 또는 ‘독일

침례파’(German Baptist Brethren) 라고도 한다. 그들은 신조 같은 것들을 반대하였지만, 교회에 관한 ‘고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고,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서 화란과 스위스 및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미국의 침례교단들은 다음과 같다. 19세기에 침수례를 시행한 교단 중에서 가장 컸었던 멘노나이트 형제들(Mennonite Brethren in Christ)과 그 후신인 연합선교교회(United Missionary Church) 등은 단회 침수례를 사용하였다.

버지니아(Virginia) 주 북 캐롤리나(North Carolina)의 채플 힐(Chapel Hill)에서 1794년에 제임스 오켈리(James O’Kelley, 1735-1826)에 의해서와 1809년에 펜실바니아(Pennsylvania) 주에서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 1763-1854)과 그의 아들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 1788-1866)의 지도하에 시작된 Christian Church(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고 캔터키(Kentucky)에서 1904년에 스톤(Barton W. Stone, 1772-1844)에 의해서 생긴 Church of Christ는 단회 침수례를 시행하였다.

펜실바니아(Pennsylvania) 주에 왔던 독일 교인들은

248 세례신학

1830년에 윈브렌너(John Winebrenner)에 의해서 ‘The Church of God’(Winebrennerians)를 조직하였으며, 그리고 펜실바니아의 경건파들인 리버 형제들(River Brethren)과 그리스도의 형제들(Brethren in Christ)에서는 1842년 이후 삼중 침수례에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 외 침례 지지자들 중에는 물몬교(The Later-Day Saints)와 여호와와의 증인(Jehovah Witnesses)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회랍정교회(The Eastern Church)는 어디에서나 삼중 침수례를 행하고 있다.

4

세례의 실제

본 장에서는 세례식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 대상자와 주례자, 그리고 세례 의식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아본다.

세례의 대상자

세례의 대상자는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세례를 주느냐? 라는 실제 문제에 대해 그 해답을 찾아보자.

어떤 교단에서는 교회에 6개월 이상 출석한 자들에게 학습(學習)을 주고, 그 후 다시 6개월쯤의 세례 문답 공부의 기간을 거쳐 합격한 자들을 세례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앙고백의 진정성을 강조하여서 교단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성인의 나이인 18세 이상 된 자에게 세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제한들을 두지 아니한다. 복음(설교)을 듣고 혹은 성경공부를 통해 깨달은 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자에게 즉시 세례를 베푸는 경우가 있음을 사도행전의 기록(행 8:12; 30-38; 16:14-15, …)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의 출석 기간에 관계 없이, 또는 성경공부를 하였는지 아니 하였는지 그가 복음을 들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면 세례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믿음을 공중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세례의 주례자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안수를 받은 목사(목회자)만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 및 12사도들과 바울이 세례를 주었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의 담임자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가 세례를 줄 수 있음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목사가 아닌 전도사 등이 교회의 담임자일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본다. 전도사를 담임자로 세워 그가 교회를 치리하고 가르치는 권한이 있어서 설교를 하고 있다면, 그의 설교를 들은 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그 교회의 교인에게 그가 세례를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할까? 다시 말해서 개교회의 담임자는 (그가 목사나 전도사의 구별이 없이) 세례를 줄 수가 있어야 한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여 믿는 이들에게 세례를 주었으며(12절),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다(38절) 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빌립은 집사로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26절) 복음전도자(21:8, 선교사)로서 세례를 준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선교사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세례도 줄 수가 있어야 하겠다.

다음은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개종할 때에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다시 보게 하였고 세례를 주었다. 여기에서 아나니아를 ‘제자’ 즉 평신도로 언급

하고 있는데(10절), 그가 사울을 아라비아에서 3년을 교육한 것(갈 1:17-18)에 의해 아나니아는 신학교 교수(교사)로서 세례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신학교 교수, 즉 주의 사역자들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의 교사들도 세례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세례식은 개 교회를 담임한 목회자 및 선교사와 교역자 양성기관(신학교)의 교수 등이 그 집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지도자가 없을 경우에는 먼저 세례받은 성도들 중에서 주례할 수 있다 하겠다.

세례식

세례의 때

어떤 교회에서는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에 세례식을 연례행사처럼 하고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듯 보이나, 세례의 때가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세례의 조건이 복음을 듣고 믿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복음 선포, 즉 설교

후에는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고 신앙을 고백한 자들에게 즉시 세례를 주는 것이 성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교회는 주일마다 설교가 끝난 뒤에 초대 찬송(혹은 결단의 시간)에 믿음을 고백할 교인들을 초청하여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고, 고백자가 있을 경우엔 바로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예배당 안에 침례탕을 만들어 놓는 등 세례식의 준비를 갖추어 놓고 예배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세례의 방법

세례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다루어졌다고 생각되나 간단하게 다시 말한다면, 그 용어와 의미에서나, 또 성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침수세례(浸禮)가 그 방법이다.

세례의 용어와 그 의미적으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세례는 죽음과 장례를 뜻하는 몸을 물에 잠그는 방법이 가장 그 용어에 합당하다.

성서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받으신 세례(마 3:16, 막 1:9-10),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254 세례신학

베룬 세례(행 8:36-39)가 침수례이었다. 특히 로마서 6장 3-5절에서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이곳의 ‘장사’(葬事)는 시체를 무덤에 매장하는 일로 이것은 수장(水葬), 즉 몸을 완전히 물속에 잠그는 것을 가리키며, 침례를 말함이다.

역사적으로도 이미 살펴 본 바 임상(병자) 침례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침례가 세례의 방법인 것을 발견하였다. 다만 인간의 편의주의로 말미암아 약식 세례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세례식 절차

세례식의 절차로는 먼저 신앙고백을 받은 후 주례자와 대상자가 함께 물에 들어간다(이때 다른 교인들은 찬송을 부른다). 주례자가 오른손을 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OOO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고 대상자를 뒤로 젖혀서 물속에 완전히 잠갔다 일으킨 다음 함께 물에서 나온다(이때에도 교인들이 찬송을 불러준다). 옷들을 갈아입은 후에 세례자(중생한 자)에 대한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세례받은 자들의 생활에

대한 권면을 듣게 한다. 이때에 세례자가 주일성수(성만찬에 참여)를 해야 하며, 성경 말씀을 읽는 등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경적인 설명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세례식 후에 바로 다른 교인들과 함께 성찬식에 참여토록 한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혹은 축도)로 세례식을 끝낸다.

V

성찬신학

聖餐神學

THE

HOLY COMMUNION

V. 성찬신학

1. 성찬의 개념

성찬의 명칭 · 259

성찬론 · 262

2. 성찬의 의미

유월절의 뜻 · 267

식사의 뜻 · 268

언약의 뜻 · 271

예배의 뜻 · 272

그 외의 뜻들 · 274

3. 성찬예식

성찬의 준비 · 277

성찬의 행위 · 279

1

성찬의 개념

성찬이란 무엇인가? 그 개념을 알기 위해서 명칭들을 알아보고, 성찬에 대한 여러 학설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겠다.

성찬의 명칭

주의 만찬(晚餐, Lord's Supper, κυριακὸν δεῖπνον)

이 명칭은 사도 바울(Paul)이 붙인 것으로 고린도 전서 1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개인적인 만찬과 구별하는 의미(고전 11:21)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계 19: 9)와 관계됨을 표시한다(cf. 마 26:29, 막 14:25, 눅 22:16).

고문서(papyrus)나 명각(銘刻)에 의하면, ‘만찬’(晚餐, δεῖπνον)이란 단어는 본래 이교의 제의적 식사에 사용되었었기 때문에 초대 교부들이 즐겨 쓰지 않았다.

교부 클레멘스(Clemens of Alexandria, The Instructor, II, ii, 33)와 히포리투수(Hippolytus)는 만찬이란 용어 대신에 ‘애찬’(愛餐, Agape, Ἀγάπη)이라 하였다고 전해진다(Apostolic Tradition, XXVI, 5).

원래 이 애찬은 교회의 성장에 따라 주의 만찬에서 분리되어 교제나 사랑을 베풀기 위한 목적으로 격식이 없이 교회에서 행하였다. 분리된 처음에는 성찬의 뒤에 애찬을 두다가 한 때에는 아침에 성찬을, 저녁엔 애찬을 행하였다. 4세기 말쯤에는 애찬을 각 가정에서 하게 되었는데(cf. 행 2:46, 고전 11:34), 그 후에는 가정에서도 이 애찬이 사라진 것 같다.

성만찬(聖晚餐, Holy Communion)

이 명칭은 아래의 고린도전서 10장 16-17절의 말씀 중에서 ‘참여’(參與, κοινωνία)에 근거를 두며, ‘교제’, 또는 ‘친교’를 강조한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만찬(晚餐, Eucharist)

이는 본래 예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 하시다”(마 26:27, 막 14:23, 눅 22:19)란 말씀에서의 ‘감사’ 혹은 ‘사례’(謝禮, εὐχαριστία)에 중점을 둔 명칭이다. 디다케(Didache)에 의하면 2세기 이후의 저자들, 즉 잉나티우스(Ignatius, ?-110), 유스티누스(Justinus, 100-165), 이레내우스(Irenaeus, 140?-200?) 등은 ‘사례’보다 ‘성찬’이란 명칭을 더 즐겨 사용하였기 때문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떡을 땀(breaking of Bread, κλάσει του ἄρτου)

이 명칭은 사도행전 2장 42절과 20장 7절 및 고린도 전서 10장 16절 등의 성구에 근거를 둔다(cf. 눅 24:35). 이 행위는 “...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눅 22:19)는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행하여졌던 것이 분명하다.

성례(聖禮, Sacrament)

성만찬을 그냥 ‘성례’ 혹은 ‘성찬성례’(μυστήριον)라고도 하는데, 이 명칭에 대하여서는 이미 “성례전의

용어”에서 언급하였다.

성찬론(聖餐論)

희생설(犧牲說)

이것은 초대교회의 견해로서 성만찬이 저녁 식사를 겸하였기(주께서 유월절 저녁 잡수실 때에 제정하심) 때문에 식탁의 음식물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성찬의 식탁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당하신 것을 의미하여 붙여진 것으로 본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찬의 재료를 교인들이 가정에서 가져왔고, 이것을 제물 또는 희생물이라 하였다. 이렇게 성만찬이 곧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 교부들이 희생설로 말하였는데, 유스티누스(Justinus)는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보통 말하는 그러한 떡과 포도주로 받지 아니 한다.” 하였으며, 이레내우스(Irenaeus)는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드리는 희생제물이다.” 하였고,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54-430)도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신앙의 식사이다.” 라고 하였다.

화체설(化體說, Transubstantiation)

화체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견해로서 사제가 축사하면 떡과 포도주가 그 본질이 변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육체적인 강림)는 것으로 “내 몸이니라”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이 견해는 2세기부터 싹트기 시작하였으나, 크릴스(Krilles of Jerusalem, 315?-386)가 제일 처음 주장하였고, 화체설로는 604년에 그레고리우스 교황(The Great Gregorius, 540?-604)이 선포한 미사전문(Canon of the Mass)에서 나타난다. 이것을 교리로 체계화시킨 사람은 요한(John of Damascus)이었으며, 1215년 제4회 라테란(Lateran) 회의에서 교의로 채택되었다.

공재설(共在說, Consubstantiation)

종교개혁기의 루터(M. Luther, 1483-1546, 독일)의 견해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와

융합되는데, 이때 두 상이한 실체가 공존하여 있다는 것, 즉 떡과 포도주 ‘아래’, ‘안에’,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떡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다고 한다.

상징설(象徵說, Symbolism)

종교개혁가 쾰링글리(H. Zwingli, 1484-1531, 스위스)의 견해로 화체설의 정반대의 학설이다. 초대교회의 안디옥파도 이 주장을 하였었는데, 이 상징설은 떡과 포도주는 변하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루터와 쾰링글리는 그 둘의 개혁사상이 모두 (14항) 같았으나, 마지막(15항)의 성찬론에서 서로 달라 결국 갈라서게 되었는데, 이것이 개혁교회의 최초의 분열이었다.

영재설(靈在說)

칼빈(J. Calvin, 1509-1564, 프랑스)은 쾰링글리와 루터를 화해시키려 하여 그 둘의 성찬론의 중간 입장인 영재설을 생각해 내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임재는

육체적 또는 장소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으로 서로의 양보를 권했지만, 둘 다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또 다른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 칼빈에 의하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으로 받는 수찬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공로와 효과가 전달된다는 것이다.

기념설(記念說, Commemoration)

성만찬을 제정하여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눅 22:19, 고전 11:24; 25) 고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을 견해로 하자는 성찬론이다.

2

성찬의 의미

본 장에서는 주의 만찬에는 어떠한 뜻들이 담겨져 있는가를 살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유월절의 뜻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가 유월절 절기였다 (마 26:17-30, 막 14:12-26, 눅 22:7-20). 이는 성찬이 유월절과 관계가 있음을 뜻한다.

유월절(逾越節, Pass over, $\pi\acute{\alpha}\sigma\chi\alpha$, $\Pi\alpha\sigma\chi$)이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절이며, 종교적으로는 만배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출 12:14; 17)처럼 성찬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성도들이 죄악 세상에서 해방된 것과 유월절 양(눅 22:7, 고전 5:7)처럼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속하심을 기념하는 잔치인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와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지니라.” 말씀하시었다. 이 유월절을 여호와와 절기로 지키는 것은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본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예수께서 성만찬에 포함시키셨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규례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다.

식사(食事)의 뜻

주님께서 성찬의 제정하실 때에 “그들이 (다 앉아) 먹을 때에”(마 26:21; 26, 막 14:18; 22) 혹은 “유월절 (음식)을 먹음”(막 14:14, 눅 22:11; 15), “저녁 먹음”(눅 22:20), “마시다”(마 26:27, 막 14:23, 눅 22:18) 등의 기록에 의하면 분명히 성찬은 식탁과 관계가 있다.

사람의 구성을 영과 육으로 설명하는 이분설(二分說, Dichotomy, 롬 8:10, 고전 5:5, 고후 7:1, 엡 2:3, 골 2:5, 벧전 2:11, 전 12:7)에 의하면, 인간의 양식은 몸을 위한 땅의 양식(썩는 양식, 요 6:27)과 영을 위한 하늘의 양식이 있다. 여기에서 하늘의 양식은 생명의 말씀을 가리

키며, 이 말씀은 성경에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첫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설명하는 신명기 8장 3절에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있다. 이곳에서의 말씀은 인간을 향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계명)으로 칠십인역(Lxx)에서는 ‘레마’(ῥῆμα)로 번역되어 있다.

이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하신 말씀 ‘레마’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리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힘을 내며 성장하여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영생의 말씀을 먹는 방법은 성경을 읽고(연구), 또 듣는 것(설교 들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듣는 생활을 매일매일 계속하여야 한다.

둘째,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 있다. 이 말씀(λόγος)이 사람이 되셨는데(道成人身, 成肉身, Incarnation, 요 1:14),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270 성찬신학

예수이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하셨고(요 6:48-51), 당신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이를 먹고 마셔야 영생한다고 하셨다(요 6:52-58).

그런데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는가? 육회나 선지처럼 먹기라도 한단 말인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구할 수가 없다. 이것을 미리 아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찬의 떡과 잔이다.

몸을 위하는 음식이 주식과 부식으로 식탁을 차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식탁에도 주식과 부식이 함께 있어야 근사한 식탁이 될 것이다. 목회자들은 하늘나라의 주방장으로서 주일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 식탁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주식(성찬)과 부식(설교)이 함께 준비된 훌륭한 식탁을 배설하므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며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cf. 요 20:31).

이러한 교회의 영적 식탁은 하늘나라의 식탁, 또는 천국 잔치와 연관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cf. 마 26: 29, 막 14:25, 눅 22:18, 계 19:7-9). 이 영의 양식에 대해서는 다음 단원의 ‘성직의 조건’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언약(言約)의 뜻

예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 잔을 가지사 사례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8, 막 14:24) 하셨다.

언약(言約, Covenant; Testament, διαθήκη, ברית)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평화의 의논’(슥 6:13)이라고 하는 속죄의 언약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체결된 은혜의 언약이 있다.

여기에서 은혜의 언약은 죄 지은 인간(罪人)이 죄의 값(죽음)을 의미하는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지 아니한다는 대속의 계약으로 ‘피의 언약’이라고도 한다(히 9:20, 출 24:8, 레 17:11, …).

이 은혜(피)의 언약은 두 단계로 되어 있다.

첫 언약, 즉 옛 언약(舊約, Old Testament)은 짐승의 피로 죄인을 대속하여(히 9:1-; 15; 18, 출 24:8)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새로운 언약 때까지만 그 효력이 있다.

둘째 언약인 새 언약(新約, New Testament)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여 속죄가 이루어진 것(렘 31:31, 시 40:6-8, 히 8:7; 9:12; 15; 26; 10:5; 9:10-12; 18)을 말한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찬의 잔을 가지시고 “...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눅 22:20, 고전 11:25) 하시므로 새 언약이 십자가에서 완성은 되었으나 성찬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셨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지금 그리스도의 피를 구할 것을 생각하여 보라!

예배의 뜻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죄를 해결하여야 한다. 앞서 ‘언약의 원리’에서

이미 다룬 것처럼 그 죄의 해결은 대속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한다. 이 대속의 피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였지만, 신약의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피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구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찬을 제정하면서 포도주 잔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서 맺은 새 언약(눅 22:20, 고전 11:25)이라고 말씀하셨다.

인간 최초의 예배자들로 등장하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땅의 소산(곡식?)으로 제물을 삼은 가인의 제사가 열납되지 아니 한 것은 피가 없었기 때문이며,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린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열납하신 것은 그에게는 대속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가 제사의 핵심인 것처럼 신약 예배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가리키는 성만찬인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이 없는 예배는 참 예배라 할 수가 없다.

그 외의 뜻들

참여(參與), 친교(親交)의 뜻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의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는 말씀에 의한 것으로 첫째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을 의미하고(요 17: 11; 21-26, 벰전 2:9f), 둘째는 성도와 성도가 모두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고전 12:12; 20, 롬 11:36; 12:5, 엡 4:4; 16, 골 3:15).

감사(感謝)의 뜻

주님께서 떡과 잔을 들고 축복 및 감사 기도하셨으며(마 26:26f, 막 14:22f), 축사(祝謝)하신(고전 11:24) 말씀에 의한 뜻으로 즐거워함과 찬양을 의미한다(cf. 마 26:30, 막 14:26).

전도(傳道)의 뜻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는 말씀에 의한 뜻으로 성도는 예배(성찬), 기도,

찬송 등의 모든 신앙생활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자들임을 가리킨다.

자기 살핌의 뜻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고전 11:28) 하신 말씀에 의한 뜻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전 11:29)는 말씀과 같이 회개와 성찰(省察)로 자기를 살피야 할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기념(記念)의 뜻

주께서 “...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눅 22:19, 고전 11:24f) 말씀하신 것에 의한 뜻으로 성육신, 수난의 생애, 죽으심, 부활, 승천, 우편 재위, 재림 등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기념함이 포함된다.

3

성찬 예식(禮式)

본 장에서는 주의 만찬을 어떻게 예식으로 거행할 것인가를 그 준비와 행위로 알아보기로 하겠다.

성찬의 준비

마태복음 26장 19절(막 14:16, 눅 22:13)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는 말씀과 같이 성만찬 예식은 준비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재료의 준비

성만찬의 재료들은 떡과 포도주인데, 먼저 떡은 주님께서 유월절 잔치의 식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심과 관련하여 유월절 떡, 즉 무효병(無酵餅, 출 12:8; 15)을 한 덩이로 하되 가급적 주일날 아침에 구어서 떡그릇에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포도주는 포도의 철에 담아 발효되지 않도록 보관하여 두었다가 주일마다

성찬기에 따라서 준비한다.

성찬의 참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보면,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고전 10:2), 광야를 지남은 교회의 생활로(행 7:38), 그리고 만나를 신령한 음식으로(고전 10:3-4) 해석하는 말씀에 의하여서 성찬의 식탁에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즉 세례를 받은 자들이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그 준비에 있어서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를 살피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전 11:29)는 말씀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만찬 예식의 집례는 세례식의 집례자와 같이 개교회의 담임자, 선교사, 신학 교수 등이 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것을 교회의 ‘성례권’(聖禮權)이라 한다.

성찬의 행위

성찬예식 가운데에는 다락방에서 취하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행위를 상기시키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있다.

봉헌(奉獻)

“... 예수께서 떡(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
라는 말씀(마 26:26; 27, 막 14:22; 23, 눅 22:19) 과 일치
하는 행위인데, 이는 예배 전에 성탁(聖卓) 위에 떡과
잔을 준비하는 것으로 대치되기도 한다.

축사(祝謝)

집례자가 떡을 들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감사
(사례)와 축복함이다. 이 축사하기 전에 성찬 제정의
말씀(마 26:26-29, 막 14:22-25, 눅 22:19-20, 고전
11:23-29)을 봉독하기도 한다.

분병(分餅)

손으로 하는 행위로서 “...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마 26:26, 막 14:22) 는 말씀처럼 떡을 떼어 먹게 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양식이 우리를 위해서 파괴되고 희생되는 것을 상징한다.

감사기도

떡을 나눈 후에 주님께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마 26:27, 막 14:23) 하신 말씀에 따라 포도주 잔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서를 말하는 것으로 떡을 들고 하는 ‘축사’와 같다고 하겠다.

배찬(配餐), 수찬(受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마 26:27, 막 14:23) 하신 대로 잔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받아 마시는 행위이다. 이 배찬의 시간에 성찬 찬송이 불려지거나 독창이 포함될 수도 있다.

VI

성 직 신 학

聖職神學

THE

HOLY ORDERS

VI. 성직신학

1. 성직의 조건

거듭남 · 283

기도생활 · 285

영의 양식 · 287

2. 성직의 내용

그리스도의 성업 · 295

교회(교인)의 성직 · 301

교회의 직원 · 305

3. 성직의 원리

몸의 원리 · 311

교회의 조직 · 316

4. 성직의 임직

장로(감독)의 자격 · 324

집사의 자격 · 330

임직식 · 332

1

성직의 조건

우리의 몸[肉體]이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다. 먼저 살아 있어야 하며, 다음엔 호흡에 장애가 없어야 하고, 그리고 활동이나 일하기에 필요한 힘(Energy)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육적인 조건들과 같이 영적으로도 거룩한 하나님의 일(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다. 그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은 영적 출생으로서의 거듭남, 영적 호흡인 기도의 생활, 영적인 양식의 섭취 등과 같은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다.

거듭남

죽은 몸[屍體]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 역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영적인 일)을 하려면 먼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한다. 이것을 신약성서는 ‘성령으로 태어남’ 혹은 ‘거듭남’[重生]이라고 하였다(요 3:6f).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가운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며”(요 3:3), “... 들어갈 수도 없다.”(요 3:5) 고 말씀하시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에게 하늘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한다고 하셨다(요 3:12).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역시 예수께서 하신 “...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요 3:5)는 말씀에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함을 알 수가 있다. 즉,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씀이다.

여기에서 거듭남을 두 가지의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육신으로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난 후에 교회에 출석하여 말씀을 듣고 믿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 둘째는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될 때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졌으나, 타락함으로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빠졌다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잃었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부여받음, 즉 영적인 태어남(중생)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약속(행 2:39) 되어 있다.

그러므로 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곧 성령의 선물을 받고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서 이 세례를 받은 자가 하늘나라의 일(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직분들을 세례받은 교인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기도생활

사람이 살아만 있다고 해서 누구나 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조금만 힘든 일을 하여도 숨이 차는 사람, 즉 호흡장애나 호흡곤란의 증세가 있는 사람은 힘든

일을 할 수가 없다. 만약 그러한 사람에게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육적인 사실을 영적으로 설명하자면,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호흡이 곤란한 성도는 혹시 육체의 일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적인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호흡이 곤란한 자는 누구일까? 그는 기도의 생활을 계속하지 못하는 교인을 가리킨다고 보겠다. 영적 호흡이 바로 성도의 기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숨 쉬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것처럼 성도는 “...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엡 6:18),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 하셨으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 고 하셨다.

세례를 받은 후 꾸준히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이야말로 정말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가운데에서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주의 일을 맡겨야 할 것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영의 양식

살아 있고, 호흡의 장애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음식을 잘 먹지 않는다면 그 역시 힘든 일을 할 수가 없다. 우리의 몸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당한 힘 [熱量, energy]이 있어야 하며, 그 힘은 먹는 음식물로 충당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몸도 역시 영적 양식, 즉 하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힘을 낼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성도가 진리의 양식을 못 먹으면 세상을 못 이기고, 죄를 못 이기고, 옛사람을 못 이기게 되어 결국 전도, 승리, 봉사와 바른 충성을 못 하게 된다.”(황규애, 「청지기교육」, 교회교육원, 1989, 20).

그리스도인이 먹고 힘을 얻어야 하는 하늘의 양식, 즉 영의 양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고 일할 힘을 얻는다. 그런데, 세상의 음식물이 주식과 부식으로 식탁에 차려지는 것과 같이 하늘의 식탁도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메뉴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Ῥῆμα)

신명기 8장 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너를 낫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위의 성구에서 사람이 여호와(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라고 하였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고찰하여 보자.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시었으며, 또 그의 종[先知者]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람은 귀로 듣게 된다. 그런데, 귀로 말씀을 받는 인간에게는 몇 가지의 약점들이 있다.

곧, 아무리 중요한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들은 말씀들을 잊어버린다는 것과, 귀로 듣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전혀 못 들은 척 할 수 있다는 등의 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직접 기록하셨다(출 31:18; 32:16, 신 4:13; 9:10). 뿐만 아니라, 모세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과 바울과 같은 신약의 사도들에게 기록하도록 하셨다(출 34:27, 엡 3:5).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도 하며, 눈으로 읽을 수도 있게 되었는데, 이 듣고 읽는 말씀이 바로 성경(聖經, Holy Bible) 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생명의 양식인 것이다. 그리고 이 영의 양식은 성경공부(읽음)와 설교(들음)를 통해서 성도들이 먹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공부를 하고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그 모든 말씀이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육적인 음식물이 우리 속에 들어와 소화가 잘 되어야 몸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우리가 힘을 내어 일하는 것처럼 하늘의 양식인 성경 말씀도 소화를 잘

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서 먹었으면 어떻게 소화를 시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듣고 읽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실생활로 옮기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셨다(cf. 약 1:22-23; 2:14-25).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요한 계시록 1장 3절과 22장 7절에서 말씀하셨다(cf. 약 1:25):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생명의 양식인 성경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들은 후에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긴 것만 소화가 된 것이며,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어서 깨달은 대로 행동으로 옮길 그때에야 비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태초의 말씀(λόγος, 요 1:1-3)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창조의 사역을 같이 하신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道成了人身; 成肉身; 化肉; 聖誕, Incarnation) 세상에 오셨는데(요 1:14),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요 6:35; 48),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요 6:51)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분에 대하여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요 6:68) 라고 고백하고 있다. 또한 요한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하였다(요일 1:1a).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고 요한복음 6장(53-55; 58)에서 말씀하시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며 피를 마셔야 하는데, 어떻게 먹고 마셔야 하는가? 그것이 다름 아닌 성찬(聖餐)의 떡과 잔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임을 마태복음 26장 26-28절(cf. 막 14:22-24, 눅 22:19-20)에서 읽을 수가 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상과 같이 하늘의 양식, 즉 생명의 양식은 말씀(설교)과 성만찬으로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 영의 양식을 먹어야 거듭난 성도들이 힘을 내어 하늘나라의 일들을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주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정학봉, 「성서적 제자훈련」, 요단출판사, 1986, 16).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형편은 어떠한가? 설교는 풍성한데 성찬은 메말라 있지 않은가? 우리의 식탁이 주식과 부식으로 차려져야 하듯이 영적 식탁에도 주식과 부식인 성만찬과 설교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영적인 힘을 충전하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그 힘으로 살아야 하는데, 현대의 교회들은 중요한 한 가지를 제외시킨 상태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시바빠 성도들에게 성찬과 설교가 함께 있는 하늘의 식탁을 먹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적 능력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더욱더 힘차게 할 수 있도록 환원(還元)해야 할 것이다.

2

성직의 내용

일할 조건을 갖춘 성도(교회)가 하여야 할 거룩한 일[聖職]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고 하신 말씀에서 생각하여 보면 분명하여 진다. 다시 말해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들이 곧 그의 지체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활(地上生活)은 교회 및 성도의 본(本)보기가 된다.

그리스도의 성업(聖業)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활하신 이 땅의 삶, 즉 그의 공생애(公生涯)는 갈릴리의 생애와 예루살렘의 생애로 구분할 수가 있다(장성영, 「예배의 원리」, 태광출판사, 2014, 247-271).

갈릴리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전반부라 할 수 있는 그의 갈릴리 생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요약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cf. 마 9:35)에 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일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라고 밝히고 있다.

첫째, 가르치심(敎育): 이것은 예수께서 인간의 선생(혹은 敎師)이신 것을 보이신 것이다. 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알았었다(요 3:2. cf. 마 8:19; 9:11, 막 5:35, 눅 12:13; 19:39, 요 11:28).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도 자기 자신만이 ‘랍비’(ῥαββί, ‘선생’)라고 말씀하셨고(마 23:8),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 11:29) 고 교사적 선언을 하시었다(cf. 엠 4:20, 뱌전 2:21, 요일 2:6). 실제로 예수께서는 그의 공생애 3년 동안 매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시었다.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傳道): 우리의 주 예수께서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나라와 그 복음을 세상(인간)에게 전하시러 오셨음을 나타낸다.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하신 마가복음 1장 38-39절 말씀(cf. 눅 19:10, 사 61:1)을 기억하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열정의 삶을 사시었다.

셋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심(治療): 예수께서 병이나 귀신들을 비롯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즉 왕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왕권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표시되어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2-23절에 기록되어 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질병과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으며, 그 과정에서 귀신들과 풍랑 같은 자연 까지도 복종케 하는 능력들을 나타내시었다.

이 말씀들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사요, 선지자요, 왕이심을 알 수가 있으며, 그의 몸 된 교회와 성도가 하여야 할 거룩한 일들이 곧 가르치며 전도 [宣敎]하고 새롭게 고치는 것임을 깨닫게 한다. 한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사역을 전파, 권함, 가르침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cf. 골 1:28).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의 3대 성업(聖業)을 회당(會堂, Synagogue)에서 행하셨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회당은 율법학교이었다. 예수께서 이 율법학교인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또 고치신 것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성경학교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시는 것이다.

예루살렘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생활이 회당 중심의 삶이었다면, 그의 예루살렘 생활은 성전 중심의 삶이었고,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

첫째,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사 56:7, 막 11:17)이어야 할 성전이 “장사하는 집”(요 2:16), 심지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보시고(마 21:13, 막 11:17, 눅 19:46), 채찍을 들어 성전을 정화(淨化)시키셨다(마 21:12f, 막 11:15-17, 눅 19:45f, 요 2:13-17).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인 것과(요 2:19; 21), 그리스도인의 몸도 역시 성전이 됨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고전 3:16; 6:19, 고후 6:16, 엡 2:20-22, 벧전 2:5). 아울러서 이 성전 청결의 사건은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희생, 즉 제사드림 앞에서 제물로 드릴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과 같이 예배를 준비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나아가서 성전 즉 교회와 성도의 몸이 물질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해서 하나님께 드림에 합당하여야 함을 교훈하여 주시는 것이다.

둘째,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 즉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기를 원하셨다(눅 22:15f).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탁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여 주셨는데, 이것은 구약의 유월절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성찬으로 하여금 연결시켜 주시는 귀중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찬을 행함으로 구약의 율법, 즉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하는 유월절(출 12:14)을 지키는 것이 되며, 아울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를 연결시켜서 예수와 함께 죽고, 또한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최후의 목적이었다. 곧, 인류의 죄를 당신의 피를 흘려서 대속하여 모든 죄인을 구하여 주신 최대의 사건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히 9:12) 위한 것으로 대제사장으로서의 희생 제사를 드림, 즉 예배이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곧 예배의 삶이었음이 확실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네 가지 일들은 그의 직분들이 교사직,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 등이 있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조직신학에서는 교사직을 제외한 직분들을 그리스도의 3중직(三種職, 또는 三重職)으로 다루는데, 이것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기름부음을 받는 직분이기 때문 일 것이다(장성영, 「그리스도교 신학개론」, 태광출판사, 1991, 167).

교회(교인)의 성직

그리스도의 생애가 갈릴리(회당)의 삶과 예루살렘(성전)의 삶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의 몸 된 교회도 성전의 성격인 예배당과 회당의 성격인 교회학교, 두 성격이 동시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와 성도에게 회당적인 성직과 성전적인 성직이 있음을 나타낸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회당적인 성직들은 다음과 같이

교육, 선교, 치리 등이 있다:

교육: 교회와 교인의 첫 번째 일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이 교육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학교에서 교사의 직분을 받은 자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는 말씀(마 28:20상)과 같이 모든 교인들이 다 같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가 있는 것이다

선교[傳道]: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계시자로서 밝혔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이 비밀을 밝히는 임무를 지닌다.”(권호덕, “그리스도의 삼직분에 비취본 한국교회 직분 개혁론”, 『목회와 신학』, 두란노서원, 1994, 1, 96). 따라서 교회와 교인들 역시 “...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및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상)는 말씀들과 같이 전도의 직무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cf. 마 24:14, 눅 24:47).

치리(治理: 行政):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의 자녀인 성도는 이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는 그의 왕권을 부여받았다(창 1:26-28). 그리하여 인간을 만물의 영장(靈長)이라고 하는 것이다.

권호덕은 “그리스도인들이 왕의 직분을 수행하려면 자유인이어야 한다. 스스로 알아서 상황을 판단하고 자기의 일을 수행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라 하여 교인의 치리권은 그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임을 언급하고 있는데(op. cit., 96),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계된다고 본다. 그리고 그 자유를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곧 왕인 것이다. 교회와 교인은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다스리는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사실을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19절에서 천국의 열쇠를 주어진 교회로 표현하셨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위의 회당적인 성직 세 가지 외에 또 하나의 성직은 성전적인 것인데, 성전은 회당과는 달라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성전적인 성직이란, 두 말할 것 없이 희생제물(피의 제사), 즉 예배드림을 말한다.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제일의 목적이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였던 것처럼 교회와 교인의 예배의 성직은 다른 모든 직무보다 우선하며 제일 중요한 성직인 것이다(황의영, 「교회의 직임과 리더십」, 생명의 말씀사, 1993, 29).

예배를 비롯한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임택진은 그의 저서 「제직훈련교재」(기독교문사, 1989, 40)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이웃을 위한 봉사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

교회에는 먼저 신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의 신비적 교제를 가지는 예배가 있고, 신자들 사이에 은혜의 떡을 나누며 함께 기도함으로

믿음을 지켜 나가는 코이노니아(koinonia), 즉 성도의 교제가 있고, 신자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어떤 마음으로 교제하는가의 봉사가 있다

교회의 직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聖職]을 교인들에게 분담시켜 일하게 하는데, 그 일을 맡은 자들을 직분자(職分者) 혹은 직원(職員; 任員)이라 한다. 이 직원은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여러 분야별로 구별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성경에 언급된 교회의 직원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직원들은 초대 교회에는 있었으나 현재에는 없는 비상직원(非常職員) 혹은 특별직원과 초대 교회에서 현재까지 계속 있어 온 통상직원(通常職員) 또는 일반직원이 있다.

비상직원(非常職員)

첫째, 비상직원으로는 다음과 같이 사도, 선지자, 전도자 등이 있다.

사도(使徒, Apostle, ἀπόστολος): 예수께서 직접 택하신 12제자와 바울(Paul)에게만 적용되었다 (마 10:2-4, 막 6:30, 눅 6:13-16, 고전 9:1, 갈 1:1).

열 두 제자 중 가롯인 유다가 예수를 판 뒤 목매어 죽게 되자 그 자리를 보전하게 되었다. 그 때에 요셉과 맛디아, 두 사람이 추천되었고, 제비를 뽑아 맛디아가 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도의 자격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행 1:21-22) 고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도의 직분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사도의 사역은 바나바(Banabas, 행 14:4; 14)나 디도(Titus, 고후 8:23)와 같이 현대교회의 담임목회자에게 주어졌다고 본다.

선지자(先知者, Prophet, προφήτης): 이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예언자)와는 달리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한 은사(예언, 신유 등)를 받아서 사도들을 도왔던 성도들에게 적용하였다.

사도 행전 13장 1절에서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 시므온(Simeon; Niger), 루기오(Lucius of Cyrene), 마나엔(Manaen, 헤롯의 젖동생), 사울 등을 선지자라 한 것을 읽을 수가 있다. 그리고 빌립 집사의 네 딸들과(행 21:8f) 아가보(Agabus)도 선지자이었다(행 11:28; 21:10).

전도자(傳道者, Evangelist, εὐαγγελιστής): ‘복음을 전하는 자’(엡 4:11), ‘전도인’(딤후 4:5)으로서 지교회로 파견되기도 하였었다(딤후 1:5; 3:10, 딤후 5:22).

초대 교회의 전도자들로는 빌립(행 21:8; 8:5), 디모테(Timothy, 고후 1:19, 빌 2:22, 살전 3:1), 바울(행 13:3; 16:6, 롬 15:19) 등이 있었다. 이 전도자는 오늘날 교회의 선교사와 비슷하다고 하겠다.

통상직원(通常職員)

둘째,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통상직원들은 장로와 감독, 교사, 집사 등이 있다.

장로(長老, Elders, πρεσβύτεοι): 교회(성도)를 가르치고 인도하며 다스리는 어른[元老]들에게 적용되었

는데(딤후 5:17, 히 13:7; 17),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다고도 할 수가 있겠다(행 11:30; 15:2; 16:4; 21:18, 딤후 1:5, 벰전 5:1, 요이 1, 요삼 1).

특별히 사도 베드로(벰전 5:1)나 사도 요한(요이 1, 요삼 1)이 말년에 자기들을 ‘장로’라 한 것은 지교회를 담임하는 기간이 지나 실제적인 목회에서 물러난 후에 장로로 장립(將立) 되었음을 암시하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하여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원로목사’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디모데가 ‘장로의 회’에서 목회자로 안수를 받은 기록(딤후 4:14)이 이를 뒷받침하기도 한다.

감독(監督, Bishop): 현대교회의 담임 목회자와 같이 지교회를 맡은 자이다(행 20:28, 딤후 3:1-2, 딤후 1:7). 특히 감독이 현재의 신학교 교수와 같은 교사를 겸하였을 때에는 ‘목사’(牧師, Pastor)라고 한 것 같다(엡 4:11).

교사(敎師, Teacher, διδασκάλος): ‘가르치는 자’로 교회학교 각부의 교사들은 물론 오늘날의 신학대학의 교수도 교사에 포함된다고 보겠다(고전 12:28, 엡 4:11, 롬 12:7, 딤후 2:2).

사도행전에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행 13:1; 11:26; 15:35; 18:11; 28:31) 및 아볼로(Apollos, 행 18:24-25) 등이 초대교회 당시의 교사로 소개되어 있다.

집사(執事, Deacon, διάκονος): 원래 ‘종’ 또는 ‘시종 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교회에서는 ‘구제(救濟)하는 자’로서 공궤(供饋; 재정출납) 등의 봉사와 교회 행정 업무를 맡은 직원을 말한다(행 6:1-6, 빌 1:1, 딤후전 3:8-13).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일곱 명의 집사들이 세워졌었는데, 이들은 스테반(Stephen), 빌립(Philip), 브로고로(Prochorus), 니가노르(Nicanor), 디몬(Timon), 바베나(Parmenas), 니콜라(Nicolas) 등이었다(행 6:5).

이 집사들 중에서는 빌립과 같이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주었던 다른 직분(전도자: 선교사)들로 불리움을 받은 자도 있었다(행 6:8-7:60; 8:5; 12; 35-40).

권사(勸事): 권사의 직분은 성경에 직접적인 기록은 찾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은사에 대하여 언급하는 로마서 12장 8절의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

310 성직신학

(encouraging)로”(개역) 라는 말씀에 의해서 교인들을 권면(勸勉)하고 위로(慰勞)하는 일을 맡는 교회의 일꾼 (권위하는 자)를 권사로 해석하여 교회의 일반직원으로 세우게 되었다고 본다.

3

성직의 원리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聖職]을 할 수 있으며(성직의 조건), 또 그 성직에는 무슨 일들이 있는가(성직의 내용)를 살펴보았다.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의 일들을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교인)의 관계, 즉 머리와 몸의 관계 및 그 활동에서 성직의 원리를 찾고자 한다.

몸의 원리

그리스도의 몸

많은 지체(肢體)들이 모여서 우리의 몸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혹은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고전 12:27, cf. 엡 1:23; 5:30, 고전 6:15). 여기에서 꼭 알아야 할 두 가지의 원리가 있다.

첫째, 몸의 지체들이 서로 다르나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은 생김새와 그 위치가 다르나, 몸을 위해서 어느 지체든지 불필요한 지체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2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 눈이 손 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 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한 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그들의 위치와 모양이 다르며, 많은 적든 모두가 필요한 인물들이다. 그러므로 교인은 본인 스스로가 불필요한 구성원으로 보아서도 안 되지만, 또한 다른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에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가 없다”고 하여서는 안 되겠다.

둘째, 몸의 지체들의 하는 일이 각각 다른 것 처럼 교회의 성도들 역시 그 사명과 하는 일과 그 직분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나 므나의 비유(cf. 마 25:14-30, 눅 19:12-27)에서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교인들에게 일하도록 은사를 주시는 성령과 직임을 주시는 주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위치와 모습과 하는 일이 달라도 하나의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과 교인의 직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자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고린도 전서 12장 4-7절 및 11절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몸

서신서(고전 12:12-27, 엡 4: 11-16; 25; 30)에서

교회와 교인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하였다.

한 몸 안의 지체들이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어서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자기의 맡은 역할을 함으로써 서로 협력하여 그 일을 이루게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노트하는 학생이라면, 그 노트는 손이 혼자서만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눈이 칠판과 노트를 보며 귀는 교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손과 눈과 귀가 함께 노트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교회 안의 성도들도 각자의 은사들을 사용하여 각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 도움을 주게 되며 결국 하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지체들이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므로 지체와 지체 간에 분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의 일을 놓고 분쟁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분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성도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나아가서 어떠한 일도 이를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몸의 지체들에게는 분쟁은 있을 수가 없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협력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는 모든 영광과 고통을 함께 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손이 훌륭한 솜씨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세계적으로 이름난 작품이 되었다면 그의 손만 영광을 입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몸 전체가 영광을 받게 된다. 또한 어떤 사람의 손이 남의 물건들을 훔쳤다면 도둑이라는 지탄을 받을 때에는 그의 손이 아니라, 그 사람인 것과 같다.

이러한 한 몸, 즉 하나 됨에 대하여 존 맥아더(John MacArthur)는 “세상이 우리의 하나 됨을 볼 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 하였다(John MacArthur, 한화룡,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두란노서원, 1985, 15).

교회의 머리

신약성경(엡 1:22; 4:15; 5:23, 골 1:18)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강조하고 있다.

인체(人體)가 머리와 몸으로 구분되고, 몸의 각 지체가 머리의 명령에 의해서 활동하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 역시 그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몸의 어떤 부분이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몸이 불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일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몸(교회)을 불구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확실하게 순종하여야 그의 몸 된 교회가 온전하며 건강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의 조직

우리의 몸이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 활동하는 조직체인 것처럼 교회 역시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체이다. 교회의 “조직의 목적은 신도들로 봉사

하게 하며 그들에게 교회의 윤택함과 영감을 가져다 주게 하는 데에 있다.”(趙東震, 「教會行政學」, 크리스찬 비전, 1992, 185).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직이 있어야 하는가를 이미 살펴 본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알아보면, 예배의 기관을 비롯하여 치리기관, 교육기관, 선교기관 등이라 하겠다.

예배기관

교회의 모든 조직과 교인은 예배를 위한 기구(機構)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모든 일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의 제물, 즉 예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기관들은 그 제일의 목표를 예배에 두어야 한다. 교회에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위원회나 예배부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예배에 관련하여 특별기관인 찬양대(讚揚隊, 또는 聖歌隊)가 있는데, 이 찬양대는 보통 담임목사의 직속 하에 둔다.

치리기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금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의 몸 된 교회는 다스리는 기관[治理機關]을 가지게 된다. 이 치리기관으로서의 최고의 기관은 모든 교인의 모임인 교인총회이다. 이때의 교인은 물론 입교인, 즉 세례교인을 가리킨다.

이 교인총회는 교회당(예배당)이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당회’(堂會)라고 한다. 장로교회 등에서는 교인총회를 ‘공동의회’(共同議會)라 하며(성갑식,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 1974, 165. nn, 「헌법」,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1976, 25), 또한 ‘사무총회’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는 것 같다.

개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회를 목사와 부목사 및 장로들로 조직하고 당회(elders session)라 하는 교회도 있는데(김영종, 「현대교회 행정학」, 무림출판사, 1991, 85), 이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이미 언급된 ‘장로회’(長老會, The Body of Elders)라고 하여야 옳다고 본다.

당회는 곧 교회를 의미한다. 이 당회는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1년에 1,2회 정도 모이는 것이 보통이며, 당회가 모이지 않는 기간 동안은 일반적으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직원들의 모임인 ‘제직회’(諸職會)가 금전출납 등의 당회가 결정한 사항들을 시행한다.

당회나 혹은 제직회를 중앙의 행정기관이라고 한다면, 각 지역의 행정기관으로는 ‘구역회’(區域會)가 있는데, 이 구역회를 감리교회에서는 ‘속회’(屬會)라고 한다(임택진, 「제직훈련 가이드」, 한국문서선교회, 1989, 61). 그리고 규모가 큰 교회는 몇 개의 구역회들을 하나의 교구(敎區)로 편성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교육기관

예수께서 하늘나라의 선생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과 같이 교회는 교육의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 교육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을 가지게 된다.

이 교회의 교육기관을 교회학교(敎會學校)나 주일학교(主日學校, Sunday School), 또는 성경학교(聖經

學校, Bible School) 라고 한다.

교회학교는 일반적으로 연령별로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노인부 등으로 조직하나, 개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조직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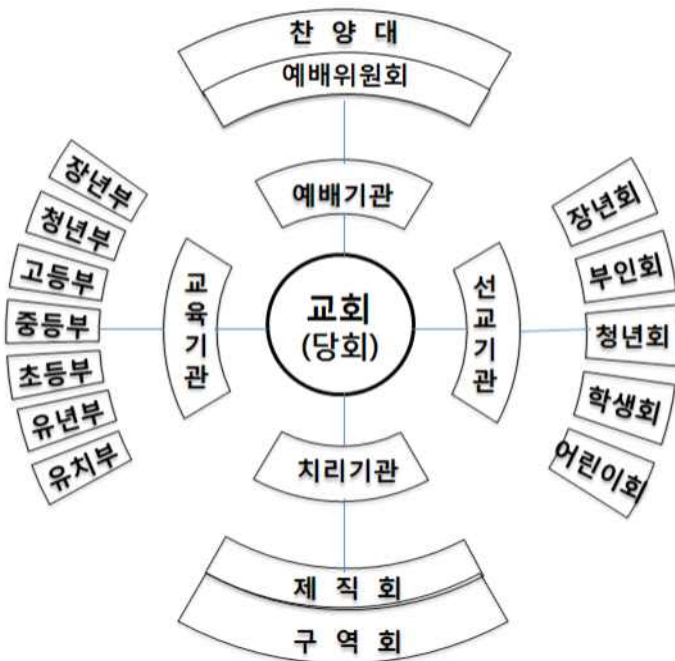
선교기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교회는 두말할 것 없이 선교의 직무가 있으며, 이 직무를 다 하기 위해서 선교기관(宣敎會)을 가지는데, 이를 전도회(傳道會)라고도 한다.

이 선교기관은 연령이나 성별, 또는 특별한 그룹별로 조직된다. 연령과 성별로 조직되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선교회(靑年會), 학생선교회(學生會), 어린이선교회(어린이회)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침례교회에서는 남선교회나 청년회를 ‘형제회’라 한다(Howard B. Foshee, 이정희, 「교회행정편람」, 침례신학대학출판부, 1987, 75f).

남선교회나 여선교회, 혹은 청년회를 연령별로 세분하거나, 학생회도 대학생회, 고등부회, 중등부회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다. 또한 선교회를 의사선교회, 기업인선교회, ... 등과 같이 직업별, 혹은 OO마을선교회, OO아파트선교회, ... 등의 지역별로 조직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언급한 교회의 조직을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고 하겠다.



다만, 교회의 조직과 성도의 모든 직분이 성경적이며, 아래의 권호덕(*op. cit.*, 99)의 말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 그 중심을 두어야 한다:

교회 체제가 샤머니즘화 또는 비성경적으로 될 우려성은 교회의 모든 직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과 아무런 관련을 가지지 않을 때 생기는 법이다. 모든 개교회의 조직표 중간에는 당회장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져야 한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협력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여야 한다(*cf.* 고전 4:1f).

교회는 하나님의 성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를 위한 기구는 물론, 치리기관, 교육기관, 선교기관 등을 기본으로 하되 그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확대 또는 개편·조직된다. 이렇게 조직된 교회는 비록 이 땅 위에 있지만, 하늘나라에 속해 있고, 성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4

성직의 임직(任職)

하나님의 거룩한 일[聖職], 즉 교회의 일들을 맡을 일꾼들은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데, 이것을 임직(任職)이라 한다. 그 임직의 절차로는 보통 목회자 혹은 제직회의 추천으로 세례교인 전체회의(당회 혹은 공동의회나 사무총회)에서 결정하여 임직식을 통하여 직분을 맡기게 된다.

여기에서 제일 우선하며 중요한 절차는 누구를 교회의 일꾼으로 추천을 하느냐는 것이다. 이는 목회자나 제직회의 추천받은 자들은 대개 다 교인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어 직분자들이 되며, 다른 한 편으로는 일꾼들을 잘 못 세우게 되면 계속하여서 교회에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교회의 일꾼으로 추천해야 할 자들의 자격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신약성경에서 그래도 자세하게 그 자격을 언급한 일꾼들은 감독 혹은 장로와 집사 등이다.

장로와 감독의 자격

교회의 장로(長老)와 감독(監督)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서는 디모데전서 3장 1-7절과 디도서 1장 5-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자 격 의 내 용	디모데전서	디도서	비 고
1	책망할 것 없음	3:2	1:6, 7	장로
2	한 아내의 남편 됨	3:2	1:6	”
3	복종(믿는) 자녀됨	3:4	1:6	”
4	자기 집 잘 다스림	3:4		감독
5	절제함	3:2	1:8	”
6	신중(근신)함	3:2	1:8	”
7	단정(아담)함	3:2		”
8	나그네 대접함	3:2	1:8	”
9	가르치기 잘함, 지킴	3:2	1:9	”
10	술 즐기지 아니함	3:3	1:7	”

11	구타하지 아니함	3:3	1:7	”
12	관용함	3:3		”
13	다투지 아니함	3:3		”
14	돈을 사랑치 않음	3:3		”
15	새로 입교자 불가	3:6		”
16	외인의 선한 증거	3:7		”
17	고집대로 하지않음		1:7	”
18	급히 분내지 않음		1:7	”
19	이득 탐하지 않음		1:7	”
20	선행을 좋아함		1:8	”
21	의롭고 거룩함		1:8	”

두 곳의 말씀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앞의 표에 의하면 장로와 감독의 구별이 디모데전서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디도서에서는 그 구별이

있는 것처럼 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장로와 감독을 구태어 구별한다면 장로(長老)는 현재 교회의 원로목사(元老牧師)로, 감독은 지교회를 담임한 목사로 보여진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에는 디도서 1장 5-6절에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다:

… 각 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은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서 다 같으나,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것은 감독의 자격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분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딤후 3:5) 하여 가정치리(家庭治理)의 차원에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함”(딤후 3:4) 으로 아들·딸을 낳은 아버지가 된 가장(家長)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러한 반면, 원로급인 장로의 경우에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일 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자녀를 둔 것으로 본문에서 언급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이제는 지교회의 담임목사인 감독의 자격들을 성서(딤후전 3:2-7)의 말씀에서 정리하여 보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힘쓰는)”(1절) 감독 직분의 본분을 15가지 덕목(德目)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중 6종은 소극적인 성격의 것이며, 9종은 적극적인 성격의 것인데, 그 자격을 정리 요약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교회의 담임자인 감독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서만 언급되었는데, 그것도 결혼한 남자라야 하되 ‘한 아내의 남편’으로 강조한다(2절). 이것은 일부다처주의(一夫多妻主義)를 금지한 것, 즉 이중 결혼으로 첩을 둔 자는 감독의 자격이 없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는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여 ‘새로 입교한 자’는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6절) 하였는데, 이것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자로서의 신앙경력을 갖추고 있는 교인이 감독의 자격이 있다는 말씀인 것이다. 그래서 현재 교회에서는 3-4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를 목사로 세우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독은 교회 내에서 신앙적 혹은 도덕적 또는 법률적으로 아무 “책망할 것이 없으며”(2절 상), 또한 “(교회 밖의)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7절상)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7절 하) 염려함이라고 하였다.

이제는 디도서 1장 7-9절의 말씀에서 감독의 자격들을 살펴보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함이라.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의 기록과 유사하지만, 특이하게 교회의 담임한 자로서의 감독에 대해서 언급한 것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본문에는 감독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언급(7절) 하였는데, ‘청지기’(廳直이, οἰκονόμος)는 비록 집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뜻대로 집의 전체적인 일을 맡은 자로 감독은 하나님의 뜻대로 맡은 교회를 잘 다스려야 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감독은 다른 아닌 교회를 담임하는 자란 것을 말하여 준다. 그래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7절), … 등의 자격론을 펼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감독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자로서 자기가 먼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9절) 하였는데, 이것 역시 솔선수범(率先垂範)이라는 지도자의 자격을 언급한 것으로 감독은 교회를 담임한 자인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집사의 자격

집사(執事)가 초대 교회의 직분으로 자리 잡게 된 최초의 동기는 구제사업을 위해서였다(행 6:1). 그런데 이 ‘집사’(διάκονος)란 말은 교회에서 정식 직분화 되기 전까지 두 가지 측면에서, 즉 공적인 면에서의 집사(빌 1:1)와 비공식적인 면에서 봉사하는 자(엡 6:21) 모두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결국 집사는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직책, 다시 말하여 감독을 도와서 재정과 행정 업무를 맡은 자들임이 분명하다(행 6:1-7). 이 직분의 자격이 감독의 자격을 언급함을 뒤이어 디모데전서 3장 8-1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

이 말씀에서 집사의 직분도 역시 감독의 직분과 같이 결혼한 남자, 특히 ‘한 아내의 남편’(12절)으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로 그 자격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1절의 “여자들도 ...”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자 집사의 유무가 결정 되어지는데, 영역(英譯) 성경(NIV, KJV, Living Bible 등)에서와 같이 집사 될 자 ‘그들의 아내들’(their wives)로 번역(해석)할 때에는 교회에는 여자 집사는 없는 것이 되며, 또 다른 해석 즉 ‘아내’가 아니라 그냥 ‘여자들’(womans)일 경우에는 여자들도 집사의 직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10절)이라 하였는데, 이 말씀에 의하여서 교회에 매년 임명되는 서리(署理) 집사의 제도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집사의 자격들은 감독 직분의 자격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겨서 생략하도록 한다. 다만 노파심으로 한 마디 강조한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직분자를 세워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며, 제대로 힘을 내어 부흥케 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임직식

먼저 교회가 필요한 직분자를 목회자 등이 천거하고 교인총회에서 결정한다. 이때에 교회의 규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 규정에 의해서 천거하고 또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교사나 서리집사와 같이 안수하지 아니하는 직분자 및 각 부서를 맡길 자들은 매년 첫 주일에 그 해의 일꾼을 임명할 때에 임명장을 주어 임직케 한다.

그리고 장로나 안수집사와 같이 안수하여 직분자를 세울 경우에는 그 직분자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지방회나 총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로 임직하되, 그 임직식은 보통 교회의 어떠한 기념일의 행사와 함께 안수위원을 청빙하여 임직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음의 임직식 순서는 필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행하여졌던 임직예배이다. 이 순서는 각 교회의 여건에 따라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

교회창립 및 임직 감사예배

11:00

사회: 담임 장성영 목사

제1부 예배

개 식 사 ----- 사 회 자
 신앙고백 ----- 주는 그리스도시오 ----- 다 같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찬 송 --- 28장/복의 근원 강림하사 --- 다 같 이
 대표기도 ----- 중경회장(승안) 조용일목사

334 성직신학

성서봉독 ----- 역대상 11:10-19 ----- 다같이 합독
말 씀 - 다윗 왕조와 용사들 - 증경회장(성문) 김운철목사
봉헌찬송 --- 320장/나의 죄를 정케 하사 --- 다 같 이
봉헌기도 ----- 지방부회장(황정) 김수삼목사

제2부 일직식

임직자 소개 ----- 담 임 목 사
서 약 ----- 지방회장(승의) 전장원목사

①임직자에게 ②교우에게

장로 안수례 ----- 안 수 위 원
이재석목사 김운철목사 최연기목사 장성영목사

권사 안수례 ----- 안 수 위 원
전장원목사 조용일목사 김수삼목사 장성영목사

집사 안수례 ----- 안 수 위 원
최연기목사 이재석목사 김운철목사 장성영목사

공 포 ----- 담 임 목 사

임직패 수여 ----- 담 임 목 사

제3부 권면과 축하

권 면 ----- 증경회장(신덕) 최연기목사

회원, 축하패 증정 ----- 장로협의회
 꽃다발 증정 ----- 가족 및 교우
 축가 ----- 임직자 자녀들
 축사 ----- 장로협의회장(한마음) 양태수장로

제4부 파송

인사 및 광고 ----- 심문보장로
 찬송 ----- 595장/나 말은 본분은 ----- 다 같 이
 축도 ----- 협의회 증경회장(서인) 이재석목사
 사진촬영 --- ①임직자와 안수위원 ②경인교우 ③가족

코이노니아

13:00

식탁의 교제 ----- 명륜진사갈비

집필 후기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제2대 임금이었던 다윗(David, B.C. 1013-972 재위) 왕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가 새로 건축한 궁 안에 거하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궤(법궤)는 아직도 궁궐 밖(유다의 기랴여아림)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 법궤를 궁 안으로 옮겨와야 하겠다는 자기의 생각을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한 후에 온 이스라엘 땅에 알리니 못 백성이 좋게 여겼다.

다윗 왕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에 제사장 웃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몰았고 온 무리는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고 뛰놀았다. 지금으로 말하면 카퍼레이드를 벌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수레가 기돈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에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법궤를 붙들자 그가 즉사하였다. 왕과 백성들이 깜짝 놀라 그곳을 ‘베레스 웃사’(Perez Uzzah, “여호와께서 웃사를 찢으셨다”)라 하고 그 법궤 옮기는 것을 중단하였다(삼하

336 환원신학

6:1-8, 대상 13:1-11).

법궤를 옮기는 이 행사는 다윗의 신앙에서 시작되어 제사장들과 지휘관들의 찬성과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음이 분명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옷사를 죽이셨을까? 그것은 법궤를 옮길 때에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출 25:14, 민 4:15, 신 31:9, 수 3:3)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베레스 옷사의 사건에서 우리는 환원운동의 기본 정신을 발견할 수가 있다. 우리 신앙의 계획이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지도자들의 동의를 얻고, 또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았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면 실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우리의 신앙적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고 또한 교회 안·밖으로 다른 이들의 찬성이 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성경)에 어긋난다면 죄가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잘 못이 발견되면 회개하고 돌아설 것[還元]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

하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찾도록 하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환원신학

© 장성영 2023

2010년 8월 15일 초 판 발행

2023년 8월 15일 증보판 발행

지은이 · 장성영

펴낸이 · 최대성

펴낸곳 · 태광출판사

등록 · 제8-30호 1975년 5월 26일

주소 · 03422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4길 42(신사동)

전화 · 02-386-9994, 4447 팩스 · 02-387-3836

E-mail · aoneway1@chol.com

ISBN

The Great Light Publishing Company, Seoul

Printed in Korea

값 18,000 원



